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행

KTX

MARCH 2022

창원



꽃처럼 그리운 남쪽 풍경, 창원 ● 자전거 타고 만난 서천 장항읍 ● 총천연색 꿈을 꾸다, 작가 빠키

독립 공간, 편안함에 감탄하다!

라쉬반이 찾아낸 남성 팬티 기능의 핵심은 남성의 정자 기능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적정 온도인 33.3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ADO0475 성능인증



www.lashevan.com 1544-7888

 **라쉬반코리아**
LASHEVAN

독립팬티

부산,포항역에서
KTX티켓을 보여주시면
20% 할인

22.03.01~31까지



www.lashevan.com 1544-7888

테마 여행_창원

조각가 문신은 고향이 그리워 19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구 귀국했다. 어릴 때 찾던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미술관을 짓고 시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에서 그가 창조한 예술과 사랑한 바다를 만난다.



기차 타고_서천

충남 서천 장항읍에는 어제와 오늘이 뒤섞인 골목이 흐른다. 장항도시탐험역에서 자전거를 빌려 그 골목을 살살이 누볐다. 마침 햇살이 눈부시고 바람이 온화한 날이었다. 내 친김에 장항송림까지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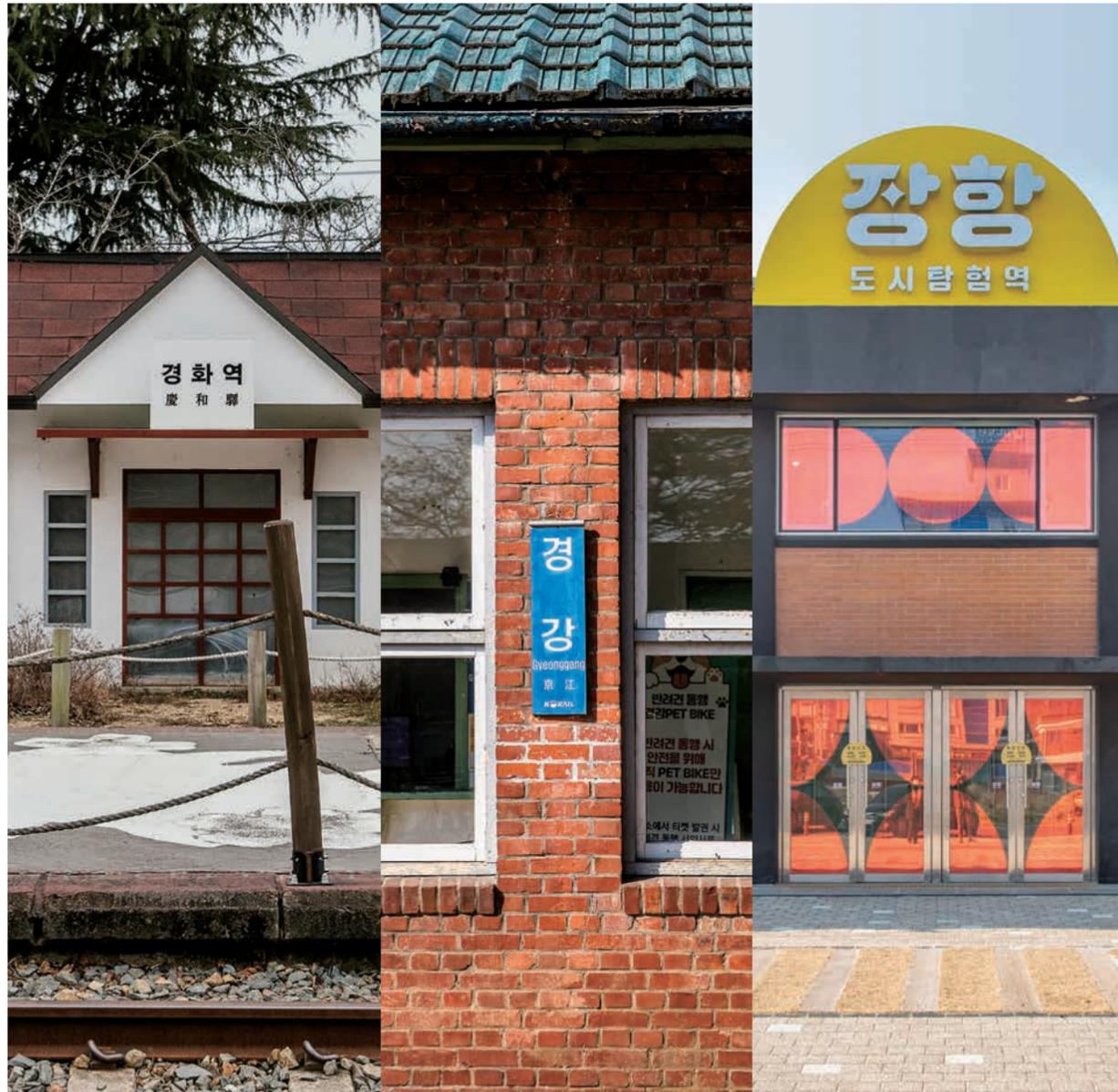




작가의 방_빠키

충천연색 꿈을 꾸는 사람, 빠키의 1인 스튜디오 '빠빠빠 탐구소'를 찾았다. 빠키가 그리는 경쾌한 색, 선, 면엔 우주의 에너지, 우연의 리듬이 깃들어 있다. 원초적 즐거움을 일깨우는 기하학무늬 속으로 기꺼이 빨려 든 시간이었다.

CONTENTS



054

테마 여행
창원

계절이 변하는 창원의 풍경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야기를 들었다.

078

이 계절이 여행
춘천

언제나 그리우면서 새로운 도시
춘천의 '봄스러움'을 가슴에 담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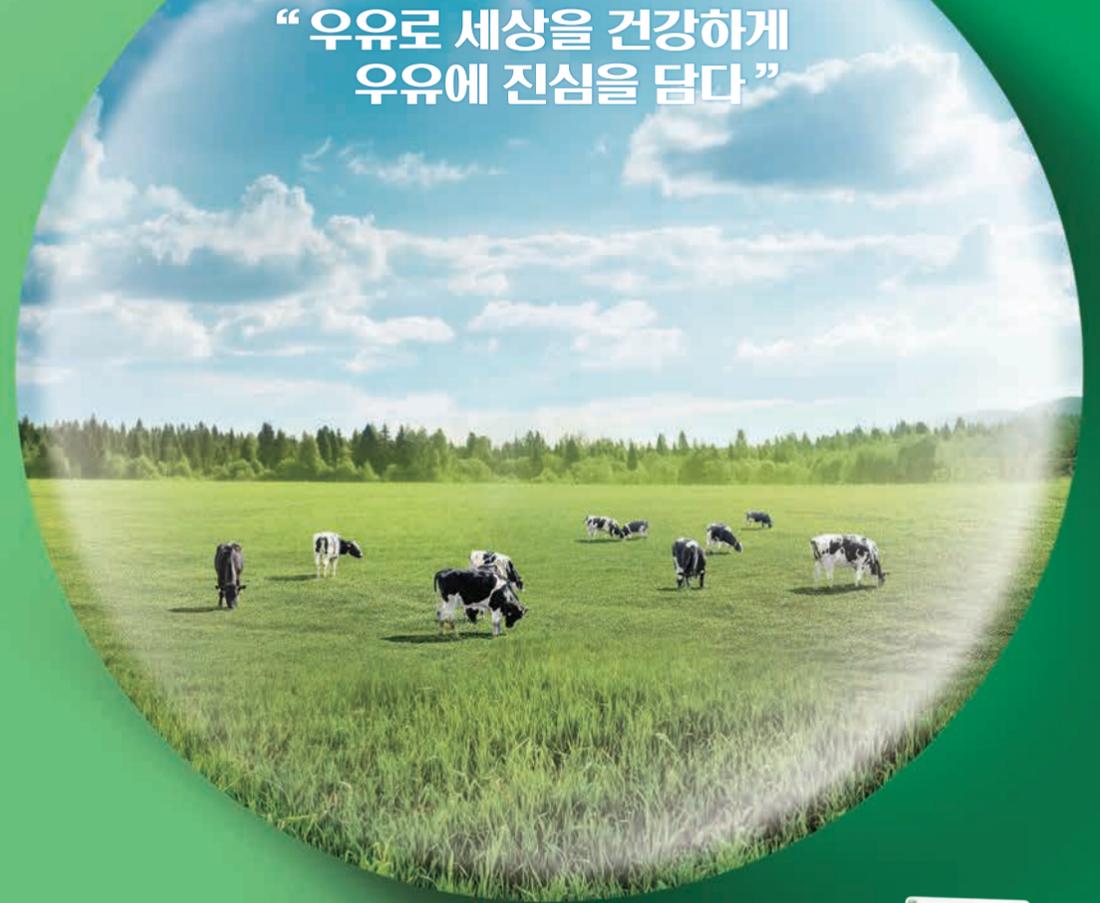
094

기차 타고
서천

장항도시탐험역에서 자전거를 빌려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달렸다.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
우유에 진심을 담다”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100%”

나100%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등급



028 잡학 사전

주민이 주민의 이야기를 방송한다.
공동체라디오에선 모두가 주인공이다.

034 꼭꼭 스탬프 여행

역사와 자연이 다채로운 군산 여행이
스탬프 투어로 더 만족스럽다.

036 신상 푸드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는 오돌토돌한
표면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040 맛집 탐방

충북 청주대학교와 국립현대미술관
근처 훈훈한 맛집을 방문했다.



106 걷기 여행

겨울 끝자락, 강원도 철원에서 한탄강
물윗길의 웅장한 풍경 속을 걸었다.

114 촬영지 여행

삼국시대 고분부터 대도시 면모까지
다가진 대구는 '명배경' 성지다.

124 작가의 방

빠빠빠 탐구소의 탐구 대장,
빠키가 꾸는 형형색색 꿈을 엿봤다.



132 문화 돋보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선거를 다룬
영화를 통해 한 표의 힘을 확인했다.

136 위스키 인사이트

1608년, 부시밀이 위스키 제조 허가를
받으면서 위스키의 역사가 시작됐다.

KORAIL INFORMATION

- 154 한국철도 소식
- 160 시간표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COVER STORY

1995년 타계했으나 조각가 문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창원시립마
산문신미술관 곳곳에 놓인 작품에서 고향 바다를 사랑한 문신의 삶과
예술을 생각한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
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the beta family

놀랍도록 다재다능한 하드셀 패밀리의 탄생



KTX

바로 지금, 여행
MARCH 2022

2022년 3월호 제19권 제3호 통권(제213호) 2022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나희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조인원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김구보 kkb@seoulmedia.co.kr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인턴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온라인 기자 양한나 yangyang@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온라인·광고 디자이너 김다운 dadakorea@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부장 오길섭 과장 정수호

전략기획실

본부장 심정섭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3278-5528 광고 02-3278-5556

MONAMI®



(주)모네 고객센터 080-022-0153 www.monami.com | 온라인 공식쇼핑몰 www.monamimall.com

기록이 필요한 순간, 153 네오 만년필 EF



들어가는 글

한 장면이라도 선명한 봄으로

이번이 몇 번째 봄이세요? 만 나이에 맞추어 답할 수 있겠고, 기억이 없는 유아 시절 몇 년을 빼서 셈할 수도 있겠죠. 지구로 따져서는 도대체 얼마라 해야 할까요. 46억 번째 봄? 지구가 태어날 때엔 지금처럼 계절이 명확하지 않아, “봄 비슷한 봄을 맞은 건 5억 3000만 번째인가? 좀 오래돼서...”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봄, 마침내 봄입니다.

3월호를 2월에 만드는 저희는 아직 겨울에 경남 창원, 강원도 춘천과 철원, 충남 서천을 다녀왔습니다. 겨울의 몸통에서 새로운 계절의 기색을 찾아내고 상상해야 했지요. 한반도 남쪽, 벚꽃으로 유명한 고장 창원에 간 김규보 기자는 어제의 기억을 토대 삼아 봄을 그립니다. 우리는 꽃을 본 적이 있고 직접·간접 경험은 상상의 재료니까요. 그가 상상한 창원의 봄은 아름답습니다만, 꽃피기 전의 창원 역시 그랬습니다. 옛것을 “다 허물어 한꺼번에 세우는” 빠른 길 대신, 열흘 피었다 지는 꽃이 도시에 내내 머무르도록 건물과 담벼락을 사람들이 느릿느릿 꾸민 골목이 온기를 전합니다. 그 온기가 봄을 닮았습니다.

서천 장항읍을 취재한 강은주 기자에게는 ‘다방 아침 메뉴’를 전해 듣고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침 메뉴가 커피 한 잔, 달걀부침, 깨죽의 독특한 조합이거든요.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야 하는 일꾼들이 들러 간단히 요기”하는 메뉴래요. 우아! 제가 평생 몰랐어도 상관없는데, 안다고 제 인생이 달

라지지도 않는 사실들이 저는 왜 이리 재미있고 신기하고 좋을까요. 어느 지역의 사소한 풍속과 역사가 그곳을 상상하게 하고, 가 보고 싶게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봄을 닮았습니다.

저는 춘천을 맡았어요. 경춘선, 춘천 같은 단어에 ‘아아’ 하고 긴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춘천을 다녀간 사람이라면 그 도시가 그리움, 추억과 동의어가 되잖아요. 옛 기차길을 레일바이크 타고 달리는데 싱그러운 기억이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낭만이, 새록새록 나오는 웃음이 봄을 닮았습니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은 취재지 가운데 가장 북쪽이었습니다만, 남혜림 기자는 햇살 쬐며 녹아가는 겨울을 보고 왔습니다. 한탄강 물 위에 ‘뜨운’ 길은 4월에는 아예 철거한대요. 봄이 왔음을 알려 주는 확실한 증거네요.

지구와 달리 사람은 셀 수 있는 만큼만 봄을 맞아요. 100년 살아도 100번. 수업 시간에 소설을 몰래 읽다 창밖으로 눈을 돌렸을 때 벚꽃이 비처럼 내린 열일곱의 봄은 선명하거든요. 친구들과 기차 타고 강촌역으로 떠난 스무 살도요.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봄이 소중한지 몰라서, 어찌다 보니 봄이 지나가서 몇 번의 봄은 아무런 장면으로도 남지 않았네요. 사라진 봄이 아까워요. 여행은 봄을 누리고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죠. 저희의 글과 사진이 독자님의 앓은 자리를 들썩이게 하길 바라요.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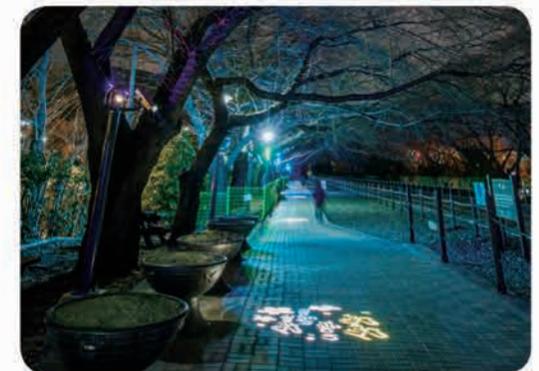


어제 도
내일 도
경화역

벚꽃별이 쏟아지던
경화역에서
유난히 반짝이던 우리.



- * 경화역 별별 브이로그 공모전
- * 마음 한줄 백일장
- * 별빛이 쏟아지는 경화역 철길야행
- * 경화역 철길따라 인문학 향연





→ 탐험의 순간을 함께하는 완벽한 파트너

피닉스7 시리즈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편안하게 즐기도록 돕는 GPS 스마트워치 피닉스7 시리즈는 태양광 충전으로 최대 578시간 사용 가능하다. 러닝, 하이킹, 골프, 스키 등 40가지 이상의 스포츠 기능을 지원해 심박수, 혈중 산소포화도, 분당 호흡수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한다. 빌트인 LED 플래시라이트를 장착해 야간 활동도 문제없다. 가민 02-2141-5855



← 실용성과 패션 감각을 모두 충족시키는 코트

모즈 코트

퀼팅 베스트 라이너를 적용한 코오롱 시리즈의 시그너처 남성 코트다. 미군 M-65 피시테일 파카에서 영감을 얻은 밀리터리 디자인이 돋보이며, 경량 소재를 사용해 편하고 부담 없이 걸치기 좋다. 양쪽과 안쪽에 포켓이 있어 수납도 효과적이다. 버튼으로 후드 탈착이 가능해 날씨에 따라 코디한다. 코오롱 시리즈 1588-7667





강인한 생명력의 천연초를 담은 키즈코스메틱

페르미어파파 키즈 3종 세트

아이에게 자연을 담은 키즈코스메틱 제품을 선물하자. 페르미어파파 키즈 세트는 울인원 젤워시, 로션, 크림으로 구성된다. 울인원 젤워시는 천연초·모리가 추출 보습 인자가 씻는 중에도 수분 손실을 막고 피부에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목욕 후 로션, 크림 순서로 바르면 보습 효과가 배가돼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철원코스메틱** 070-7807-7800



나무 나이트 문양에서 착안한 프린트

ALC0810 프린트 시폰 셔링 원피스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의 아이로 원피스를 입고 피크닉을 간다. 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테마로 디자인한 원피스는 나이트 문양 프린트가 은은한 멋을 자아내 별다른 스타일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스럽다. 걸음을 땔 때마다 하늘하늘한 롱 시폰 원피스의 옷자락이 꽃잎처럼 흩날린다. **아이로** 02-2256-7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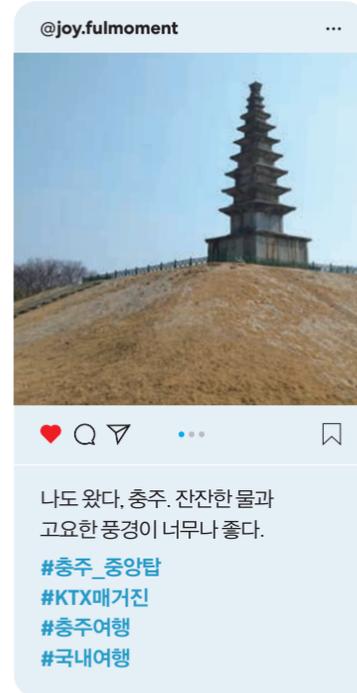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follow

@ktxmagazine



@ktxmagazine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농부아빠의 사랑이 담긴
화장품 브랜드 페르미어파파의
키즈 라인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역은 힐링춘천입니다

Healing Memory
춘천의 일몰

늘 분주한 일상에 잠시 침표를 찍고 낭만과 여유를 찾아 무작정 떠났던 여행! 힘과 힐링으로 충만한 호수와 도시가 공존하는 춘천에서 내리자!

Healing



Contributors



[곡곡 스탬프 여행]
김소리
군산시청 주무관

스탬프 투어 주요 장소 사진을 받고 싶다 하니 기다리라 하셨다. 물론, 관련 부서에 연락해 사진을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 주무관님은 주말을 넘겨 월요일에야 사진을 보내 주셨다. "주말에 사진을 찍어왔어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도 있던데요?" "그것도요." 우아... (KTX매거진)에 영입하고 싶은 인재. 사진 수준은? 그것도 우아... 이래저래고 마워서 이 지면에 모시겠다고 했다. "제 사진요? 촬영하고 드릴게요." 주무관님은 이번에도 주말을 넘겨 보내 주셨다. 열정 넘치는 주무관님, 정말×100 대단하세요! **김규보**



[테마 여행]
이정애·이보흠
창원시청 주무관

취재에 앞서 전화를 해 몇 가지 요청을 드리는데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내가 말하는 리듬에 맞춰 타닥타닥. 이정애 주무관님이 요청 사항을 기록하는 소리가 분명했다. 취재에 필요한 그 일이 곧바로 이메일로 날아왔으니까. 현장에는 이보흠 주무관님과 함께 나오셨다. 인사를 나누고 여좌천과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을 함께 걸었다. 하천과 공원의 역사, 서식하는 식물, 창원시의 다른 많은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문할 때마다 대답은 주무관님의 이메일처럼 곧바로 날아왔다. 두 분이 도와주셔서 창원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김규보**



[기차타고]
나연옥
서천군청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을 두 번 만났다. 첫 만남은 2015년이었다. 서해금빛열차가 막 개통한 시기다. 그때 선생님이 안내한 식당에서 박대구 이와 한산소곡주 맛에 처음 눈뿔다. 두 번째 만남까지는 7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사이 나는 직장을 세 번이나 옮겼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7년 전 모습 그대로 서천에 계셨다. 기벌포해전의 뜨거운 역사, 서천 출신 문인들의 이름을 물 흐르듯 읊으면 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몽글해진다. 이 신비로운 우연을 한동안 곱씹으면서 생활의 무게를 버티 볼 작정이다. 감사하다는 말로 모자라 이 지면을 빌린다. **강은주**



[걷기여행]
서양숙
철원군청 지질공원해설사

한겨울만큼은 아니어도 철원은 추웠다. 철원 추위는 그야말로 강력! '장갑과 목도리만 있으면 괜찮겠지.' 생각한 게 우스울 정도였다. 핫팩이라도 챙겨 올걸, 하며 시무룩할 때 "핫팩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주머니에 넣어요"라며 선생님이 꼭 쥐어 주셨다. 따... 따뜻해, 훌쩍. 한탄강 물윗길은 총 8킬로미터. 해설사님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길이다. 돌근처 얼음은 빨리 녹는다는 이야기, 갈대와 억새 구분법 등 흥미로운 이야기보따리에 폭 빠져 건다 보니 어느덧 목표 지점 도착. 8킬로미터 길이 금방 끝났다. 해설사님 덕분에 갈대랑 억새가 헛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남혜림**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안마의자 파나소닉 리얼프로



REAL PRO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 Healthcare Leading Company

3월 한달간! 안마의자 할인 &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상품 출시



MAK1
MA05 1대
+ MAK1 등 쿠션



MAF1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MA32
30만원 DC



EP-MA05

걷기 여행의 힘

우리는 걸으며 산바람을 맞고 강물을 어루만진다. 탈것에선 느끼지 못하는 걷기 여행만의 매력을 점점 많은 이가 알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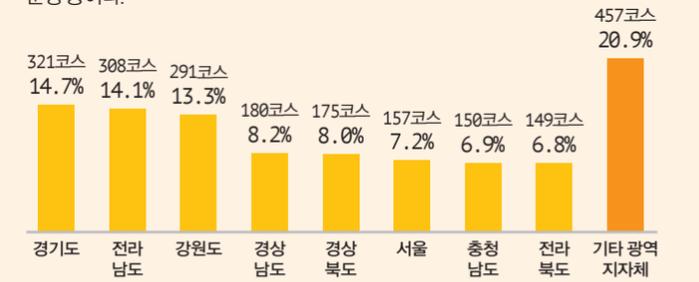
인간은 왜 걷는가, 라는 질문은 우문으로 들린다. 일터에서 돈을 벌거나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하지 않는다면 먹고사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 보겠다. 인간은 왜 걷기 여행을 하는가. 운전대를 계속 잡는 대신에 완전 자율 주행 버튼을 눌러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인간이 최소한만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지금, 걷기 여행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걷는 행위가 주는 즐거움에 가까워졌다. 탈것에선 느끼기 힘든 산바람과 만질 수 없는 강물과 오래 감상하기 어려운 수평선을, 걷는 동안 느끼고 만지고 새긴다. 걷기 여행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각자 달라도 유행을 넘어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현상이다. 전국의 산과 바닷가, 강가와 유적지, 도심에 자그마치 536개, 2188코스, 총길이 2만 3500여 킬로미터의 걷기 여행 길이 놓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걷기 여행 붐은 제주 올레길이 문을 열고 지리산 둘레길이 시범 구간을 개통한 2007년과 2008년 사이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첫째 3000명에 불과하던 제주 올레길 여행객은 2011년 처음 연간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후에도 연평균 100만 명이 방문해 걷기 여행 열풍을 선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16년 750킬로미터의 동해안 해파랑길을 시작으로 한반도 둘레를 하나로 잇는 총길이 4544킬로미터의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하는 중이다. 그토록 많은 길을 우리는 왜 걷고 있는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걷기 여행을 한 사람 가운데 60.1퍼센트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무경험자는 44.7퍼센트만 만족했다. 단순 계산이지만 둘의 차이인 15.4퍼센트를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에 대입하면 785만 명. 산바람과 강물과 수평선의 기억을 행복하게 간직하는 이가 그만큼 많으며, 그래서 걷기 여행 길에 씨앗처럼 뿌려지는 걸음걸음이 우리의 내일을 더 화사하게 꽃피울 거라 예상해 본다. ㉠



▶ 걷기 여행길코스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걷기, 자전거 코스 통합 여행 정보 시스템 '두루누리'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 전국에 걷기 여행 길 2188코스가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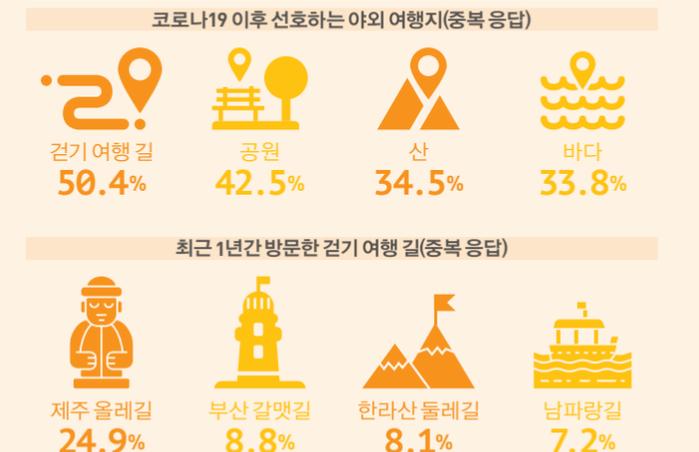
▶ 걷기 여행 경험자비율과 기간

한국관광공사가 2018~2020년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걷기 여행 경험자는 2018년 30.9퍼센트에서 2019년 37퍼센트로 증가했다. 2020년엔 코로나19로 국내 여행객 수가 대폭 감소했으나 걷기 여행 경험자는 33.2퍼센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선호하는 야외 여행지와 최근 방문한 걷기 여행지

한국관광공사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2020년 실태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야외 관광지로는 걷기 여행 길(50.4%)이 꼽혔다. 걷기 여행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사람도 43.3퍼센트에 이르렀다.





함께 만들고
함께 들어요

지역 주민이 동네 이야기를 방송한다.
공동체라디오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진짜 이웃을 만난다.

COMMUNITY RADIO



89.1MHz 공동체라디오

2004년 시범 사업으로 공동체라디오가 첫 방송을 내보냈다. 전국 단위 미디어가 다루기 어려운 지역의 안건, 사건, 일상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방송은 때로 유쾌하고 때로 진지하게 마을 사람을 모으고 묶는다. 태풍이나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비상시에 공동체라디오의 발 빠른 '지역 밀착' 콘텐츠가 더욱 돋보이기도 했다. 대부분 5와트 이하 소출력으로 송출해 방송 권역이 넓지는 않지만, 유튜브나 팟캐스트 채널을 개설해 다른 지역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스무 곳을 선정, 개국을 준비 중이다. 공동체라디오에서는 모두가 진짜 이웃이 된다.

89.1MHz 대구 성서공동체FM

성서공단이 있는 달서구에는 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어울려 산다. '주민' '이주노동자'라는 간단한 단어가 그 동네 사람의 복잡한 희로애락과 사랑스러운 면면을 어떻게 담을까. 성서공동체FM은 이를 목표로 출범했다. 감삼동의 옛 이름을 딴 <감새미에서 온 편지>는 오랜 주민의 추억담을 소개하고,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에서는 이웃과 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눈다. 황금시간대라 할 밤 9시에는 몽골·중국·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 이주노동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통을 돕는다. 전국 방송이 못하는 일을 지역 라디오가 해내고 있다.

89.1MHz 경북 영주FM

"지난주에 은빛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여덟 분이 4년 개근상을 받으셨어요." 은빛대학교는 영주의 어르신 대학. <주부 특특> 두 진행자가 누군가에겐 일평생 가장 중요했을 날의 소식을 전한다. "어든이 녀은 한 분은 개근이 올해 목표라 하셨거든요." 이를 이루었다고 진행자가 뿌듯해한다. "어릴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목표가 있어야겠구나 했어요." 영주엔 착한 사람만 사는지, 지역 사람의 일상과 따스한 멘트가 흐른다. 80대 열혈 어르신 네 분이 DJ로 나선 <청춘 실버>부터 청소년이 제작하는 <황금시대>까지 방송이 전 세대를 아우른다.

100.3MHz 서울 관악FM

오전 6시, 아직 이른 시각에도 벌써 방송이 한창이다. 어르신들이 기획·진행하는 <쾌지나 청춘>의 DJ 가운데 한 분은 1960년대 민영방송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 이성화 선생. 1980년 마이크에서 물러난 그가 칠순 넘어서 스튜디오에 돌아와 추억거리, 요즘 화젯거리를 공유한다. 공동체라디오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준다. 동네 소식에 집중하는 만큼 재난 방송 역할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 약국마다 마스크 현황을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관악FM의 활약이 한층 주목받았다.

88.9MHz 광주시민방송 광주FM

연애 상담하고,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축구팀 광주FC를 분석·응원하고, 역사 공부하는 청년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비건 같은 소수자의 목소리도 내보낸다. 이토록 다양한 주제가 광주 북구를 기반으로 하루 평균 아홉 시간 분방송을 꽉꽉 채운다. 격주로 일요일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청소년에게 할애한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마이크 잡고 일상, 진로, 고민, 청소년 정책 등을 말한다. 추억의 가요, 올드 팝과 사연을 전해 사랑받는 <토마스열차>는 2021년 10월에 방송 200회를 맞기도 했다. 작지만 힘센 라디오다.

104.9MHz 충북 옥천FM OBN

지난해 12월 문을 연 딱딱따끈한 라디오다. 옥천에 누가 거주하는지, 옥천이 어떤 곳인지 이 라디오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프로그램은 기본이다. 결혼 이주여성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야기>를, 네팔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옥천을 세계로, 세계를 옥천으로>를 진행한다. 이주민의 일상과 생각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이주민과 더불어 지내며 적응기를 통과하는 이에게 이 방송의 유익함은 상상 이상이다. 맛집을 소개하는 <찾아라 맛도둑>도 쓸쓸한 정보다. 옥천 5만 주민을 한 번 이상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이 옥천FM의 '소박한' 바람이다.



Women Win Vote

NEWPORTERS ENJOY SAIL AND PICNIC
 FAIRBANKS A. A. PLAYS ROYAL GIANTS FT
 HEAD OF BRANCH OFFICE TAKEN INTO CUSTODY
 ST. JOHNSBURY WOMEN PLEASED OVER VICTORY
 WOMEN 51-Y



1893 #세계 최초 여성 참정권

Tennessee House Ratifies Federal Amendment Giving Women of Entire Nation Vote This Fall

NASHVILLE, Tenn., August 18.—The women of the county will participate in the coming presidential elec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s a result of the a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oday, in ratifying the federal suffrage amendment, Tennessee is the 36th state to ratify the amendment. This it does because the vote of the house was 49 to 42. The senate ratified the amendment last Friday by a vote of 23 to 12.

WOMEN'S SUFFRAGE
 February 1918, first women gain right to vote in parliamentary elections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of February 1918 w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women's suffrage campaign. Women had campaigned for the right to vote in parliamentary elections for over 20 years. The Act of 1918 had a number of possible motivations. Suffrage activity both peaceful and militant was suspended at the outbreak of war in 1914 and might well have been resumed in peacetime if no action was taken to give women the vote. Women had played a major role in the war effort, taking on jobs previously done by men in areas such as transport, farming and munition production, and the vote can be seen as a reward for this work. Parliament had to pass a new franchise law

SUFFRAGE WINS!



모두가 한 표, 똑같이 한 표

남성에게 평등한 참정권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듯, 여성 참정권도 지난한 투쟁으로 얻어 냈다.

“여성은 자유롭게 또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1791년 프랑스 극작가 올랭프 드구주가 발표한 ‘여성인권선언’이다. 1789년 7월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하고, 8월 국민의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한다.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대부분 나라에 왕이, 신봉제가 굳건한 상황에서 이 선언은 혁명이었다. 160여 년이 지난 1948년에 나온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기초했을 정도다. 문제는 ‘인간’의 정의다. 자유롭게 평등하다는 인간의 범위에 여성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혁명에 참여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재를 깨친 여성은 자유와 평등을 요구했고, 그 움직임의 일환이 여성인권선언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 문구에 여성을 넣어 약간 변형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추상적 단어를 현실에 적용한 것이 참정권이다. 똑같이 주어지는 투표용지 한 장. 올랭프 드구주가 여성인권선언을 발표하고도 세상은 완강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멈출 수 없다. 여성이 국회의원, 판사까지 되겠다고 주장할 테고 결국 사회구조가 무너진다” 같은 명분은 널리 알려진 바다. 단단한 벽을 향해 여성은 나아간다. 1872년 11월 5일, 미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수전 B. 앤서니가 투표를 강행하고 체포된다. 노예제 반대와 여성 참정권 운동에 헌신한 그의 싸움에 공감한 남성 변호인이 무보수로 변호를 맡아 법정에 섰다. “똑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이 투표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행동을 했다고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투표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되었습니다.” 물론 판결은 유죄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888년에 제기한 참정권 요구가 거절되자 1891년 9000명의 서명을 담아 청원한다. 결과는 다시 거절. 다음 해에는 2만여 명 서명을, 그다음 해에는 뉴질랜드 성인 여성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2000명의 서명을 제출한다.

드디어 1893년 9월 19일, 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다. 영국의 양상은 달랐다. 처음엔 뉴질랜드처럼 서명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존 스튜어트 밀 등 이름난 학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1860년대부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보다 못한, 참을 만큼 참은 1903년 에멀라인 팽크허스트가 여성사회정치동맹(WSPU)을 결성한다. 이들은 건물 유리창을 깨고, 방화하고, 정치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격한 투쟁을 펼쳤다. 평화롭게 얘기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하니 범법을 저질러 사회에 소란을 일으키고 기꺼이 감옥에 갇혀 정치범 대우를 요구했다. 옥중에서 단식투쟁까지 감행하자 정부는 비강에 호스를 연결해 음식을 강제로 주입하는 고문을 가했다. 10여 년간 여성 참정권 관련 수감자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가히 전쟁 상황이었다.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전환점이 되었다. 여성이 전투 지원과 사회 유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1918년 30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고, 1928년 마침내 21세 이상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참정권이 주어진다. 여성 참정권은 189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120여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확산한다. 한국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헌장에 남녀평등을 명기했고, 해방 이후 첫 선거부터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쉽게 구겨지는 종이 한 장, 이 한 장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수많은 이가 희생하고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 여유롭게 일어나 가까운 투표장에 가는 일은 그보다 얼마나 간단한지. 선거의 의미를 생각한다.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는 것.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힘을 얻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1908년 3월 19일,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달려와 사람들 앞에서 에멀라인 팽크허스트의 연설이다. ④

VOTES FOR WOMEN





아카데미상의 행방이 궁금해지는 시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우뚝 선 영화의 신전을 만나 본다.



©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Academy Museum of Motion Pictures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명감독 마틴 스코세이지는 “영화는 계시와 같다”라고 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1927년 설립 이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의 뜻에 걸맞은 성소를 지어 올리려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은 그 숙원을 실현한 결과물이다. 설계는 건축계 거장 렌초 피아노가 이끄는 RPBW(Renzo Piano Building Workshop)가 맡았다. 도심 지역 미라클 마일의 터줏대감인 사반 빌딩을 재건하고, 바로 옆에 첨단 건축 공법을 적용한 스피어 빌딩을 연결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영화의 역사를 표현했다. 스피어 빌딩의 철강과 유리, 사반 빌딩의 석회석과 24K 황금 타일이 선사하는 미감은 그 역사만큼이나 유려하고 역동적이다. 새로운 영화의 전당에 기록될 2022년 오스카 트로피의 주인공은 3월 27일에 밝혀질 예정이다.

→ www.academymuseum.org



역사 찍고 풍경 찍는 군산 스탬프 여행

근대 역사의 흔적, 금강과 서해 풍경이 다채로운 전북 군산 여행이 스탬프 투어로 더 만족스럽다.

금강과 섬을 아우르는 바다 풍경이 육지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다. 도심에선 잘 보존된 근대의 흔적이 곳곳에 놓였다. 근사하게 꾸민 '신상' 카페와 레스토랑, 베이커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순회할 수도 있다. 역사도시, 해양도시의 명성에 합하다는 입소문까지만 전북 군산은 어떻게 여행해도 범상치 않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왕 하기로 한 군산 여행, 방문지마다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상품도 받아 알찬 시간을 보내자. '군산 스탬프 투어'엔 군산 여행 동선에서 제외한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대표 스팟이 다 들어갔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동국사, 선유도, 재보선창(비어포트) 등 군산 역사·자연·트렌드의 정수를 빠짐없이 담은 군산 스탬프 투어의 출

발점은 초원사진관. 여기에서 리플릿을 받고 5개 코스 46개 지점을 신중하게 살펴 코스를 결정하면 된다. '아리랑 코스' '탁류길 코스' '비단강 코스' '미소-너른들 코스' '고(GO)군산 코스'에 이름 그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내 맘대로 코스'가 기다린다. 코스마다 완주 상품을 소진 시까지 지급하니, 군산 스탬프 투어를 알아버린 이상 하루빨리 가보는 게 좋겠다. 군산에 도착했어도 마음이 급해 지도를 들여다보기 곤란한 여행객은 리플릿 속 QR코드를 촬영하거나 군산 스탬프 투어 홈페이지(www.gunsanstamp.kr)에 직접 들어가 GPS 길안내 서비스를 받길 권한다. 편하게 구경하고, 스탬프 찍고, 선물 받는 군산 여행이 행복하다.

자료 제공:군산시청문의 063-454-3333



01 경암철길마을

역무원이 호루라기 불면서 사람 통행을 막은 뒤에 시속 10킬로미터로 마을을 통과한 열차는 2008년 운행을 멈췄다. 이제 집 사이를 가르는 열차는 없지만, 옛날 교복을 입고 달고나를 우물거리며 기념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었다.



02 고군산군도

군산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63개 섬이 모인 군도가 있다. 모래가 아닌 옥돌이 가득한 옥돌해변 곁에는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술섬에선 선유봉과 망주봉의 장관이 한눈에 잡힌다. 낙조대 해넘이도 놓치지 말자.



03 동국사

1909년 일본 승려가 창건해 오늘날 한국에서 드문 일본식 사찰로 남았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군산 근대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국적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



04 옛군산세관

지붕은 고딕 양식,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 현관 처마는 영국 건축 양식이다. 사진에 담기만 해도 여행이 뿌듯해지는 옛군산세관은 1908년 대한제국이 인천해관 군산지사 청사로 지었다. 현재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한다.



05 우체통거리

요즘 보기 어려운 우체통을 원 없이 만나는 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폐우체통을 손질하거나 그림을 그려 마을을 단장했고, 결국 '우체통거리'라는 도로명까지 받았다. 담벼락, 간판에 그리고 설치한 우체통이 알록달록 예쁘다.



06 임피역

일제강점기 농산물을 군산항을 통해 반출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해 1985년 간이역으로 격하되고 2008년엔 영업을 중단했으나 거꾸로 가는 시계탑, 객차 전시관 등 볼거리가 풍부해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07 재보선창(비어포트)

상권을 장악한 한 객주가 재보라 불렀다 해서 이름 붙은 이곳은 예부터 군산의 중요 포구였다. 낡은 거리, 때마다 속살을 드러내는 바다가 정취를 자아내는 인근엔 지역에서 나는 보리를 쓰는 수제 맥주 체험관 비어포트가 자리한다.



08 초원사진관

오래전이지만 여전히 기억나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주인공이 사랑하고 이별하는 공간 초원사진관. 외부에는 영화에 등장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안에는 소파와 선풍기 등 소품을 재현해 두었고 영화 스틸 컷도 전시한다.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처음 보는 모양새에 한번 놀라고 식감에 두 번 놀란다.

오돌토돌한 표면에 매료된다. 자연이 각도와 길이를 재서 조각한 양 나무 모양이 반복돼 작은 숲을 보는 듯하다.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의 사촌 격인 채소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재배한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초록빛이 푸릇푸릇하게 살아난다. 일반 브로콜리보다 단맛이 강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돋운다.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성분을 풍부 함유해 노화 억제 역할도 톡톡히 한다. **K**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소노펠리체 빌리지 비발디파크』 전경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에서 신규 출시한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6,000만원대 회원권으로 20년간 레저&스포츠를 약 2억원 상당의 가치를 상시혜택으로 제공한다.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 이름

2022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회원제 상품의 경우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는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쏠비치 남해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KTX 열차 내에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델피노, 소노펠리체 빌리지 델피노, 쏠비치 삼척, 쏠비치 양양, 쏠비치 진도, 소노캄 거제, 소노캄 제주, 소노캄 고양, 소노캄 여수, 소노캄·소노문 델피노, 소노벨·소노문 비발디파크, 소노벨 부산, 소노벨 경주, 소노벨 제주, 소노벨 천안, 소노벨 청송, 소노휴 양평

김현정 샐러드에 문어라니, 고오오급스러움이 파도친다. 문어 한 조각 얹고 문어샐러드라 부르는 세상에서 이름 그대로 문어, 오징어 딱딱 넣는 바른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만났다. 칭찬합니다. ★★★★★ / 김규보 고뇌를 느낀다. 맛있다는 것만 똑같이 서로 분간하기 힘든 샐러드들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먹긴 했다. 일단 별을 씁니다. 다섯 개. ★★★★★ / 강은주 이 샐러드를 예쁜 접시에 내어놓는다면 파인다이닝의 애프터타이저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비체(페루식 해산물 샐러드)를 이토록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니. ★★★★★ / 남혜림 '해산물 싫어' 인간에게는 흑시나가 역시나였어요. 다만 새송이버섯이 있어 안도하며 먹었습니다. ★

파릇파릇 샐러드 세계에 대격변이 있다. 네 명의 에디터가 독특한 샐러드 제품을 맛봤다.

애프터타이저? 메인 요리 샐러드!

스윗벨런스_문어와 레몬케일 오징어 샐러드 • 3.9점



프레시코드_치킨타코 샐러드 • 4.5점



김현정 사워크림과 살사 드레싱을 품고도 265킬로칼로리라니, 그러면서 타코 맛을 제대로 구현하다니 놀랍다.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과 기술이 좋은 데 쓰이고 있음에 마음이 훈훈해진다. 소스 때문에 일회용기가 많이 쓰인 점은 아쉽다. 방법이 없을까요? ★★★★★ / 김규보 샐러드와 기타 등등을 싸 입에 넣었다. 정체 모를 맛이 허리케인처럼 입안을 흔들었다. 정체에 대한 의문에 정체성까지 흔들렸어도 맛있는 결론은 내렸다. 별 다섯 개. ★★★★★ / 강은주 토르티야의 말랑말랑한 질감부터 만족스러워 기대감이 치솟았는데 타코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갖추었다. 움푹달싹하기 힘든 원고 마감일에 든든한 한 끼로 제격. ★★★★★ / 남혜림 호불호 갈린다는 타코가 정말 이런 맛이면 삼시 세끼 타코? 가능합니다. ★★★★★

김현정 흑임자 소스가 '열일'을 해도 곤약의 물컹한 식감이 답이 없다. 천상의 소스 고추장이 나 되어야 곤약을 커버할까. 고추장 곤약 샐러드는 영영 안 나오겠지... 나와도 다른 샐러드 먹겠지... ★ / 김규보 흑임자 맛만 확실한 샐러드를 먹으면서, 도대체 왜 모든 샐러드 맛이 똑같이 맛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구했다. 아직도 고뇌하고 있다. 다만 이 샐러드 별 다섯 개. ★★★★★ / 강은주 흑임자 소스와 연근·곤약 토피ng은 제법 어울리는데, 애플 알로에 소스를 끼얹고 나니 어딘가 어색해진 맛. 채소의 선도는 나쁘지 않았다. ★★★ / 남혜림 '곤약 싫어' 인간은 흑임자 소스와 애플 알로에 소스가 있어도 뭉서리치게 되네요... 곤약, 물컹, 으악. ☆

이마트_카린델리 오일채식 비건 두부면 샐러드 • 4.4점



김현정 두부면의 신박한 세계를 발견했다. 푸른 채소 잎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단호박과 두부면이 달래 준다. 당장 비건에 입문은 못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도할 용기가 생겼다. ★★★★★ / 김규보 강렬한 콩고기 맛이 기억에 남는다. 샐러드와 섞어야 하는지는 역시 모르겠고, 일단 콩고기부터 다 먹었다. 그리고 샐러드를 먹었다. 원지는 모르겠지만 별 다섯 개. ★★★★★ / 강은주 무려 이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두부면과 콩고기를 만날 수 있다니,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소스와의 조화도 훌륭하다. 다만 다 먹고 나니 헛헛하긴 하다. '비건'의 한계인가. ★★★★★ / 남혜림 말로만 들던 두부면과 콩고기를 여기서 처음 맛본다. 맛있다. 세 글자로 충분. ★★★★★



셀러틴_흑임자 곤약 샐러드 • 2.4점



미술관 옆 소담스러운 맛집

개학 시기를 맞아 충북 청주의 대학교와
국립현대미술관 근처 훈훈한 맛집을 방문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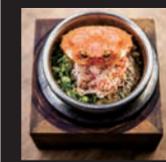
소로리

☞ 갈비 솔밥 1만 5000원 계살 솔밥 1만 2000원
연어 메밀김밥 1만 2000원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1번길 7-2
☎ 070-4792-0021

● 따뜻한
솔 안에
영양 가득
한식

가게 앞 간판은 소박하고, 나무를 포인트로 꾸민 내부
는 아늑한 가정집 분위기를 자아낸다. 친구 집에 놀러
온 듯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자 달달한 간장 양
념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간장 양념에 파인애플을 추
가해 육질이 부드러운 갈비 솔밥이 '소로리'의 대표 메
뉴다. 대추, 밤, 단호박, 파리고추가 곁들여 올라가
푸짐하다. 계 내장의 녹진한 맛이 느껴지는 계살 솔밥
도 빠질 수 없다. 버터를 넣어 비비면 풍미가 더욱 올
라간다. 조기 소진 1순위에 빛나는 연어 메밀김밥이
젓가락을 부른다. 메밀 면을 삶은 후 숙성한 수제 쓰유
양념을 면에 먹인다. 면 모양을 네모지게 잡아 김에 얹
고 달걀말이, 연어, 유부, 아보카도 등과 함께 김밥처
럼 말아 한 입 크기로 썬 독특한 메뉴다. 김용현 대표
는 어릴 때부터 솔밥을 좋아했다. 조리 과정이 번거로
워도 전기밥솥 밥보다 맛있었다. 솔밥이 먹고 싶어 양
은 냄비에 비슷하게 밥을 해 먹기도 했다. 요리에 뜻이
있던 김 대표는 한식과 양식, 일식 자격증을 취득해 다
양한 음식을 만들었지만 역시 한식에 끌렸다. 그리고
천천히 조리하는 솔밥이 어울리는 조용한 동네에 자
리 잡았다. 일부러 골목 안으로 찾아 들어와야 하지만
내부는 북적이다. 따끈한 솔밥에 속이 든든하다.

INFORMATION



소로리 솔밥의 솔밥 틀은
가게 분위기에 맞도록 대표가
하나하나 정성으로 옷칠해
제작했다.



10년 넘는 호텔 경력을 지닌 셰프의 꿈이 담긴 브런치 레스토랑이다. 오너 셰프 레스토랑으로 재료 구입부터 조리까지 모든 과정에 박종호 대표의 손길이 닿는다. 소규모로 운영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그 반응을 음식에 반영한다. '언논(Unknown)'이라는 이름엔 유명하지 않아도 숨은 맛집이 되고 싶은 박 대표의 소망이 묻어난다. 빵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발효·숙성한 사워 반죽으로 굽는다. 그 위에 아보카도, 할라페뇨, 구운 새우와 직접 만든 비건 치즈를 올린다. 견과류를 재료로 쓴 비건 치즈는 진짜 치즈와 다르지만 고소한 맛이 난다. 토마토를 구워 만든 선드라이 토마토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염장해 익힌 달걀



INFORMATION



언논만의 맛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요네즈, 케첩 등 소스와 샐러드에 들어가는 드레싱까지 모두 수제다.



● 오너 셰프의 브런치 레스토랑

노른자를 토스트 위에 강판으로 갈아 올리면 아보카도 오픈 토스트가 완성된다. 각각의 재료가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크로플에서 착안해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만든 스크램블 오픈 토스트는 몽실몽실한 스크램블의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이다. 곁들여 나오는 수제 할라페뇨 케첩이 접시 위에서 돋보인다. 음식마다 박 대표의 친절한 설명이 더해진다. 아는 만큼 느껴지는 맛에 행복은 덤이다.



2

Unknown

- ☞ 아보카도 오픈 토스트 1만 7000원
- ☞ 스크램블 오픈 토스트 1만 5000원
- ☞ 청주시 청원구 안덕빌로 38
- ☎ 043-265-2122



3

계절애

☞ 드립 커피 5000원 계절 한모 6000원
 구운 바나나 2500원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02번길 121
 ☎ 070-7543-9245



● 일회용품 없는 느린 카페
 에는 썩의 초록빛을 띤다. 나무 상자 안에 면보로 케이크를 싼 플레이팅이 특이하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디저트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떠올린 아이디어다. '계절애'는 일회용품 없는 가게다. 음료나 디저트를 포장하려면 반드시 텀블러나 그릇을 가져와야 한다. 처음에는 손님도, 손 대표도 어색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오는 손님이 점점 늘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따스하다. 손님이 남긴 쪽지와 벽에 붙여 놓은 편지를 읽어 본다. 저마다의 기억으로 채워진 카페가 포근하다.

소중한 이와 함께한 추억이 커피 향과 함께 깃드는 카페다. 싱어송라이터였던 손기태 대표는 대형 카페에서 일을 하다 드립 커피의 매력에 빠졌다. 물 온도와 우리는 시간에 따라 맛이 다채로운 드립 커피가 흥미로웠던 손 대표. 이제는 카페를 차려 손수 내린 드립 커피를 손님에게 제공한다. 묵직한 보디감에 고소한 맛이 나는 커피다. 내부 공기가 훈훈해지더니 달콤한 향기가 감돈다. 바나나 위에 비정제 설탕을 녹여 코팅한 디저트 메뉴 구운 바나나가 풍기는 향이다. 표면을 포크로 톡톡 갠 후 바나나 조각을 음미한다. 달콤한 설탕 막이 바삭바삭해 바나나 식감과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떠먹는 치즈 케이크 계절 한모는 철마다 색이 바뀐다. 계절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 겨울에는 딸기의 붉은빛을, 봄



INFORMATION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간판, 메뉴판까지 천과 종이로 만들었다. 손으로 쓴 글씨가 귀엽다.

+ Tip
 청주대학교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작품 수장과 전시를 동시에 하는 수정형 미술관이다. 개방된 수장고에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모여들어 활기찬 우암동에는 미술관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식당, 소품 가게도 숨어 있다. 우암동 거리를 살피면 보석 같은 가게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Interview

반도네온에 반하는 시간

올봄, 두 번 공연을 앞둔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짧은 만남을 나눴다.

© 프라미터 케트

불기운이 느껴질 때 의식처럼 찾아 듣는 음악이 몇 곡 있다.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가 연주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프리마베라 포르테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도 그중 하나다. 피아졸라의 봄에 처연한 낭만이 깃들어 있다면, 고상지의 봄엔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의 활기가 감돈다.

왼쪽에 33개, 오른쪽에 38개, 총 71개의 테클라로 142개 음을 자아내는 반도네온은 흔히 탱고 연주에 동원되는 악기로 알려졌으며, 음악계에선 '천상의 음색을 가진 악마의 악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음계 배치가 불규칙할뿐더러 같은 키를 누르더라도 주름 통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만큼 주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상지는 천하의 반도네온을 길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악기가 지닌 깊고 짙은 음색에 자신만의 독특한 질감을 더해 왔다. 지난해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은 이제까지 그가 이룬 예술적 성취를 만방에 알린 순간이었다. 연주는 물론 반도네온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곡과 편곡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고 산뜻한 탱고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출격' '레드 헤어 히로인' '어드벤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의 음악엔 게임과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가져온 디테일이 어른거린다. 이제 막 2월 단독 공연 <엔 라스 솜브라스>를 마친 고상지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시시콜콜한 일과부터 기차 여행 이야기까지, 그의 답은 흐르는 멜로디처럼 돌아왔다. 3월 5일에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를, 3월 27일에 <프리다 칼로, 자클린 뒤 프레를 만나다> 앙코르 공연을 준비 중인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무대를 그리고 있다.

지난 공연 제목인 '엔 라스 솜브라스'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라는 뜻이죠. 이 '어둠'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벗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 그러니까 캄캄한 방이나 한밤중 이불 속 같은 시공간을 뜻해요. 다른 하나는 가면으로 감추지 않아도 되는, 어둠으로 오롯한 저마다의 모습을 가리켜요. 이번 공연에선 어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자유로움에 관한 시간과 음악을 선사하고 싶었죠.

이어지는 공연 일정으로 바쁘게 지내겠네요. <엔 라스 솜브라스> 이후에도 2월에 첼리스트 홍진호와 페스티벌 공연을 준비하느라 연습과 편곡 작업을 병행해 왔어요. 새로운 곡을 꽤 여러 개 시도했거든요. 이전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편곡 작업이 남아 있죠. 날마다 코앞에 닥친 공연 편곡과 연습으로 팍 찬 하루를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면 원두 갈아서 커피 내리고, 낮엔 내내 연습, 밤엔 편곡을 해요. 그러다가 두뇌 회전이 더디질 때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아주 가끔 스트레스가 절정에 이를 땀 흥제전을 뛰어요.

'홍제천의 그름달'이 그렇게 탄생했군요.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쩐지 부끄러워하실 것 같지만, 축하드려요. 지난해 큰 상을 받았잖아요. 혹시 음악가로서 꼭 받고 싶은 상이 있나요? 상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꼭 받고 싶은 상'은 없어요. 운이 좋게도 심사위원 중 누군가가 제 음악을 높이 샀을 거라 짐작해요.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해엔 아스토르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규 4집 앨범을 발매했고, 3월 공연에서도 피아졸라를 다룹니다. 고상지의 음악에서 피아졸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 예술가인가요? 피아졸라는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 하나죠. 그의 곡은 독창성 그 자체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로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는 멜로디, 화성, 리듬을 마주하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 올라요. 다행스럽고도 축복인 것은, 피아졸라가 자작곡을 연주한 음원이 좋은 컨디션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득한 과거의 인물이라 작품이 악보로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없었다면 제가 과연 이렇게 과감하게 음악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 싶네요.

얼마 전 개인 SNS에 게재한 '반도네온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반도네온에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는 섬세하고 애정 어린 글이었습니다. 그간 반도네온의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반도네온은 교회 음악을 위해 오르간 대용으로 만들어졌으

며, 그것이 아르헨티나의 항구도시로 넘어가 탱고에 쓰였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것을 제가 다시 전달할 데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악기 전문가의 논의를 수용해 반도네온의 역사를 요약하자면, '독일의 카를 프리드리히 울리히가 만든 독일식 콘체르티나를 기반으로 하인리히 반트가 음을 몇 개 추가하고 일부 개량해 자신의 이름을 따 명명한 악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전히 역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엔 논란이 분분합니다.

반도네온을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배웠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이 여행처럼 느껴졌으리라 생각해요. 전 기차 타고 차창 밖을 보면서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논이나 산, 황무지 같은 배경을 응시하며 하염없이 공상에 빠지곤 하죠.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심취해 왔기 때문에 일본 도쿄를 자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기차역에 즐비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행복하게 맛본 기억이 납니다. 그에 비해 아르헨티나에선 방에서 연습하고 곡만 썼어요. 그곳에선 운이 없었는지, 강도나 범 죄에 몇 번 휘말려 움츠러들었거든요. 물론 마에스트로의 연주를 코앞에서 본 것은 행운이었죠. 그래도 서울이 너무 그리워서 매일 울었어요. 이때 습관적으로 곧 꿈 중 하나가 닭고기덮밥을 찾아 헤매는 것이었어요. 일종의 악몽이네요. 결국 못 찾고, 못 먹고 끝나거든요.

최근엔 무엇에 꽃혔나요? 새로운 분기마다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챙겨 보고 있어요.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찾는 일이 제 삶을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최근엔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異世界) 생활>이 가장 좋았어요. 사실 제 최대 관심사는 언제나 애니메이션이죠. 그 속 세계관, 캐릭터, 성우의 연기, 배경음악, 연출에 이르는 모든 요소가 영감의 원천입니다.

다음 앨범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상반기 발매 예정인 앨범이 두 장이에요. 제 자작곡을 피아노 솔로로 바꾼 피아노 소곡집을 준비 중이죠. 피아니스트 조영훈과 함께 녹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대한 작곡가의 음악을 편곡해서 '존경하는 마에스트로에게'라는 테마로 음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작곡집을 한번 더 내고 싶다는 소망도 이 기회를 빌려 슬쩍 밝혀 봅니다. 📀

+ 기차 여행자를 위한 고상지의 추천 플레이리스트

"KTX를 타고 피아니스트 석지민의 '여행'을 무한 재생한 순간을 떠올렸어요. 제 곡 중에선 '마지막 만남'과 '홍제천의 그름달'을 추천해요."



- 01. 여행 - 석지민
- 02. 알폰시나 이 엘 마르(Alfonsina y el Mar) - 로스 키야 우아시(Los Quilla Huasi)
- 03. 사보르 아미(Sabor a Mi) - 로스 판초스(Los Panchos)
- 04. 베사메 무초(Bésame Mucho) - 로스 판초스(Los Panchos)
- 05. 엔트레 리오스(Entre Rios) - 안드레 메마리(André Mehmar), 카를로스 아기레(Carlos Aguirre), 후안 키테로(Juan Quintero)
- 06. <쇼팽 변주곡집(The Chopin Variations)> - 채드 로슨(Chad Lawson)
- 07. 마지막 만남 - 고상지
- 08. 홍제천의 그름달 - 고상지

〈태양에서 떠나올 때〉



광양 ~03.27.

남도의 빛이 화폭에 담긴다. 전시 제목은 오지호 작가가 1946년 잡지 〈신세대〉 창간호에 쓴 글에서 발췌했다. 태양 빛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심도 있게 관찰한 오지호 작가의 작품을 필두로 임직순, 양수아 등 한국 근현대 화가의 작품을 모았다. 색채에 집중한 인상주의 작가들의 회화는 물론 조각, LED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눈이 즐겁다. 전시는 전남 출신이거나 전남에서 활동하는 작가 열네 명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작품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서 예술로 발현한다.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061-760-3242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HAT'S UP



FESTIVAL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

홍성 ~03.30.

속살이 새 부리 모양과 닮은 새조개가 제철이다. 새조개 제철을 맞아 대표 산지인 충남 홍성이 축제를 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홍성군청 공식 유튜브에서 새조개 관련 콘텐츠를 게시해 서운함을 덜어준다. 새조개 사부사부 조리법도 배울 수 있다. 공식 스토어에서는 어민에게 새조개를 직접 구매한다. 타우린, 칼륨 등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새조개가 식탁으로 온다.

홈페이지 smartstore.naver.com/namdanghang 문의041-634-0104



EXHIBIT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 -다름이 만든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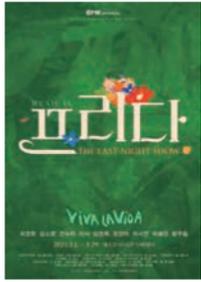
경주 ~03.20.

한국 속 다른 문화를 살핀다. 다양한 문화 요소가 어우러진 고대 한국 사회, 그 시대를 말해주는 외래계 문물에 대한 전시다. 경주 계림로 14호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보검을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외래계 문물 172건 253점을 소개한다. 다양성이라는 전시 콘셉트에 맞춰 원웨이(one-way) 동선이 아닌 자유 동선으로 감상하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유물에 얽힌 고대의 관계망을 파헤친다.

장소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문의054-740-7539



WHAT'S UP



• SHOW •

〈프리다〉

서울 | 03.01.~05.29.

"인생이여, 만세!"라는 명언을 남긴 멕시코 화가이자 혁명가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했다. 곡은 <더 라스트 나이트 쇼 (The Last Night Show)>에 게스트로 초청된 프리다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시작한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그의 생애를 역사적 구성으로 풀어나간다.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문의 02-6391-6333



• SHOW •

〈목대평으로부터〉

부산 | 03.10.~12.

평범한 인물의 삶을 그린 연극이 몽클한 감동을 준다. 고물상과 목공소를 겸한 집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손자 초롱과 둘이 살아가는 목대평. 세 든 집이 팔리자 앞으로 살 집과 작업장을 구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고된 삶을 사는 목대평의 곳곳한 태도와 간절한 기도가 관객에게 위로를 전한다.

장소 부산시민회관
문의 010-9701-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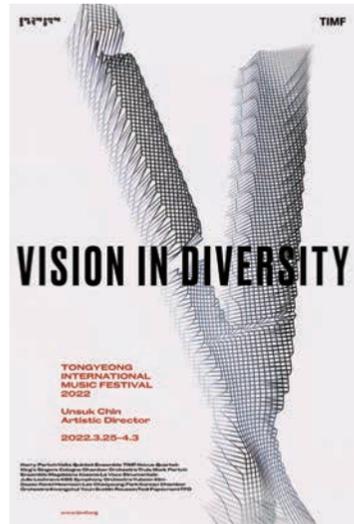
• SHOW •

2022 통영국제음악제

통영 | 03.25.~04.03.

세계적 음악가 유이상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시작한 통영국제음악제가 20주년을 맞아 화려한 라인업을 준비했다. 개막 공연은 달리아 스타세브스카의 지휘 아래 첼리스트 트롤스 뢰르크가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이 외에도 해리 파치, 연광철 등이 음악 대축제를 선사한다.

장소 경남 통영국제음악당
문의 055-650-0400



• SHOW •

〈로맨틱 가곡 콘서트-꽃이 피네〉

인천 | 03.12. 17:00

낭만적인 콘서트가 인천을 찾는다. JTBC <펜텀 싱어> 출연 성악가들과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 2014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강혜정이 만났다.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와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테너 박기훈까지 네 사람이 아름다운 가곡 선율로 무대를 꽃피운다.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문의 032-818-5665



• FESTIVAL •

제주 휴애리 매화 축제

서귀포 | ~03.20.

진한 매화 향이 바람을 타고 퍼진다. 휴애리 공원에 매화가 만발했다. 매화올레길, 매화정원 등 곳곳에 꽃잎이 떨어지며 하느작거리다. 이색적인 포토 존에서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추억을 남긴다. 갤러리 팡 기획 전시도 열려 재미를 더한다. 따사로운 햇빛과 봄 내음 가득한 축제에 빠진다.

장소 제주도 서귀포 휴애리자연생활공원
문의 064-732-211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대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생문화 예술관람

지원사업 참여작품 모집

대전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 청소년에게 1인당 기본 2만 포인트의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2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품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신청자격

유료작품을 운영하는 예술단체(기획사)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등록 공연장 및 전시장

* 단, 대전광역시 소재의 등록 공연장 또는 등록 전시장에서 실연하여야 함

접수기간

상반기 2022년 2월

하반기 2022년 8월

* 접수기간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_대전문화재단 (042) 480-1041 / 1044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dcf.or.kr)를 참고바랍니다.

Gallery



'황혼', 2015(2021년 재제작), 전구, 가변 크기, 작가 소장

'황혼(Crépuscule)'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불이 켜진 전구와 꺼진 전구가 있다. 합쳐서 165개. 전구에 연결된 전선들은 전시실 한편에서 모인다. 저곳이 뿌리라면 전구는 전선이라는 가지에 핀 열매가 된다. 이걸 나서 성장하고 어울리는 생명에 관한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데 불이 꺼진 전구가 있는 것이다. 전시막바지인 현재 꺼진 전구가 더 많다. 전시 기간에 불빛은 매일 하나씩 사라지고, 마지막엔 모든 전구가 꺼진다. 그때 이곳은 완전한 어둠이다. 이걸 생명에 관한 작품이며, 생명은 반드시 끝을 맞는다.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도 지난해 7월 14일 영면했다. 그는 죽기 직전 '황혼'을 포함해 43점을 선정하고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공간을 직접 구성했다. 뜻하지 않았지만 유작전이 된 전시, 오늘도 '황혼'의 불빛이 하나 사라졌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죽음도 삶이기에.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예술과 죽음을 작품에서 들여다보는 지금, 그는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반드시 끝을 맞는 생명에 관한 작품이며, 끝나도 삶은 영원할 수 있다. ㉔

* 부산시립미술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전, 3월 27일까지. 문의 051-744-2602



Travel

TRIP OF THE MONTH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



남쪽에서 보낸 편지, 창원

봄소식이 날아오는
경남 창원의 길을 걸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
예술이 가득한
거리를 들여다보며
다가올 계절의 정취를
미리 맛보았다.



사람의

산이 둘러 감은 자연을 포근하게 담아내는 낮고 너른 대지,
실개천처럼 이쪽저쪽 흐르는 길에 길쭉의 꽃인 양 고운 집들이
정답게 모여 앉은 소사마을에 봄이 들고 있다.

길

“한 벌 옷에 바리때 하나”면 족하다던 김달진 선생은 1989년 타계할 때까지 청빈한 삶을 지켰다. 문학관 마당과 생가에 선생을 닮은 햇살이 내린다.

남쪽이라는 말은 봄 같다. 언 강이 녹고 연해지는 땅에 선 줄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떠오른다. 따듯한 골목을 지나 언덕에 오르면 오후 햇살이 내리는 바다를 마주할 수도 있다. 우연히 만난 누군가는 다가올 계절에 설렌다 하겠고, 우리는 웃으며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겨울이 남았지만 남쪽을 그리는 순간마다 봄을 산다. KTX를 타고 경남 창원으로 가면서 강물 소리와 초록 줄기를 생각했다. 잘게 풀린 흙에서 일어나는 생명들을 상상하기도 했다. 철길을 달리던 열차가 창원중앙역에 이르렀다. 광장으로 나와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창원에 겨울이 남았다. 바다에서 밀려드는 온기가 땅에서는 아직 설핏하다. 꽃송이들이 들녘을 물들이기 직전, 슬쩍 건드려도 팽 터지고야 말 부푼 대기와 바람. 계절의 복판이 아닌 계절과 계절 사이이기에 더 싱싱하게 약동하는 풍경. 설레는 여행객은 창원이 머지않아 북쪽으로 전할 소식에 오늘의 기별을 덧붙인다. 첫 문장을 적고 첫걸음을 뒀다. “창원에 봄이 옵니다.”

자연을 담은 소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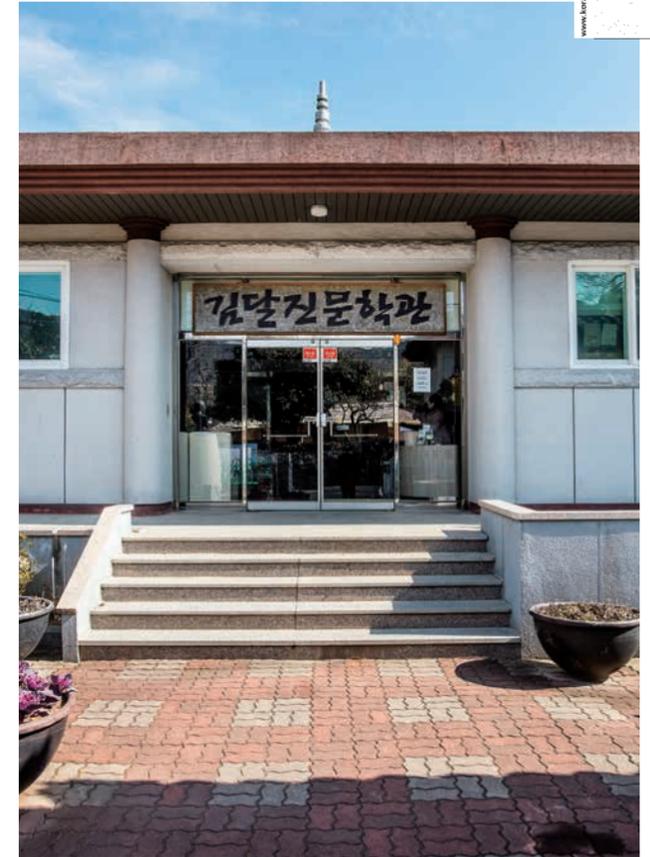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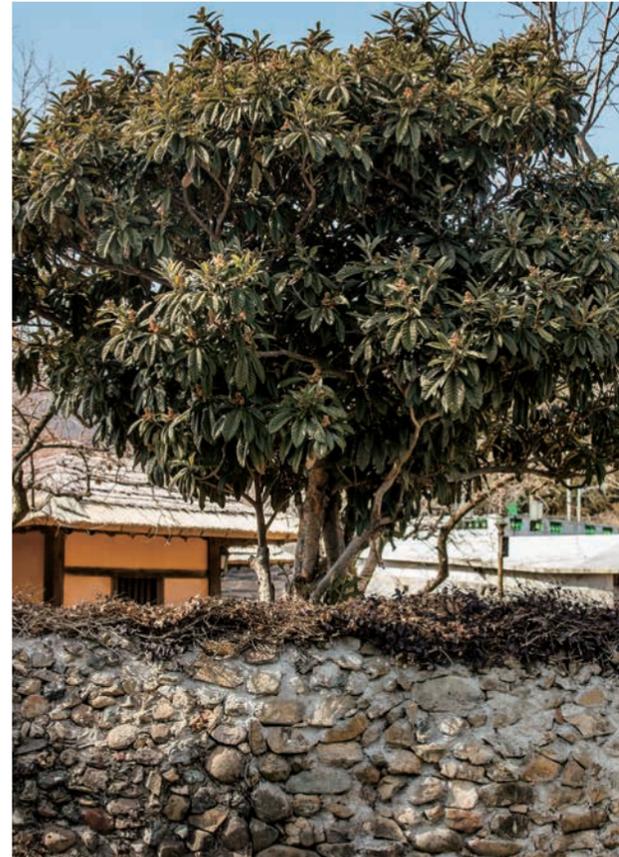
창원 동편, 부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소사마을에 도착했다. 1900년대 초에 진해 군항 건설을 계획한 일제는 주변 마을 주민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나고 자란 터전을 떠난 심정이 얼마나 애통했겠느냐만, 봉동산과 마봉산이 둘러 감은 평야와 굽이굽이 흐르는 실개천이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는지 모른다. 자연을 포근하게 담아내는 낮고 너른 대지, 실개천처럼 이쪽저쪽 흐르는 길에 길썬의 꽃인 양 고운 집들이 정답게 모여 앉았다.

The word “south” itself conjures up the image of spring—frozen rivers thawing, and buds beginning to sprout. Like me, many will feel their hearts flutter at the signs of new life. Winter is not completely gone, but the warmth of spring fills my mind when I think of Changwon, a city in Gyeongsangnam-do Province. As I head there on the KTX train, I imagine the city’s burst of green, bubbling streams, and tender buds peeking up at me from the ground. Upon arriving at Changwon Jungang Station, I suck in a deep breath of cool air. At this midpoint between seasons, nature is reawakening from its winter nap. Surrounded by softening weather and the hints of spring, I cannot help but feel a stir in my heart. Those in Changwon will soon be the first to witness the coming spring and its budding beauties. I write my first sentence, and with high hopes, take my first step. “In Changwon, spring is around the corner.”

Finding Comfort in Sosa Village

I arrive at Sosa Village on the eastern side of Changwon. This village is where the Japanese forced the locals to relocate to after deciding to build a naval base in the early 1900s. The pain of those who endured this dark chapter of history cannot be described in words. The gently rolling plains and meandering streams seem to be whispering words of comfort. The streets, branching out like the streams, are lined with charming houses.

월하 김달진 선생의 고향 소사마을에 위치한 김달진문학관에선 그의 유품과 시를 만날 수 있다. 문학관 옆에는 선생이 나고 자란 생가를 복원해 두었다. 문의 055-547-2623





담박한 삶이 깃든 김달진문학관

벽화를 그린 담장을 따라 자분자분 걸어 김달진문학관에 다다랐다. 마을을 움푹 파 가장 아늑해 보이는 자리에 지은 듯 사방이 길이고 집인 따사로운 공간이다. 별이 쌓인 마당을 통과해 문학관에 들어갔다. 흑백사진 속에서 노년의 김달진 선생이 미소를 짓는다. 얼굴이 인생을 드러낸다는 속설을 잠깐 믿기로 하고 미소 띤 표정을 바라봤다. 선생은 틀림없이 맑은 삶을 살았다. 문학관이 유품과 시로 증언하는 일대기도 과연 그러하다.

1907년 창원 용동, 지금의 소사동에서 태어나 서울 경신중학교로 유학했으나 일본인 영어 교사 추방 운동을 주도해 퇴학당하고 낙향했다. 1926년부터 계광보통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중 항일 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학교가 문을 닫자 금강산 유점사로 가 출가했다. 그 사이 선생은 '잡영수곡'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선생은 시인이자 수행자로서 인간과 자연을 노래하고 광복을 이야기했다.

“유월의 꿈이 빛나는 작은 뜰을/ 이제 미풍이 지나간 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우고/ 살찐 암녹색 잎새 속으로/ 보이는 열매는 아직 푸르다”(‘비시’).

6월의 뜰과 감나무 열매가 있는데 무엇을 보태랴. 욕심을 물린 글이 뜰의 정경을 담박하게 그린다. “한 벌 옷에 바리때 하나”면 족하다던 선생은 환속한 뒤에도 1989년 타계할 때까지 청빈한 삶을 지켰다. 하루에 두 끼 소식하며 새벽에 깨어나 글을 읽었다. 여전히 맑은 흑백사진 속 얼굴과 인사하고 문학관 옆 복원 생가에 걸터앉았다. 소설가 김동리가 늘 따듯한 사람이라 말한 선생도 언젠는 오늘같이 청아한 하늘을 올려다봤겠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으로 김현철 관장이 수집한 수십 년 된 그림책과 TV 등을 무료 전시하는 문학관 인근 김씨박물관을 감상하고 마을을 나선다. 푸르게 쏟아지는 빛살이 대지를 덮히는 계절의 경계에서, 이토록 풍요로운 소사마을이 이른 봄을 내보이고 있다.



Paying Tribute to Kim Dal-jin

The yard in front of Kim Dal-jin Literary Museum is flooded with sunlight. Inside, I am greeted by a black and white photo of the poet Kim Dal-jin, who is showing a gentle smile. He was born in Ung-dong, known today as Sosa-dong, in 1907. Later, he moved to Seoul to attend middle school, but was expelled for leading a movement against Japanese teachers who taught English. In 1926, he began teaching, and decided to become a monk when the school was shut down on the grounds of its anti-Japanese education. During this time, Kim Dal-jin began his literary career as a poet. His works were dedicated to humanity and nature. Kim Dal-jin's birthplace has been restored next to the literary museum.

+ 창원특례시 출범

지난 1월 13일 창원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함께 전국 최초로 특례시가 되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 행정 체계의 새 모델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한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함으로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혜택과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은 이를 기반으로 '정규 일자리 1만 20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중앙역까지 2시간 50여 분이 걸린다. 창원역, 마산역에도 기차가 선다.

벚꽃 흐드러진 봄날
경화역 공원을 생각한다.
기억으로만 남은 벚꽃의
순간, 반드시 오고야
말 그때를 경화역 공원
벚나무 군락이 약속한다.
즐겁게 함께하는 그날에
우리는 창원의 벚꽃을
기꺼이 누릴 것이다.

자연의 길



QR코드를 스캔하면
경화역 공원을 비롯한
정원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진영



그리운 벚꽃의 기억

벚꽃은 돌아오는데 일상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이 사람과, 자연과 마음껏 어울리는 즐거움이 그리운 날 벚꽃을 떠올린다. 꽃잎 흐드러진 나무 아래에서 손잡고 대화하는 사람, 바라만 봐도 좋은지 가만히 서서 나무들을 기웃대는 사람. 그때 거리는 세상으로 흐르는 봄날 이야기와 기억의 발원지였다. 메마른 물줄기를 하릴없이 걸도는 지금이 안타까워 이야기와 기억의 강물을 거슬러 간다. 여기가 창원이니만큼 바로 떠오르는 곳, 가장 아름다운 벚꽃 길로 꼽히는 여좌천,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경화역 공원이다. 저 유명한 진해 군항제의 무대이지만 몇 년째 벚꽃이 한창일 무렵 사람이 들 수 없는 공간이 되곤 했다. 그렇다 말하니 더 그리운, 떨어져 지낸 지 오래나 쉬이 잊히지 않는 순간과 다시 만나고 싶다.

경화역 공원은 2006년 여객 업무를 중단한 역사와 일대를 걷기 좋은 길로 단장한 공간이다. 지난해 별빛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해 밤 산책도 즐겁다. 문의 055-225-3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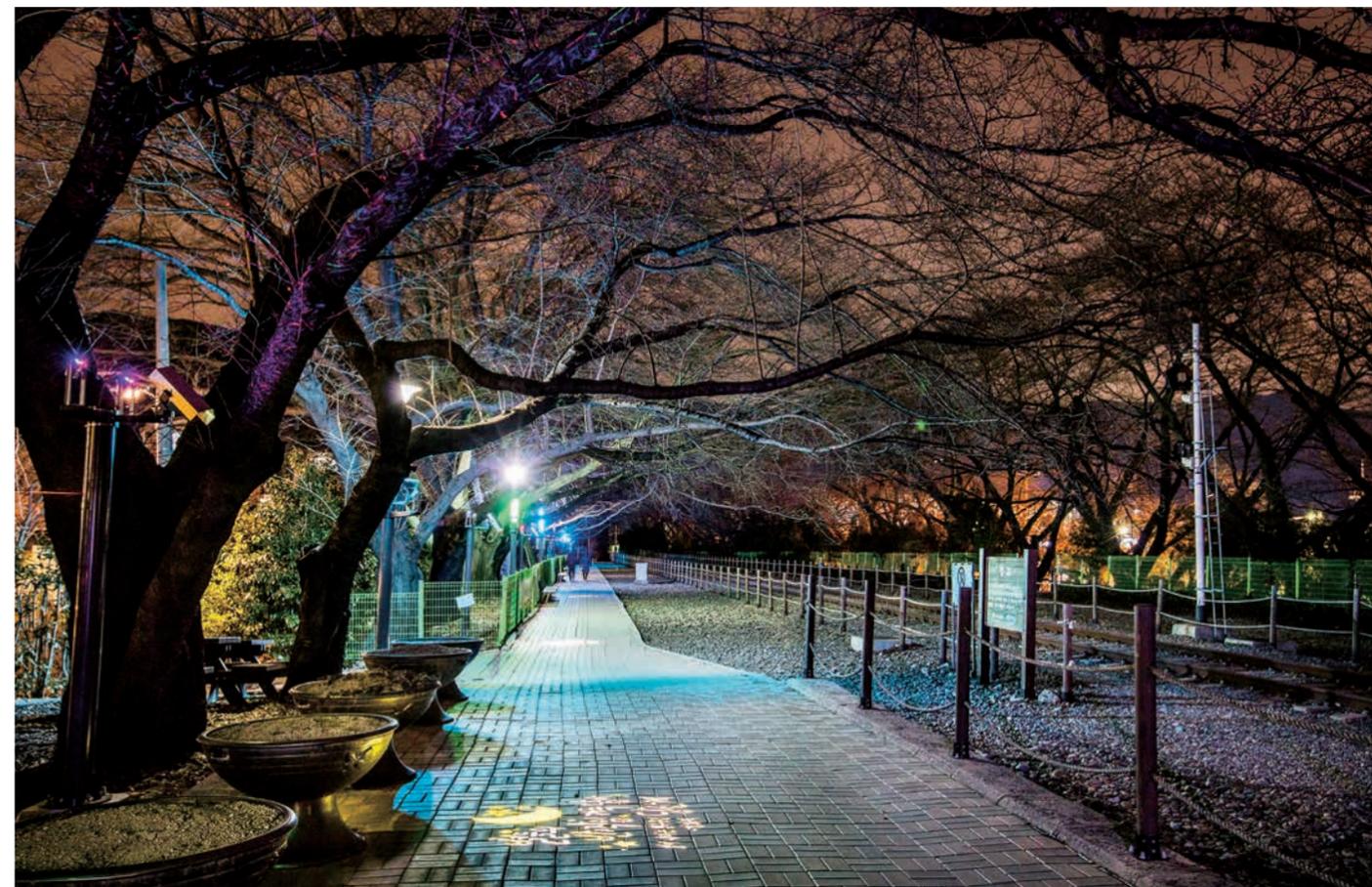
Fond Memories of Cherry Bloss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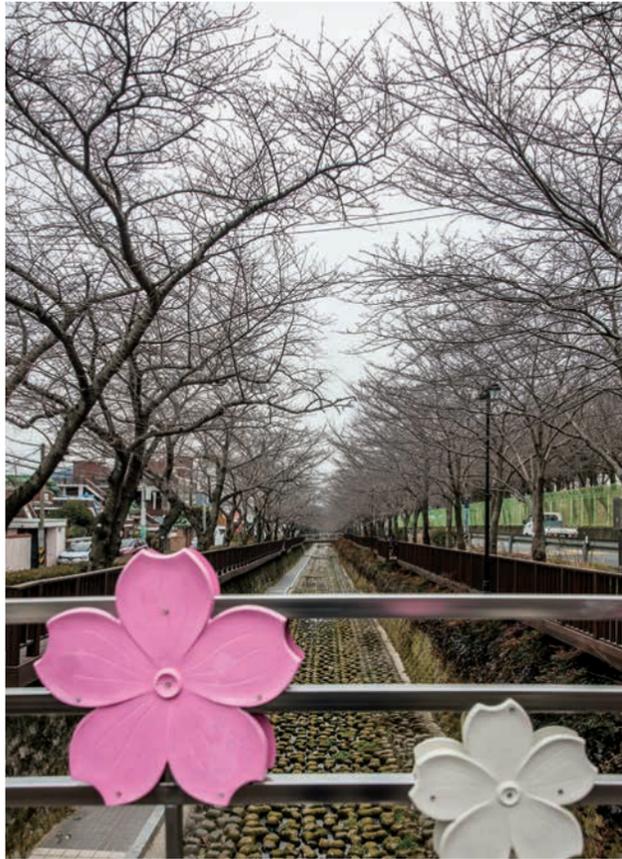
Cherry blossoms are returning, but our normal lives still feel distant. The pink and white flowers evoke a sense of nostalgia, reminding us of the peaceful times spent with our loved ones, back when we were unburdened by concerns over social distancing. Around the peak bloom date, you would see people making conversation under the cherry blossom trees, or just standing quietly and admiring the view. Back then, the streets and public spaces were where cherished memories were formed. Lamenting over today's unfortunate reality, I recall the carefree days before the pandemic. Since I'm in Changwon, the best places that spring to mind are Yeojwacheon Stream, Jinhae NFRDI Environment Eco-Park, and Gyeonghwa Station Park. Despite being home to the nation's most popular cherry blossom festival, the top spots for cherry blossom viewing have been closed to keep public areas less crowded. The pre-pandemic days are fresh in my mind, and the present situation makes me all the more nostalgic and sentimental.

Yeojwacheon Stream is lined with lush cherry blossom trees. It was straighten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hen streams discharging to Jinhaeman Bay flooded occasionally. The stream is closer to an artificial one, but its natural environment is breathtaking nonetheless. I take a stroll on the decked path, which has a round-trip distance of three kilometer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lossom Yeojwa is in full swing, and the area has come to life with cherry blossom murals and pink sculptures. There are a few couples holding hands, a person taking a photo from the bridge, and others enjoying a leisurely stroll. How vibrant and lively it would have been in ordinary times. The scene before



조명을 밝힌 경화역 공원 벚나무 길이 낮과 다른 풍경을 보여 준다. 산책길에 떨어진 벚꽃 조명과 나무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근사한 시간을 선물한다.





가장 아름다운 벚꽃 길로 꼽히는 여좌천,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경화역 공원 등에서 매년 진해 군항제를 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19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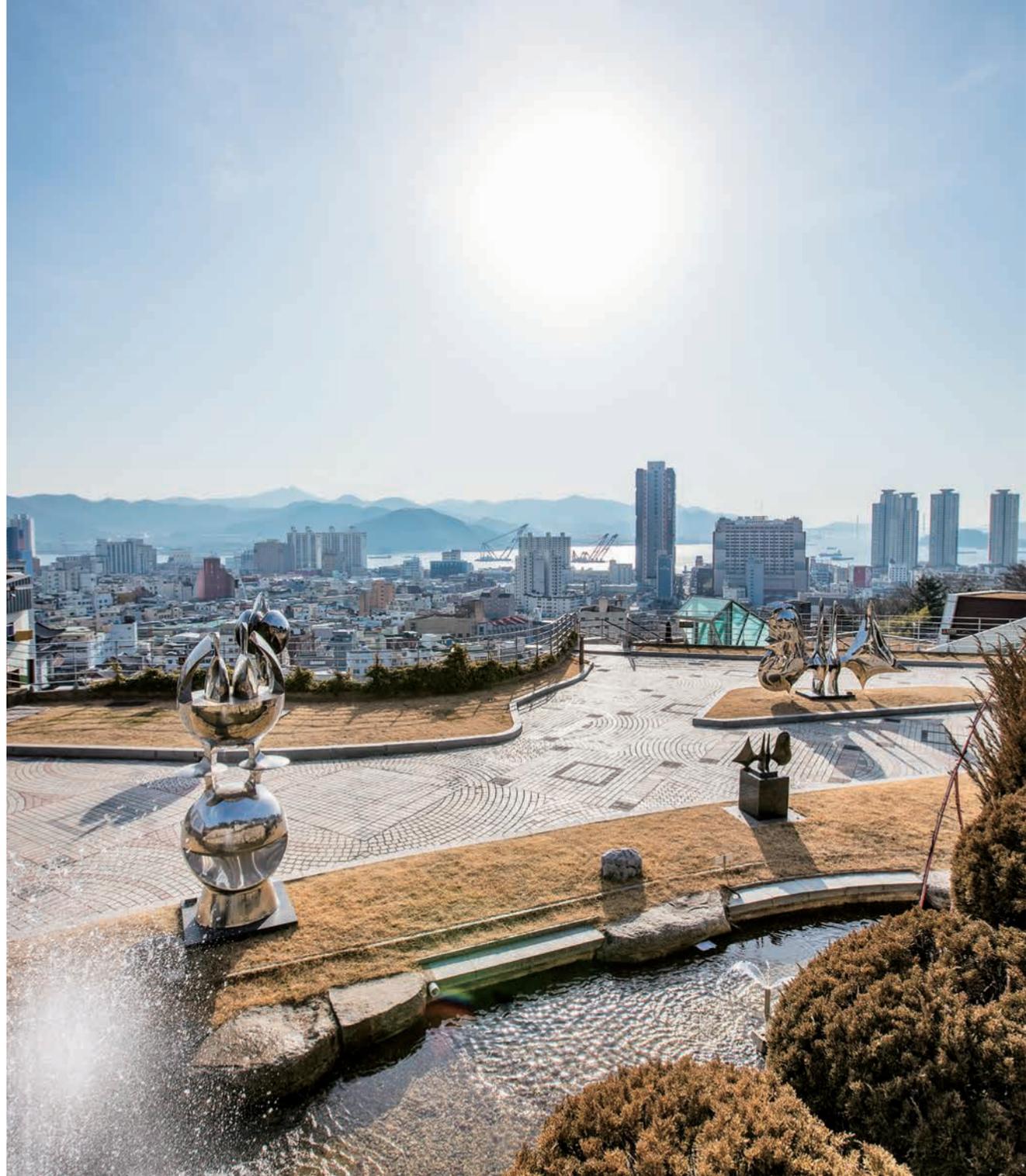
직선으로 뻗은 여좌천 좌우에 벚나무가 빼곡하다. 여좌동에서 진해만으로 빠지는 하천이 종종 범람하자 일제강점기에 곧게 펴는 공사를 해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인공 하천에 가까울지언정 벚나무 행렬과 나란히 도시를 가르는 천변은 봄이 아니더라도 근사하다. 왕복 3킬로미터 여좌천 텍 길을 걸었다. 도시 재생 사업 '블라썸 여좌'를 진행하는 일대가 벚꽃 벽화와 분홍 조형물로 여기저기 화사하다. 손잡고 소곤거리거나 여좌천 다리에서 사진을 찍는 이, 느릿느릿 산책하는 몇몇이 벚나무 사이에서 드러나고 사라진다. 좋은 날 우리가 함께할 기쁨의 그림자 같은 광경을 오래 지켜봤다. 가리어진 기쁨이 마침내 선명해질 그때를 고대하면서 텍 길과 이어진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으로 향한다.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은 2008년 창원에서 개최한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기념해 습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조성했다. 꽃창포, 비비추, 골풀, 옥잠화 등 습지 식물 5000여 본과 수목 4000여 그루가 자라는 생명의 낙원에도 겨울이 가지지 않았다. 가냘픈 가지가 비치는 수면에 바람이 불어 잔물결이 인다. 얼마 뒤면 텅 빈 저 물결에 벚꽃 잎이 비치겠다. 계절은 언제나 돌아온다. 왔다가 가고, 갔다가 돌아오는 자연의 길에서 잠시 비졌대도 사람은 자연처럼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군항제 무대 중 하나인 경화역 공원으로 이동해 벚꽃을 그린 짧은 여정을 생각한다. 2006년 여객 업무를 중단한 경화역을 공원으로 꾸민 이곳에도 벚나무는 군락을 이루었다. 깨지지 않을 단단한 행렬이 보이는 끝까지 계속된다. 다가올 순간을 약속하는 나무의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약속한다. 돌아오겠다고, 꽃잎 흐드러진 그날에 꼭.

me is like a shadow of happiness, and I am left deep in thought.

The next stop on my itinerary is Jinhae NFRDI Environment Eco-Park, also known as Naesumyeon Ecological Park. The park was form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wetlands,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Ramsar Convention hosted by Changwon in 2008. It boasts over 5,000 wetland plants, including rushes and plantain lilies, and 4,000 or so trees. The last bit of winter can still be felt on this paradise of life. The wind causes small ripples in the reflection of the barren branches. The ripples soon die down, and my eyes are drawn to the leaves of the cherry blossom trees. Seasons pass and return. Our lives too will eventually return to normal. I make my way to Gyeonghwa Station Park, one of the sites of the cherry blossom festival. The station re-opened as a park after railway services ceased in 2006, and has since drawn large crowds, both locals and tourists, for its gorgeous spring landscape. The rows of cherry blossoms stretch on for as far as my eyes can see. I immerse myself in the scenery, and ponder over the symbolic meaning of cherry blossoms, that is, the transience of human life. Just like the natural cycle of the seasons, we will return to the streets and out into the world. This is something I can promise you. We will be there to appreciate the fleeting beauty of the cherry blossoms. I have my fingers crossed, hoping we won't have to wait too long.

깨지지 않을 단단한 벚나무 행렬이 보이는 끝까지 계속된다. 꽃의 축제를 약속하는 나무의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자연은 언제나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흐른다.



순환의

길

조각가 문신은 고향 바닷가로 돌아와 미술관을 지어 시에 기증했고, 쇠락하던 창동은 예술을 통해 활기 넘치는 거리로 변모했다. 계절이 순환하듯, 사람도 도시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갤러리, 공방, 예술 학교, 문화 놀이터, 벽화... 그리 넓지 않은 거리에서 예술은 놀라우리만치 넉넉하다. 창동예술촌이 건네는 예술의 정취를 누리며 산책을 잇는다.

재생의 꿈, 창동예술촌

골목이 작다. 어떤 데는 서너 명에게도 좁다.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돌씩 마주 온다면 서로 살짝 몸을 틀면 된다. 모퉁이를 돌 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 낮모를 그 방향을 꺾으려는 참인지 모른다. 하지만 긴장할 필요 없다. 이 골목은 종종 좁아지지만 비좁지 않고 모퉁이가 잦아도 수선스럽지 않아 걸음 소리가 잘 들린다. 몸을 틀거나 코너를 살피는 잠깐을 제외하면 전부 예술이다. 갤러리, 공방, 예술 학교, 벽화... 그리 넓지 않은 거리에서 예술은 놀라우리만치 넉넉하다. 거리를 걷는다. 다 걷고 다시 걷는다. 창동예술촌이 내내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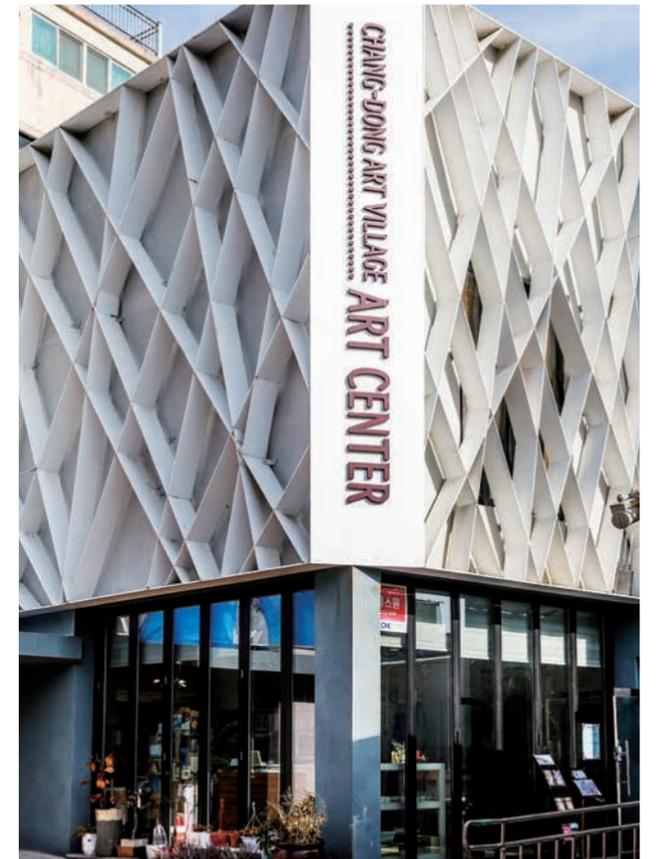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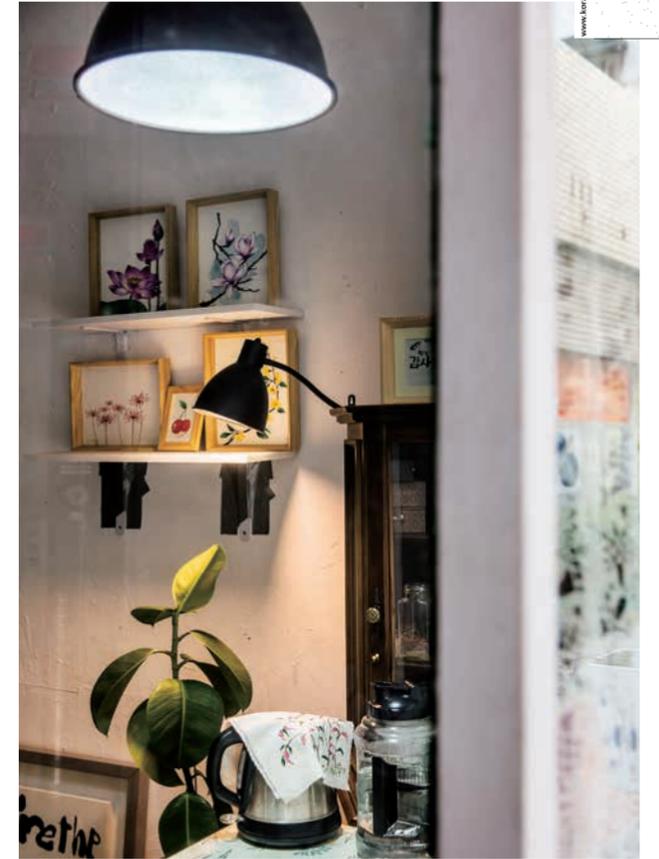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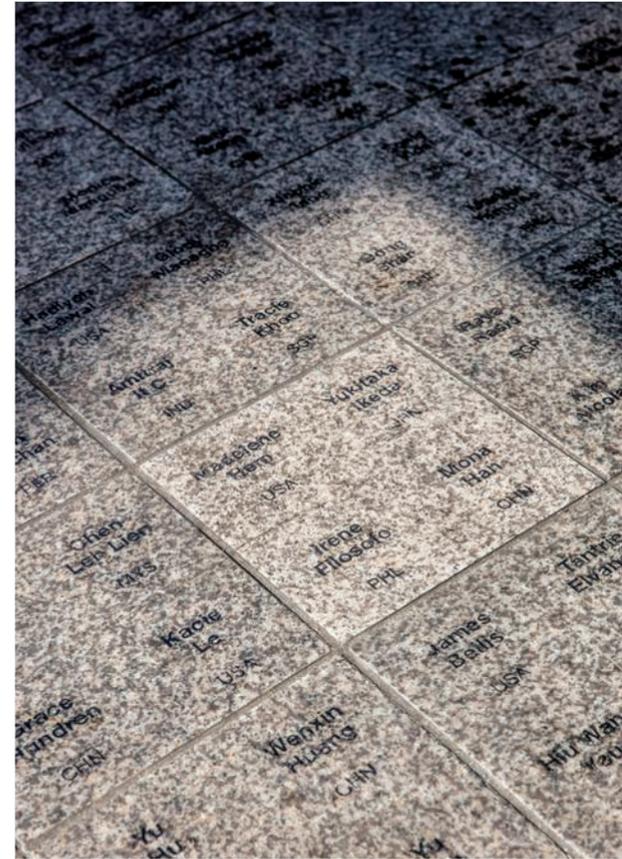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창동을 비롯한 오늘날 마산 구도심은 빠르게 쇠락했다. 근대 마산의 경제 중심이자 조각가 문신, 시인 천상병, 작사가 반야월을 배출한 문화 예술의 요람이기도 했다. 질주하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많은 공간이 문을 닫자, 창동은 바람만 나부끼는 스산한 골목이 되었다. 2010년, 이제는 혼한 도시 재생 사업을 창동에서 최초로 논의했다. 허물고 세워 시대를 뒤쫓자는 주장이 있었고, 창동만의 방식을 개척해 시대가 따라오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창동은 2012년 창동예술촌을 열었다. 아트 센터와 광장을 지었으며 공방 입주 작가를 모집했다. 갤러리들이 들어왔고 벽화가 입혀졌다. 아무것도 허물지 않은 골목이 전혀 다른 길로 변모했다. 그리 넓지 않은 거리에서, 60여 공방과 열 곳 넘는 갤러리가 응집해 건네는 예술의 정취는 실로 대단하다. 살짝 몸을 틀거나 조심스레 모퉁이를 도는 이를 제외하고 전부 예술을 누리는 사람들. 창동은 부활했다.

Changdong Art Village, a Dream of Regeneration

The alleys in Changdong Art Village are narrow, some barely enough to accommodate even a small group of three to four persons. You would have to twist your body for others coming from the opposite end to comfortably pass. You should be extra careful when turning a corner. But there's no need to be too nervous since you can easily hear if someone is approaching. Here, art is all around, from galleries to workshops to art schools. As I explore the village, I am enticed and delighted by its many pockets of surprises.

The former city center of Masan, including Changdong, began to quickly decline in the 1990s to 2000s. Changdong, once a hub of arts and culture, dwindled into a village of deserted alleys. The nation's first urban regeneration project was proposed for Changdong in 2010. After extensive discussions, the project was launched, and turned out to be a major success. It was what led to the opening of Changdong Art Village in 2012. Art centers and public squares were built, and studios opened their doors to artists. Galleries appeared, and murals were born. These welcoming changes made the alleys completely different from before, both in appearance and in spirit. Today, every corner of the village is a showcase of the creative spirits of its flourishing arts community. There is no doubt that Changdong's former prestige and popularity have been successfully restored.

창동예술촌은 2012년 도시 재생 사업으로 탄생했다.
60여 공방에 입주한 작가 53명이 찾아가는 예술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리에 예술 향기를 입히고 있다. 문의 055-222-2155





● ●
 눈부신 성취를 일군 조각가 문신이 직접 지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고향 바다를 사랑한 작가가 정성껏 만든 미술관 곳곳에 온기가 어렸다.



바다를 닮은 조각가 문신

다 허물어 한꺼번에 세우는 일은 빠르며 성과를 보여 주기도 쉽다. 그런 반면에 공방과 갤러리 몇 개, 기획 전시 몇 번, 예술 학교 졸업생 몇 명만으로는 예술촌이 거친 시간을 설명하기 어렵다. 느린 길을 선택해 10년째 부지런히 걸어온 창동은 거리 풍경을 내어놓을 뿐이다. 왠지 지껄하다기보다 유쾌한 재잘거림 같은 생기가 가득한 길을 환한 여행객들이 만끽하고 있다. 창동이 기다려 온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증명된다. 기다림의 의미를 믿는 무엇이란 계절이 순환하듯 결국 제자리를 찾을 테니. 예술촌에서 언덕을 15분 올라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에 닿았다. 눈부신 성취를 일군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이 1980년 고향으로 회귀해 직접 지은 곳이다. 앞서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 그는 '태양의 인간' '무제' 등 걸작을 잇달아 창조하면서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 미술관 마당과 전시실에서 선생의 조각을 보았다. '화(和)' '하나가 되다'를 포함한 대부분이 언뜻 정교하게 대칭시킨 추상 작품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좌우가 꼭 맞진 않다. 어디는 왼쪽보다 조금 길고 어디는 오른쪽 동일한 부분과 각도가 다르다. 실수일까?

선생은 자연법칙을 작품에 투영했다. 흙에서 태어나 한철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 각각이 모여 자연이라는 거대한 조화를 이룬다. 변화와 균형, 그리고 둘의 영원한 순환. 선생의 조각은 길이와 각도는 제쳐 두고 눈과 손만으로 켜 끝에 탄생했다. 완벽을 향한 지향을 배제한 문신 조각의 미세한 틈에 자연이 어렸다.

선생은 가난해도 예술을 힘껏 부여잡은 어린 시절에 마산 바다를 보곤 했다. 그게 그리워 고향에 회귀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미술관을 세웠다. 1994년 개관한 미술관은 1년 뒤 흙으로 돌아간 선생의 유언에 따라 시에 기증되었다. 미술관 마당에서 선생이 사랑한 바다를 봤다. 차갑던 바다가 오후 햇살에 하얀 빛을 낸다. 겨울이 또 한 번 물러나는 중이다.



Moon Shin, a Sculptor Who Resembles the Sea

About 15 minutes uphill from Changdong Art Village is Changwon City Masan Moonshin Art Museum. The museum was built by the world-class sculptor Moon Shin himself when he returned to his hometown in 1980. I take time to admire the sculptures in the outdoor space and exhibition halls. They seem like abstract, symmetrical structures, but upon closer look, you will notice that they are not fully symmetrical. One side is longer than the other, and the same parts on the two sides are angled differently. Moon Shin reflected the laws of nature in his works, which symbolize change and balance, and the eternal circulation of the two. The harmony between symmetry and asymmetry is intricately captured.

●
 1994년 개관한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은 문신 작가의 유언에 따라 기증돼 시립미술관이 되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미술관에선 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문의 055-225-7181

창원 최남단 저도에 들어 해안에 조성한 저도비치로드를 걷는다. 기우는 해가 바다에 긴 흔적을 남긴다. 수평선부터 해안까지, 길이를 헤아리기 힘든 빛줄기. 한없이 차가운 시절도 일상에 깊은 자국을 새기지만, 여기서도 겨울은 또 한 번 물러나는 중이다. 머나먼 남쪽 바다에서 밀려드는 온기가 강물을 녹이고 땅을 뒤덮어 끝내 꽃송이를 터뜨린다. 자연은 늘 그러리라 약속해 주었다.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창원의 대기와 바람에서 설핏하나 포근한 기운을 느낀다. 풍경이 계절과 계절 사이를 약동한다. 설레는 여행객은 북쪽으로 보내는 기별의 마지막 문장을 적는다. “창원에 봄이 옵니다. 그러니 그곳에도 곧.” ㉸

My last stop is Jeodo Beach Road, a coastal trail on Jeodo Island at the southern end of Changwon. The waters are shimmering beneath the setting sun. It is hard to fathom the length of the golden rays that extend from the horizon all the way to the beach. The harsh cold of winter is departing, slowly but surely. The signs of spring I experienced on this trip have left quite an impression. I cannot wait for others to feel the same. I write my last few sentences, sending a message to those living further up. “Spring is arriving in Changwon. Get ready. It will be upon you soon enough.” ㉸





창원의 또 다른 볼거리



← **서항지구 친수공원** 노후된 무역항 서항부두, 제1부두, 중앙부두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창원시가 총 2.3킬로미터 해안 길을 공원으로 만들어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해변 산책로와 해양 신도시 연결 보도교를 비롯해 각종 체육 시설, 물놀이장, 바닥 분수 등이 놓여 천천히 걸으면서 바다 풍경을 즐기거나 가볍게 운동하기 좋다. 특히 해양 신도시 연결 보도교는 밤에 밝히는 화려한 조명이 빛의 향연을 펼친다. 이미 창원의 새로운 포토 스폿이 된 보도교 일대엔 밤마다 조명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가득하다. 향후 민주주의 전당, 체험클러스터, 해양안전체험센터 등이 들어설 서항지구 친수공원은 해양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문의 055-225-6921

Seohang District Water-Friendly Park The city of Changwon transformed the 2.3-kilometer coastal sections along Seohang Wharf, Pier No. 1, and Central Wharf into a park. In addition to coastal trails and pedestrian bridges, the park offers a wealth of exercise equipment. Visitors can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while enjoying amazing sea views. The bridge connecting to the Maritime New Town is especially photogenic at night. Among the new facilities that will soon open in the park are the Hall of Democracy, Experience Cluster, and Ocean Safety Experience Center. **Information** 055-225-6921



© 루신유

↑ **주남저수지** 1970년대 후반에 가창오리 등이 수만 마리가 날아와 겨울을 나면서 탐조 명소가 되었다. 지금도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희귀종인 줄기러기를 포함한 다양한 겨울 철새가 모여 산다. 저수지를 두른 억새밭과 고즈넉한 산책로의 정취도 훌륭하다. 문의 055-225-2798

Junam Reservoir The reservoir became a popular spot for bird-watching when tens of thousands of Baikal teals migrated here in winter during the late 1970s. Every year, from around October to March, the area attracts rare bird species like the bar-headed goose. **Information** 055-225-2798



© 정서영

↑ **마산어시장** 바다 생선회 전문 식당이 밀집한 마산어시장은 당일 잡아 올린 선도가 높은 생선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는 곳으로 유명하다. 생선회뿐 아니라 젓갈·건어물 가게 등이 각각 거리를 이루어 하루 평균 3만~5만 명이 방문하는 경남 최대 어시장으로 손꼽힌다. 문의 055-224-0009

Masan Fish Market Masan Fish Market, lined with restaurants specializing in sliced raw fish, is famous for its fresh yet affordable catch. In addition to sliced raw fish, the market has streets dedicated to salted seafood and dried seafood. **Information** 055-224-0009



창원의 맛있는 먹거리



← **주남오리알** 2001년에 문을 연 이 집 메뉴는 숯불 구이와 전골 두 가지뿐. 그중에서도 청둥오리 생고기를 쓰는 숯불 구이의 기막힌 맛은 손님 대부분이 단골인 이유다. 한 마리에 800그램인 청둥오리를 가져와 맛있는 부위 500그램만 떼 상에 올린다.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의 마음을 얻겠다는 철학을 20년 넘게 지켜 온 것이다. 생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 담백한 향내가 입안 가득 번진다. 후식인 흑임자죽도 만족스럽다. 문의 055-297-7776

Junam Oriol Junam Oriol, which opened in 2001, has two choices on its menu: grilled duck and hot pot. The chef picks out 500 grams from the most delicious parts of a whole mallard, which is roughly 800 grams. The meat is then grilled over charcoal. The restaurant has stuck to its traditional recipe for over 20 years, and has won the hearts of many patrons. **Information** 055-297-7776

→ **임진각식당** '신선한 재료를 고집하고 풍성하게 제공한다.' 단순해 보여도 지키긴 힘든 운영철을 36년째 유지한 석쇠 불고기집이다. 얇게 다진 쇠고기를 비법 양념에 버무리 굽는데, 불 향을 입힌 고기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얼큰한 국물에 쇠고기와 채소를 푸짐하게 얹은 소고기 국밥도 인기 메뉴. 창원시가 석쇠 불고기 창원 대표 음식점으로 인증했으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 이름을 올렸다. 문의 055-256-3535

Imjingak Restaurant "Serving food in abundance with the freshest ingredients" is the 36-year motto of this popular grilled bulgogi restaurant. Thinly sliced beef is marinated in their secret sauce, and cooked on a preheated grill. The spicy beef rice soup is another popular dish. The restaurant is certified by the city of Changwon as a quality local restaurant for grilled bulgogi. **Information** 055-256-3535



← **진해식탁** 먹을 땐 양에 놀라고 계산할 땐 저렴한 가격에 놀라게 된다. 통새우 로제 파스타, 먹물 오징어 리소토, 차돌박이 필라프 등을 선보이는 양식당으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박용진 대표가 지난해 오픈했다. 전국 각지에서 신선한 재료를 조달해 1인분을 두 명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내놓는다. 손님이 편안하도록 테이블 간격을 넓게 띄운 모던한 디자인의 공간 또한 그 자체로 맛깔난 볼거리다. 문의 055-736-4887

Jinhae Table This Western cuisine restaurant, whose owner used to run an interior design company, specializes in shrimp rosé pasta and squid ink risotto. The dishes are made from only the freshest ingredients, and each generous serving is enough even for two. The modern design and spacious table arrangement create a welcoming, pleasant atmosphere. **Information** 055-736-4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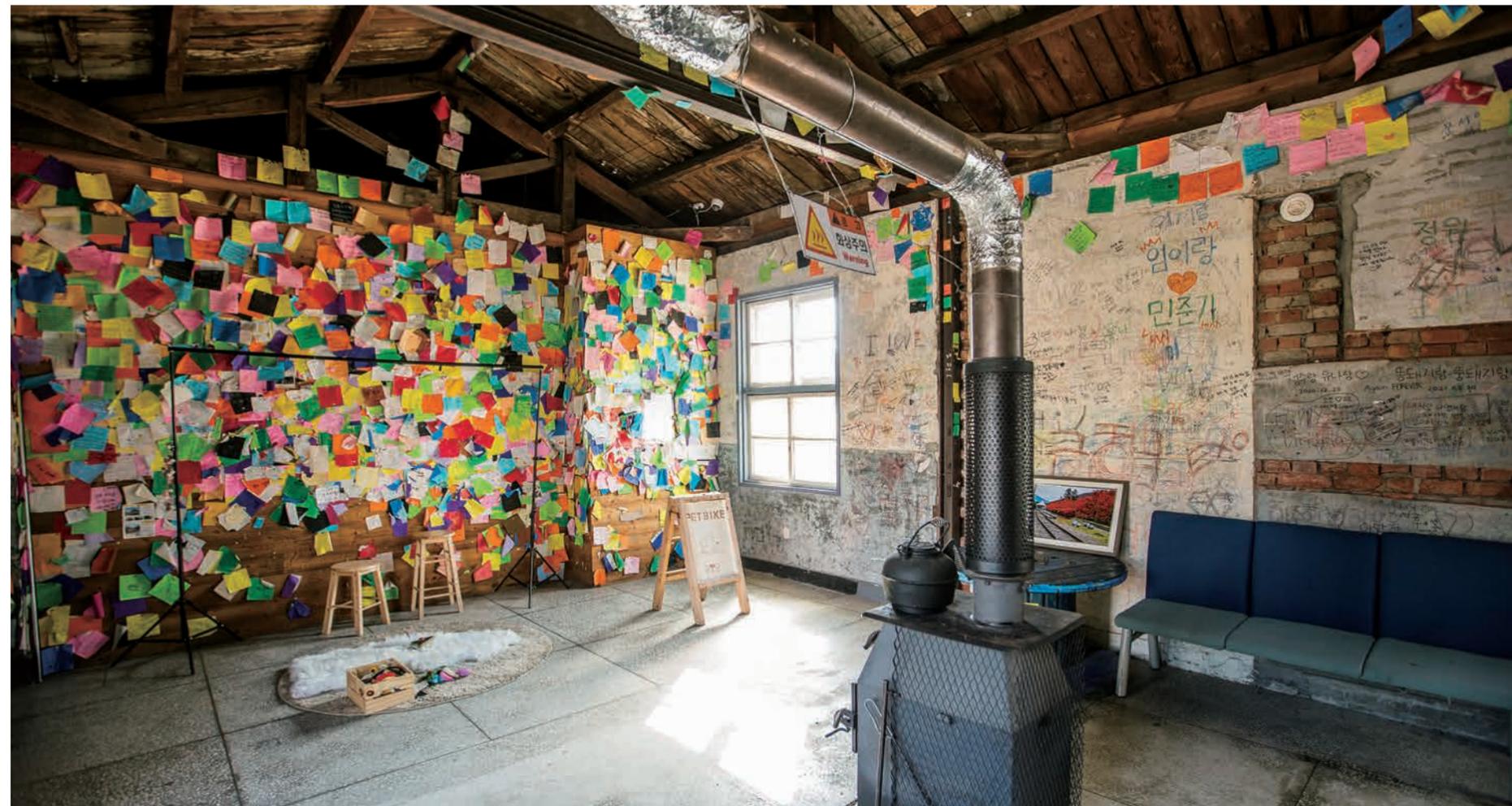
다시 봄, 춘천

옛 철길과 강을 따라 레일바이크를 타고, 케이블카에서 호수를 내려다봤다.
강원도 춘천은 언제나 그리우면서 새로운 도시다.

벗어나고 싶을 때 갈 데가 있다는 건 행복이다. 의무와 의무 사이를 성실하게 왕복하고, 성장할수록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지만 왕복과 전진이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숨은 어디서 쉬라고? 춘천은 무작정 떠나도 좋은 곳이다. 경춘선 기차에서 북한강이 내다보이는 바깥 풍경부터 여행이었으며, 어느 역에 내리든 물길에 마음을 다독였다. 일평생 다시는 못 올 여행지처럼 머리 쥐어짜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여행과 휴식이 고풍 날 춘천행 기차에 훌쩍 오르면 그뿐이니까. 춘천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일상 속 크고 작은 일에 뜨거워진 머리는 제 온도를 찾아가고, 조금 거창하게는 내일을 낙관하게도 되었다. 청춘에게, 청춘을 지나온 누구에게 춘천은 축복 같은 도시다. 한 계절이 매듭짓고 청춘을 닳은 계절이 다가오는 즈음, 춘천 가는 기차를 탔다.

오늘도 여전히 추억, 강촌레일파크

1939년 이름만으로 아련함을 선사하는 철도 노선 경춘선이 운행하기 시작했다. 도청 소재지라 교통 요지로서 철도가 필요했고,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자원을 실어 나른다는 목적도 있었다. 해방 이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대학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춘천역까지 1시간 20여분이 걸린다. 수도권전철 경춘선도 다닌다.

생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춘선은 청춘과 낭만의 대명사로 자리 잡는다. 여가를 보내려, 단체 활동을 하러 사람들은 춘천에 모여들었다. 기타 치고 노래하고 웃는 시간이 춘천의 강물과 함께 넘실댔다. 막간의 즐거움은 청춘을 마음껏 청춘이게 했다. 방황과 우울함마저 그곳은 낭만으로 물들었다. 청춘, 추억이라는 은행의 본점. 북한강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경춘선은 그 은행으로 가는 공식 통로였다.

2010년 12월 경춘선이 복선 전철화해 옛 경춘선은 정말 추억이 된다. 전철과 ITX-청춘이 새로운 철길로 다니고, 71년간 이용한

철길은 거기 덩그러니 놓였다. 한국에 수많은 열차 노선이 있다지만 경춘선의 의미는 달랐다. 이대로 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기차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염원이 이루어져 다행히 이곳은 강촌레일파크로 모두에게 돌아왔다.

고르게 사랑받은 만큼 강촌레일파크의 권역은 넓다. 과거 신남역이라 부르다 2004년 개명한 김유정역, MT 성지 강촌역, 여러 영화와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한 경강역과 북한강철교를 아우른다. 문학을 테마로 대형 책 조형물 벽을 설치하는 등 아기자기하게 꾸민 김유정역에서는 강촌역까지 레일바

+ 춘천 알뜰하게 즐기기

강촌레일파크, 국립 춘천숲체원,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토이로봇관, 엘리시안 강촌, 강아지숲, 남이섬 등 춘천의 주요 여행지 일곱 곳 가운데 두 곳 이상을 연속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강촌레일파크 레일바이크 탑승권을 가지고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주중에는 20퍼센트, 주말에는 10퍼센트 요금을 할인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문의 tour.chuncheon.go.kr



이크와 낭만열차를 체험하고, 경강역은 북한강철교까지 레일바이크를 타고 왕복하는 코스를 마련했다.

북한강과 나란히, 경강역 레일바이크

이번엔 경강역 레일바이크를 선택했다. 1997년 개봉해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편지>를 비롯해 드라마 <천국의 계단> <닥터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등을 촬영한 경강역은 영상 속처럼 어여쁘다. 내가 감독이 된다고 해도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찍고 싶다. 붉은 벽돌과 청록 지붕, 역 건물 곁의 키 큰 나무, 매표소 앞 낮은 민트색 의자, 승강장으로 드나드는 하늘색 문, 세월의 녹이 슨 장치가 어우러져 가장 예쁜 장면을 연출한다. 바깥 벽면의 옛 우체국 로고 선명한 붉은 우체통도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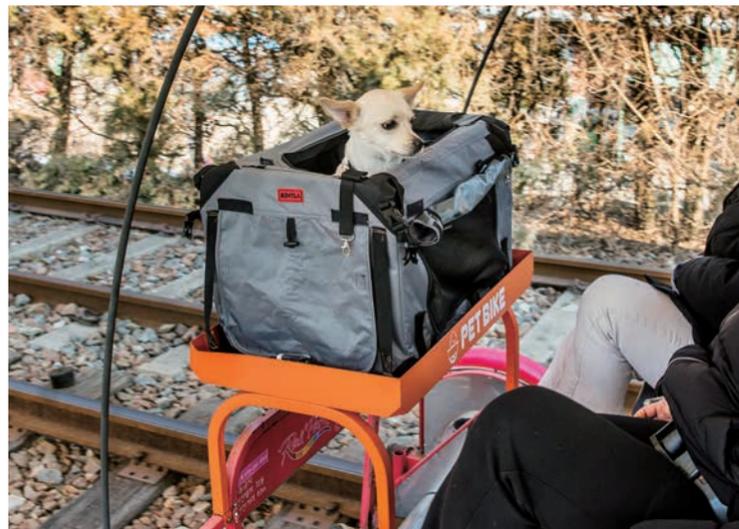
휴게실에는 사람들이 색종이에 남긴 메모가 빼곡하다. 누가 누구와 사랑한다는, 우리 결혼한다는, 기다릴 테니 군대 잘 다녀오라는 메시지가 벽면을 덮었다. <편지> 또한 세상에 돌밖에 없는 듯한 사랑을 보여 주는 영화라, 사랑한 한순간을 담은 벽은 역에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다. 어제를 잘 보존한



역이 여행자의 어제를 끄집어낸다. 잊고 지내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떠오른다. 역을 보고, 방문했을 사람들을 상상하고, 내 예전 어느 날을 되새기고. 아, 역시 경춘선이고 춘천이다.

드디어 레일바이크에 오른다. 기차 타고 지나간 철길을 두 발로 페달 밟아서 간다. 벚나무와 느티나무 터널이 머리 위를 스치고, 건널목에서는 직원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준다. 이내 북한강이 다가선다.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모른다지만, 이 기차길을 레일바이크로 누릴 줄이야. 웃음이 새어 나온다. 북한강철교에 이르러서는 말을 잃었다.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를 둘러싼 산수풍경이 절경이다. 과거에도 아름답다고 뉘 놓았을 것인데, 오늘도 새삼 아름답다.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인 철교는 이편이 강원도, 저편이 경기도다. 회차 지점인 철교에서 잠시 내려 다리 위를 걷고 사진을 찍는다. 기차를 운행한 시절엔 결코 못했을 경험이 소중하다. 바로 앞 손님, 충남 당진에서 여행 왔다는 한 살짜리 강아지 마루와 보호자도 춘천 공기와 풍경을 머금으며 산책을 즐긴다.

돌아가는 길은 오는 길보다 짧게 느껴진다. 철교행 레일바이크에서 오르막 구간이 경강역행에서는 고스란히 내리막이라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이크



● 옛 경춘선 철길을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강촌레일파크는 김유정역과 경강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팻바이크를 출시했다. 팻바이크를 타는 경강역 옆에 반려견 전용 운동장도 마련해 놓았다.
문의 033-245-1000

가 뽕뽕 나아간다. 기차 탈 땀 여기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레일바이크 덕분에 이 기차길을 친밀하게 알아간다. 춘천의 강바람, 산바람이 스며든다. 몸과 마음에 정체된 무거운 것이 씻겨 나가고 파릇파릇한 기운이 차오른다. 신나는 한 시간이 지났다. 웃음으로 꽉 채운 시간이다.

포근하고도 짜릿한 소양강스카이워크

푸른 기운을 안고 소양강스카이워크로 향했다. 소양강이 의암호와 만나는 지점에 물

위로 174미터 뻗은 스카이워크는 투명 유리 바닥을 설치한 구간이 156미터에 이른다. 멀리서는 잔잔한 물결이 발밑 7.5미터 아래에서 찰랑대니 오싹하다. 스카이워크 끝까지 간신히 밟아도착하자 '자연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물고기상이 가깝다.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쏘가리는 스카이워크 주변 또 하나 동상인 '소양강 처녀'와 더불어 춘천의 상징이다. 쏘가리상을 받친 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수탈 용도로 건설한 화천댐 자재를 나른 삭도, 즉 케이블카의 지주다. 육로 대신 물길을 이용해 운반 거리를 단축했



● 174미터 길이의 소양강스카이워크는 156미터 구간 바닥을 투명 유리로 처리해 짜릿한 시간을 선사한다. 입장료 2000원은 같은 금액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데, 기념품 가게 '설레임, 춘천'을 비롯한 인근 상점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33-240-1695



다 한다. 이토록 서정적 풍경을 두고 어찌 그리 나쁜 마음을 품었을까. 사람과 자연을 괴롭힌 탐욕이 패배하고 물러난 지금, 세월이 풍화한 흔적만 강물에 발 담그고 서서 옛이야기를 전한다.

물 한가운데에서 춘천을 바라본다. 모양이 제각각인 산이 층층이 도시를 두르고 어르는 듯하다. 춘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것인가 했다. 인간의 자갈한 과오와 실수 정도는 너끈히 덮고 안아 줄 만큼 풍부한 산과 물. 무릇 사람이라면 결국 이 넘실거리는 산과 물에 흠뻑 젖어 몽클해진다. 고마워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눈부신 산수화 속으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춘천을 수평의 시선으로 감상한 뒤, 수직의 시선으로 감상하는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를 찾았다. 의암호 수변 삼천동과 해발 655미터 삼악산을 연결하는 3.61킬로미터 길이의 한국 최장 케이블카가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밑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과 일반 캐빈 중 크리스탈 캐빈을 골라 앉으니 금



31 현재 탑승하신 케이블카는 31번 케이블카입니다.

예년 예쁘니까
예쁘면 예쁘니까
예쁘면 예쁘니까
예쁘면 예쁘니까

●●
고도에 따라 바뀌는 풍경에 감탄이 나온다. 산이 꽃잎처럼 도시를 겹겹이 감싸고, 그 산 사이사이 너른 호수엔 섬이 떠 있다. 순간순간이 아름답다.

세 동실 떠오른다. 고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춘천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산이 꽃잎처럼 도시를 한 겹한 겹 정성스레 감싸고, 그 산 사이사이 너른 호수엔 봉어섬·상중도·하중도가 떠 있다. 그 곁에 사람이 건물 짓고 길을 내어 일상을 영위한다. 순간순간이 아름다워 캐빈을 멈추고 싶다가도 다음 순간이 궁금해 눈을 360도로 돌린다.

물가를 출발해 해발 450여 미터 지점으로 이동하는 케이블카답게 상승 각도가 가파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어디는 쾅쾅 열었고 어디는 푸른 물이다. 산 그림자 진 데는 아직 겨울이나 봄의 기세를 막진 못해 마지막 그늘까지 곧 봄이 닥치겠다. 2킬로미터 거리의 호수 구간을 지나고 나머지는 산 구간이다. 경사 급한 산에서 다양한 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 물은

● 3.61킬로미터 길이의 한국 최장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 수변과 삼악산을 잇는다. 캐빈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과 일반 캐빈으로 나뉘며, 4월 중에는 야간에도 운행할 예정이다.
문의 033-250-5403



햇살에서 봄을 본다. 어린 시절도, 지난겨울도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지났다고 말만 하기엔 계절이 아깝다. 이 봄마저 엇그제가 되기 전에 춘천가는 기차를 탈 일이다.



자연스레 제 길을 알고 골을 찾아 모여 흐른다. 이 작은 물길이 내려가 춘천을 물의 도시로 만든다. 상부 승강장 전망대 근처에는 정상에 접근하는 생태탐방로가 올봄 문을 연다. 케이블카 아래 펼쳐진 그 산, 경강역에서 바라다본 그 산을 내 두 발로 직접 만난다.

춘천만의 '봄스러움'으로 봄을 시작하다

다시 봄날, 춘천을 다시 본다. 벗어나고 싶은 언제든, 어떤 심정으로 오든 받아 준 고마운 도시. 어제의 모습 간직한 춘천도, 달라진 춘천도 있다. 봄은 매번 새봄이듯 춘천 또한 언제나 그리운 춘천이면서 새로운 춘천이다. 레일바이크와 케이블카를 타고, 잘 단장한 걷기 길과 자전거 길을 누비고, 카누에 올라 물길을 탐방하다 커피를 한잔하는 동안 춘천만의 '봄스러움'이 가슴에 흘러들어 온다. 어린 시절도, 청춘도, 지난겨울도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지났다고 말만 하기엔 계절이 아깝다. 일단 춘천가는 기차에 오르는 것으로 봄을 시작할 일이다. 이 봄마저 엇그제가 되기 전에. 



춘천의 핫한 카페거리



1

소양강댐 카페거리



아름다운 소양강댐 경치를 끼고 자연스럽게 카페거리가 생겨났다. 닭갈비·막국수 맛집도 여러 곳이라 식사와 후식을 한자리에서 즐긴다. 모든 카페에서 소양강이 가까워, 커피를 손에 들고 강변을 산책해도 좋다.

#근처여행지 #소양강댐 #청평사 #국립춘천숲체원 #강원도립화목원

육림고개 카페거리



육림극장이 있던 육림고개에 청년 상인이 하나들 모여 형성한 '핫플'이다. 자신만의 감각을 담은 카페와 다양한 메뉴의 맛집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영화를 테마로 단정한 포토 존도 인기. 명동닭갈비골목, 춘천중앙시장과 인접해 있다.

#근처여행지 #소양강스카이워크 #국립춘천박물관 #춘천중앙시장



2



3

구봉산 카페거리



구봉산 중턱의 카페거리는 어느 카페를 선택하더라도 탁 트인 풍경이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카페마다 마운틴 뷰, 리버 뷰 등 전망이 조금씩 달라 방문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생 사진은 덤이다.

#근처여행지 #김유정문학촌 #강촌레일파크김유정레일바이크 #책과인쇄박물관



4

서면 카페거리



물의 도시 춘천이 자랑하는 풍경 중 하나가 의암호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가 춘천의 아름다운 정경과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낸다. 커피 마시러 춘천까지 갈 이유, 충분하다.

#근처여행지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 #의암호물레길

© 춘천시청



장항은 오늘도 진행형

장항선 종착지였던 옛 장항역이 장항도시탐험역으로 부활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충남 서천 장항읍에서 자전거 타고 시간을 달렸다.



長項

서해금빛열차에 올랐다. 서울 용산역에서 충남 서천 장항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몰끄러미 바라보다가 철 지난 난센스 퀴즈 하나를 떠올린다.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배우는 누구일까?” 짐작하겠지만, 답은 장항선이다. 영화 <왕의 남자>의 내시 김처선과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팔봉 선생이 바로 그다. 장항선이라는 예명이 그의 고향 충남을 흐르는 지역 철도 노선에서 비롯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한때 장항읍이 중흥을 이룬 산업도시였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작명의 명분이 꽤 그럴싸하다.

장항선을 아시나요

아이러니한 애깃거리도 하나 덧붙여야겠다. 장항선은 더 이상 장항을 지나지 않는다. 현재 장항선이 지나는 장항역은 행정구역상 서천군 장항읍이 아닌 이웃 동네 마서면에 속한다. 철도 직선화 사업 때문이다. 과거 장항선은 천안시 천안역에서부터 장항읍 창선2리에 위치한 옛 장항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다. 1922년 운행을 시작한 충남선은 한국전쟁 이후 종착역인 장항역에서 이름을 따 1955년 장항선으로 개칭했다. 8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천안역과 장항역을 오간 장항선은 2008년 군산역과 익산역을 잇는 군산선을 흡수·통합해 총연장 154.4킬로미터로 거듭난다. 그렇게 장항역은 종착역으로서의 역할을 잃었고, 역사 또한 철로를 연결하기에 용이한 지금 자리로 이설된다. 이런저런 옛일을 곱씹자니 어느덧 열차가 새 장항역에 다다른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옛 장항역인 장항도시탐험역에서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장항역까지 약 3시간이 걸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행 상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수송 기능을 상실하고 끝내 폐역이 된 옛 장항역은 장항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시설로 부활했고, 장항도시탐험역이라는 새 간판도 얻었다.
●●



시작될 것이다. 수송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끝내 폐역이 된 옛 장항역은 장항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시설로 부활했고, 2019년 5월 1일부로 장항도시탐험역이라는 새 간판을 얻었다. 갈아입은 새 옷도 인상적이다. 위치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다이크로익 필름을 전면에 붙여 멀리서도 알록달록한 빛깔을 뽐낸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비로소 장항역의 과거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 1층 대합실이었던 자리는 각종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소통 창구 맞이홀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인 어린이 시-공간으로 단장해 손님을 반긴다. 2층에선 쨍한 꽃분홍색으로 꾸민 도시탐험카페가 눈을 사로잡고, 맞은편엔 장항의 옛 모습을 기록한 장항이야기뮤지엄이 발길을 잡아 끈다. 동선은 자연스럽게 전망대로 연결된다. 탁 트인 옥상에 서자 '장항선셋' 간판 너머로 낡디낡은 철로와 승강장이 펼쳐진다. '기벌포영화관'이라고 써 붙인 작은 영화관, 철로 옆으로 뻗어 난 아기자기한 골목길까지도 한눈에 든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두빛나래는 황금빛 달고나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041-956-8255



다. 활기 어린 마을 풍경 앞에서 어쩐지 마음이 두근거린다. 장항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봐야겠다.

자전거 타고 시간 여행

화사한 민트색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구르니 훌쩍 봄이 온 듯한 기분이다. 불어오는 바람도 제법 훽훽하다. 머지않아 폐선로 틈틈이 자라난 들풀이 연둣빛으로 물들고, 선로 옆 담장을 휘감은 장미 덩굴이 꽃망울을 틔울 것이다. 그리고 보니 자전거를 타는 게 얼마 만인가. 장항도시탐험역 1층 자전거 대여소에서는 '도시 탐험자'를 자처하는 누구에게나 기꺼이 자전거를 내어 준다.

색색의 벽화가 수놓은 거리를 달린다. 바퀴는 이제 장항 6080 음식 골목 맛나로로 흘러들어 간다. '6080'은 1960~1980년대 장항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맛나로'는 장항의 이름난 먹거리가 늘어섰음을 뜻한다. 장미분식, 기찻길 카페, 나드리 김밥...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가게를 지나치다가 '금희다방'이라 쓴 간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방으로 이어진 계단을 오른다. 향긋한 커피 내음이 넘실거리는 주방을 슬쩍 들여다보니 눈부신 백발의 노인장이 달걀을 부치고 있다. "커피 한 잔에 이 달걀부침이랑 깨죽을 같이 들어 봐요. 이게 우리 집에서 아침 9시까지 내는 모닝 세트예요.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야 하는 일꾼들이 들러 간단히 요기하고 간다우." 아침 특별 메뉴를 만들어 파는 다방이 장항에만 몇 군데 더 있다는데, 이게 바로 항구의 낭만 아닐까. 달걀부침을 후루룩 들이켜고 커피와 깨죽으로 입가심을 한다. 목구멍부터





●●

노란 햇살이 갯벌 위 연흔을 어루만지며 느리게 내려앉는다.
물결처럼 굽이치는 이 아름다운 무늬의 연원은 대체 무엇일까.
덧없는 생각에 침잠할수록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진다.

명치까지 뜨끈한 기운이 퍼진다.

자전거는 골목길을 오래 달리지 못하고 자주 멈춰 선다. 이번엔 벽면 가득 동백꽃으로 장식한 적산 가옥 앞에 주차한다. 이곳의 정체는 카페이자 장항 청년 공동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 두빛나래다. 장항청년 아이스브레이크 협동조합의 유홍석 대표가 이끄는 생활 관광 프로그램 ‘향미와 함께하는 장항 6080 골목나들이(이하 향미 여행)’의 베이스캠프이기도 하다. “향미가 누구냐고요? 하하, 향미는 장항이 간직한 향(香)과 미(味)를 의미합니다. 장항의 바다 냄새, 노포에 깃든 추억의 맛을 음미하길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거죠.”

겨우내 휴식기를 가진 향미 여행은 3월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코스는 이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계절에 따라 미션과 상품을 조금씩 달리할 계획이란다. 주요 미션은 벽화 거리 ‘장항역 가는 길’을 걷고, 옛 전차대와 철로 건널목에서 숨은 금괴를 찾는 것이다. 종착역에서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인 전차대는 장항선의 영화로운 과거를 간직한 장소다. 그런데 왜 하필 금괴를 찾는 걸까? “금괴가 옛 장항제련소에서 사라진 물건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쇠락한 마을에 희망의 황



금빛 불씨를 불어넣자는 뜻이 담겼죠. 금괴를 발견하는 여행자에게는 서천 특산품과 향미 여행 기념품으로 맞바꿀 수 있는 황금 주화와 복권을 드린답니다.” 듣고 보니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 편의 모험기 같다.

바다부터 숲까지, 장항의 자연을 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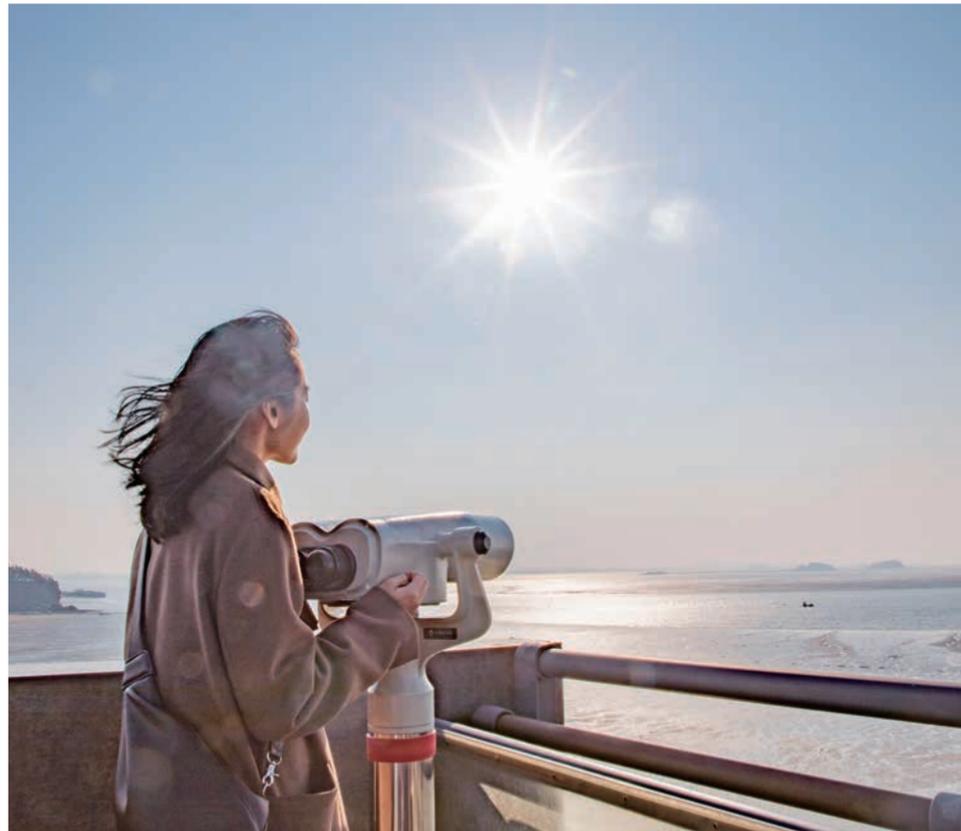
이쯤에서 되새겨야 할 이름이 있다. 장항제련소. 옛 장항역만큼이나 장항의 굴곡진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이다. 장암리 전망산에 우뚝 솟은 장항제련소의 굴뚝과 통통배가 늘어선 장항 신항의 모습은 이 도시의 어제와 오늘을 집약한 풍경이다. 1930년대 장항은 일제강점기 최후의 수탈 기지였다. 172만 제곱미터(약 52만 평)의 갈대숲과 갯벌을 매립해 도시를 조성하면서부터 호젓한 항구 마을이던 장항의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했다. 1936년에 지은 장항제련소와 그보다 5년 앞서 놓인 장항선(당시 충남선)은 우리 물자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장항 곳곳에 자리한 미곡 창고 또한 일제가 곡물을 착취한 증거다. 지금은 미곡 창고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지만, 일부는 군에서 매입해 주민과 여행자를

● 장항이라는 이름은 장암리와 항리에서 한 글자씩 따 온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장항제련소 굴뚝이 서 있는 장암리의 바위산을 전망산이라 부른다.

위한 문화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4년 등록문화재 제591호로 지정된 서천군 문화예술 창작공간도 그런 장소 중 하나다.

바뀌는 다시 길을 들어 장항송림 산림욕장을 향해 달려간다. 1954년 옛 장항농고(현재 장항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식재한 곰솔 1200여 그루는 오늘날 27만여 제곱미터(약 8만 2000평)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나무 그늘 아래엔 계절 따라 맥문동, 해국, 송엽국 등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눈을 즐겁게 한다. 높이 15미터, 길이 250미터의 장항 스카이워크는 장항송림의 하이라이트다. 장항은 물론이고 서천군 최고 전망을 선사하는 이곳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인 서천 갯벌과 신라가 당나라를 격파한 기벌포해전의 뜨거운 역사를 두 눈 가득 펼쳐 놓는다.

스카이워크 끄트머리에 놓인 망원경으로 뱃일하는 사람들을 훑쳐보다가, 시선을 슬쩍 옮겨 갯벌의 고운 표면을 들여다본다. 노란 햇살이 갯벌 위 연흔을 어루만지며 느리게 내려앉는다. 물결처럼 굽이치는 이 아름다운 무늬의 연원은 대체 무엇일까. 덧없는 생각에 침잠할수록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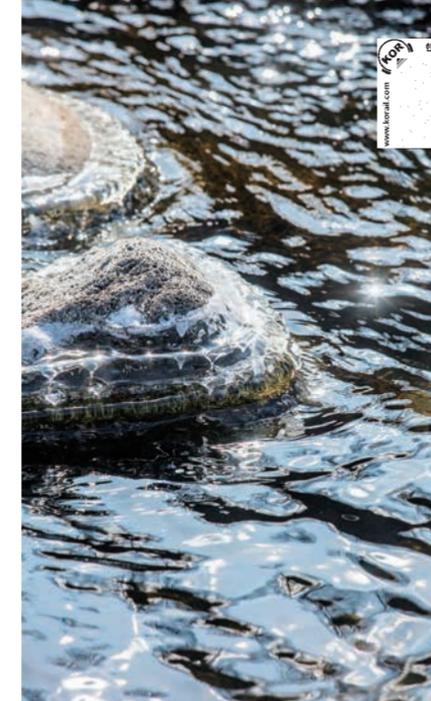


잊지 못할 장항의 맛

페달을 열심히 구른 탓일까. 허기가 맹렬하게 밀려든다. 자전거를 반납하기 전, '실비식당'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차한다. 이곳은 단돈 8000원으로 18첩 반상에 홍어탕까지 맛볼 수 있는 귀한 백반집이다. "이건 병치조림, 저건 꼬록젓이에요. 아이고, 끓여 넘치기 전에 얼른 홍어탕 좀 잡싸 봐요." 툭 하고 날아드는 사장님 말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병치는 병어를, 꼬록젓은 꼴뚜기젓을 이르는 방언이란다. 그 말씀 받들어 홍어탕부터 한 술 떴는데, 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탄성이 절로 흘러나오는 맛이다. 삭히지 않은 생물 홍어와 미나리를 잔뜩 넣어 팔팔 끓여 낸 국물이 어찌 그리 맑고 깊은지. 병치조림과 꼬록젓의 감칠맛은 물론이고 보드라운 달걀찜, 할머니 손맛이 생각나는 고추무침, 뒷맛이 개운한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맛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세상 모든 시름과 상념을 내려놓는다. 마지막 기차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왜 발길은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걸까. 누룽지까지 탈탈 털어 먹곤 겨우 자리를 물린다. 잊지 못할 장항의 하루가 저문다. 못내 그리울 장항의 맛이다. **㉠**



祕境



물 위의 비경 철원 한탄강 물윗길

녹은 눈이 한 방울씩 모여 봄을 피워 낸다.
겨울 끝자락에서 강원도 철원
한탄강 위를 걸었다.

내뺨은 숨이 뿌영게 흠어진다. 따듯한 몸속에서 토해 낸 온기가 찬 공기와 맞닿자 금세 수증기로 변했다. 얼어붙은 강을 지나는 바람이 이불인 양 쌓인 눈을 보드랍게 훑었다. 가지마다 잎눈이 달리고 흠에서는 새싹이 고개를 들지만, 철원은 여전히 겨울에 덮인 채다. 숨처럼 흠 날리는 눈이 얼음 위를 달음질친다. 날리는 눈을 따라 풍경을 살피자 한탄강 절벽 위로 해가 느릿느릿 올라오는 중이다. 그 아래 붉은 태봉대교가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의 출발점을 지키고 서 있다. 억겁 세월이 만든 자연에 들어간다. 앞서간 바람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등을 민다. 바람과 눈의 안내를 따라 걸음을 내딛었다. 큰 여울을 뜻하는 한탄강, 이름답게 탁 트인 넓은 강이 여행자를 품는다.

시간은 흔적을 남긴다

물윗길, 말 그대로 물 위를 걷는 길이다. 두겹게 언 강에 부교를 띄워 길을 냈다. 서리가 내린 부교 위로 조심스레 올라섰다. 걸음을 땔 때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고요한 강을 채운다. 얼음에 금이 가면서, 또는 얼음과 얼음판이 부딪히면서 나는 울림이 물윗길을 걷는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신선은 물 위를 걸어 다닌다 하던데, 신선이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은 어땠을까.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저 얼음처럼 메아리로 이야기했을까. 소리를 내는 강에 신선이 된 기분으로 인사를 건넨다.

태봉대교를 뒤로하고 얼마 후 거대한 절벽이 숨긴 보물, 주상절리가 드러난다. 과거에 묶은 용암이 몇 번이고 분출해 이 일대를 덮었다. 흘러내린 용암이 식어 쪼개진 채로 머무르다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침식으로 난 틈에 물이 흘렀고, 물길이 나자 더 많은 암석이 깎여 결국 강이 흐르고 협곡이 생겼다. 일정한 형식 없이 마구 수축하고 갈라진 주상절리가 위로 솟았다. 하늘을 향해 뻗은 돌이 모여 거대한 절벽을 이룬다.



● 한탄강 지질공원은 북한 오리산에서 흘러온 용암이 굳으면서 형성됐다.

+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2020년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한 한탄강 위를 걷는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만 공개하는 물윗길은 약 8킬로미터 코스로 구성된다. 시간이 빛은 한탄강의 자연이 신비롭다.

●● 걸음을 땔 때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고요한 강을 채운다. 얼음에 금이 가면서, 또는 얼음과 얼음판이 부딪히면서 나는 울림이 물윗길을 걷는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먼 옛날, 송도 사람인 세 형제가 이곳에 놀러 왔다. 형제는 비취색 강과 현무암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 절벽 위에서 노닐었다. 이 절벽 밑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포악한 이무기는 세 형제를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고, 이무기와 싸우다가 두 사람이 물려 죽었다. 나머지 한 사람이 사투 끝에 결국 이무기를 잡았다. 이런 전설에 따라 이곳을 송도포(松都浦)라 불렀고, 지금에 와서 송대소(松臺沼)가 되었다. 형제가 이무기와 싸울 때 흔적이 남은 것인지 검은 절벽에 흰색, 붉은색, 주황색 점이 군데군데 보인다. 서양속 지질공원해설사가 주황빛 점을 가리킨다. “세월이 흐르며 돌에 핀 곰팡이예요. 분출한 용암의 성질에 따라 색이 층층이 다르기도 하지만, 주황빛이 도는 점들은 곰팡이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에도 곰팡이가 피니까요.” 이렇게 시간은 단단한 것에도 흔적을 남긴다. 때로는 돌에 곰팡이를, 장소에는 전설을, 스치는 순간 속에는 이야기를 남기고야 만다. 송대소 뒤편으로 은하수교가 반긴다. 두루미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에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부곶길에 이어 은하수교 아래로 바윗길이 펼쳐진다.

이야기가 담긴 다리, 승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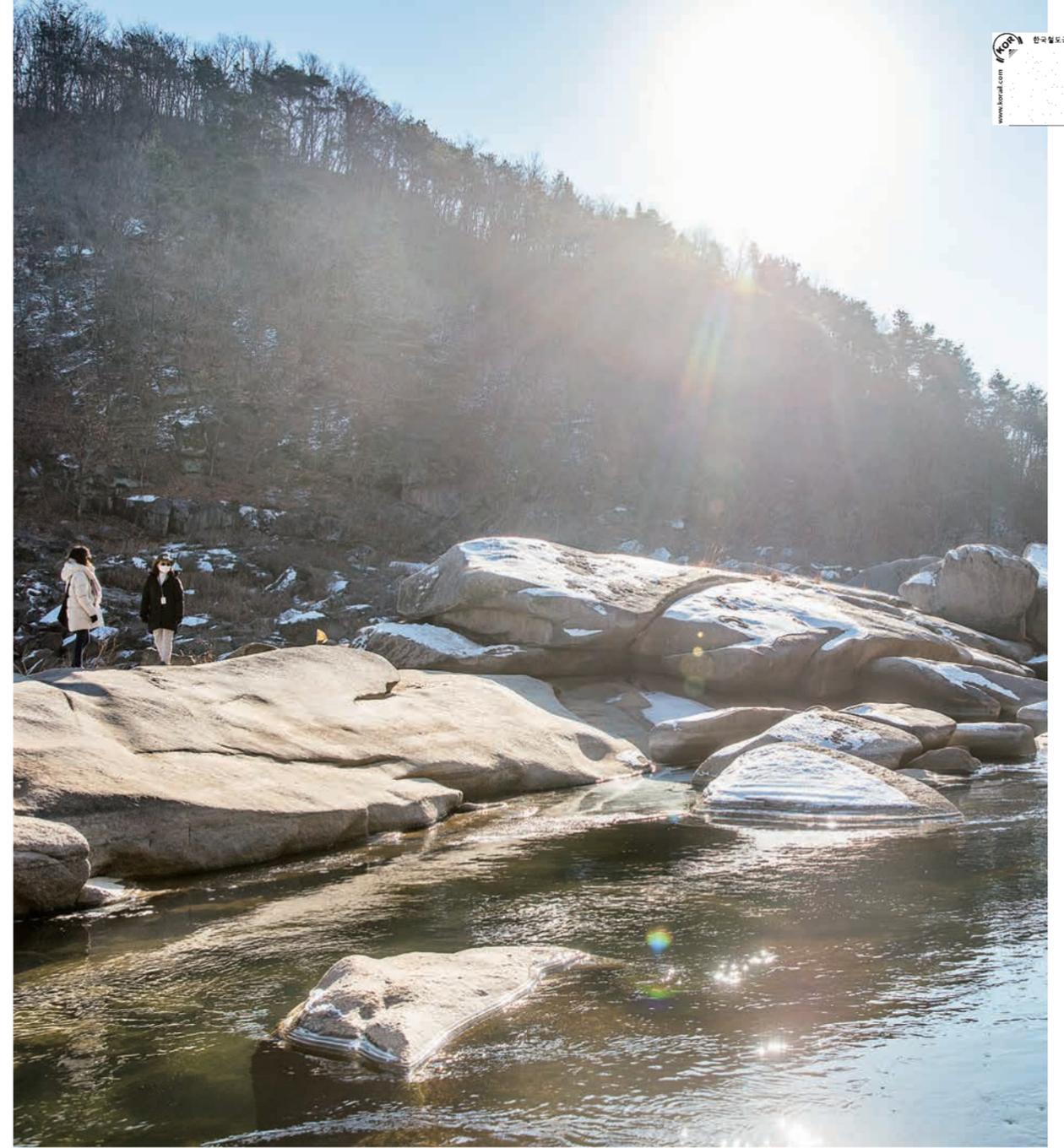
스르르 흐르는 소리가 컷가를 두드린다. 바위가 강 위로 머리를 들성들성 내밀었다. 마침 내려온 햇빛이 물에 닿아 윤슬이 생긴다. 반짝이는 물결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돌에 이리저리 부딪혀 생긴 파동이 잔물결을 만든다. 크고 작은 바위가 이어지다 구들장같이 넓은 마당바위가 드러났다. 누군가 마루로 쓰려고 자른 듯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섰다. 마당바위에 앉아 쉬며 한탄강을 바라본다.

옆에는 물이 오랫동안 흘러내려 바위 표면을 깎아 만들어진 돌개구멍이 숭숭하다. 구멍에 손바닥을 대 본다. 느릿하지만 성실히 흘러내렸을 물길을 생각한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걷는다. 갈대인지 억새인지 모를 풀이 흔들거린다. 강변에 난 풀이 궁금해 서양속 지질공원해설사에게 묻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갈대와 억새는 산 정상에 사는 친구였다고 해요. 산 아래가 궁금하던 이들은 고민 끝에 내려가 보기로 하는데, 이때 갈대가 먼저 가겠다고 하죠. 금방 돌아오겠다고 갈대는 강과 호수 풍경에 반해 그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쯤처럼 성격이 굳건한 억새는 갈대가 궁금했지만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 덕분에 갈대와 억새가 헛갈리지 않더라고요.”

얽힌 이야기가 있으면 기억하기 쉽다. 승일교는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가 어린 다리다. 중앙을 기준으로 남한이 공사한 쪽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북한이 공사한 쪽은 아치형이다. 철원은 한국전쟁 후 남한에 편입된 수북 지구다. 전쟁 전 북한이 기초 공사와 교각 공사를 했고, 전쟁이 발발한 뒤에 철원을 편입한 남쪽이 마무리 공사를 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의 주장인 이승만과 김일성에서 한 글자씩 따 승일교라고 부른 것이 다리 이름이 되었다. 승일교 뒤편 차가 다닐 수 있는 붉은색 한탄대교가 자리한다. 과거에 만든 승일교와 현재에 만든 한탄대교가 함께한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얽힌 곳이다.

물윗길 출발지인 태봉대교와 가까운 역은 철원 백마고지역이다. 현재 경원선 동두천역-연천역 구간은 전철화 공사로 열차 운행을 중단해 동두천역에서 대체운송 수단인 직행버스를 타고 백마고지역으로 갈 수 있다.



한탄강 물윗길 명소 7



태봉대교 한탄강 상류 계곡에 놓인 철제 다리다. 공예가 세운 나라 태봉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다리 위에 놓인 번지점프대에서 스릴을 즐긴다.



송대소 높이 30미터의 수직 적벽 주상절리다. 지층에 따라 붉은색, 회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을 띤다. 수직 적벽 밑은 한탄강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



은하수교 2020년 완공한 다리로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한탄강을 내려다보며 걷는다. 마치 은하수를 걷는 것 같아 은하수교라 이름 지었다.



마당바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로 가장자리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절벽에서 보면 왕발 형태라 왕발바위라고도 한다.



승일교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북한이 건설하기 시작하고 철원 수복 후 남한이 완공해 좌우 모양이 다르다. 남북의 기술이 응축된 다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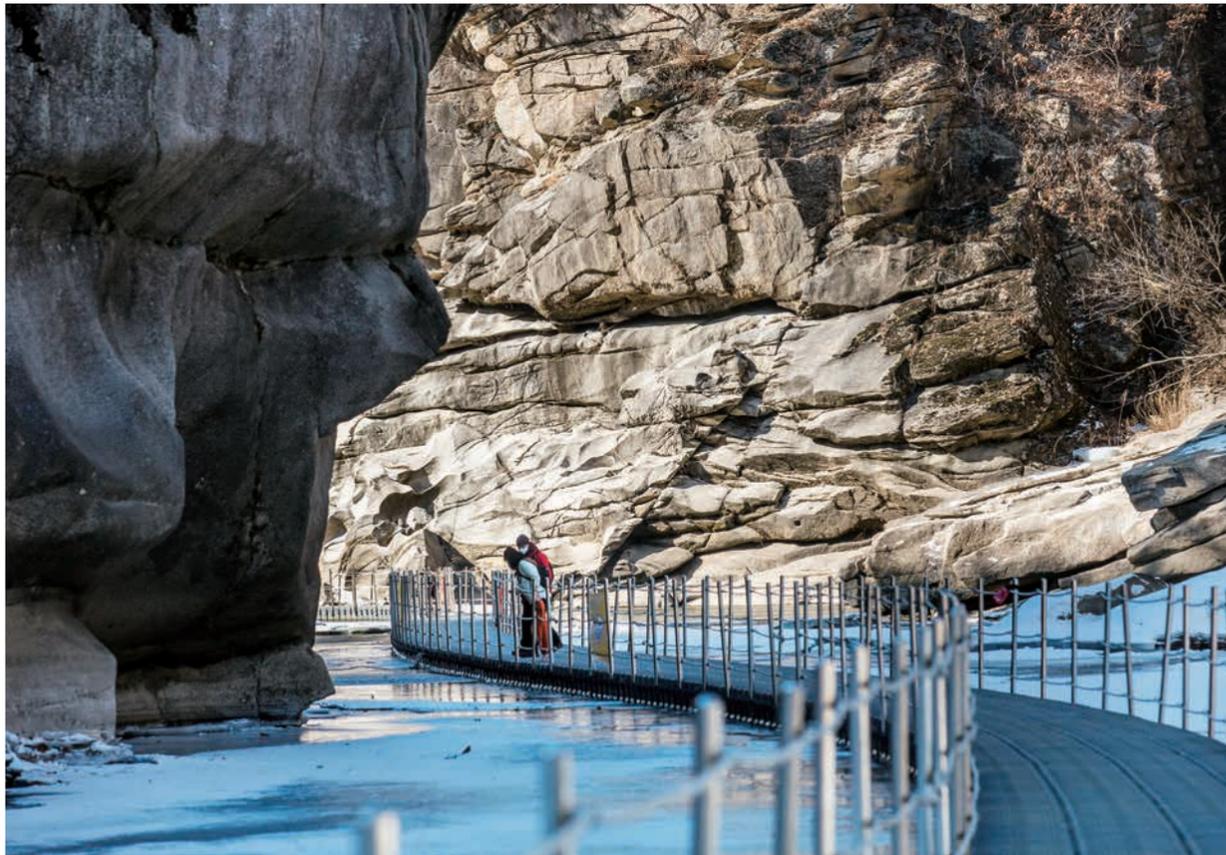
고석정 화강암인 고석바위와 누각이 있는 일대를 고석정이라고 부른다. 신라 진평왕과 고려 충숙왕이 이곳에서 노닐었다 전한다.



순담계곡 고릴라바위, 자라바위 등 기묘한 형태의 바위와 지형이 세월을 즐기며 래프팅도 할 수 있다.



거대한 바위가 가까워진다. 거인이 와서 밀어도 꿈쩍 않을 고석바위가 외로이 자리를 지킨다. 고석정 한편의 우람한 바위와 그 위에 자라는 나무들을 바라본다.



녹아내리며 드러나는 것

어느새 해가 머리 위를 비춘다. 바윗길이 끝나고 다시 물위를 걷는다.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체중이 부교에 전해져 길이 출렁인다. 얼음 풀린 강물이 아름다워 한참 물만 감상하며 걷다 길에 드리운 그림자를 마주하고 퍼뜩 앞을 본다. 거대한 바위가 가까워진다. 거인이 와서 밀어도 꿈쩍 않을 고석바위가 외로이 자리를 지킨다. 바위를 지나 고석정에 오르자 예스러운 분위기가 그득하다. 고석정 한편의 우람한 바위와 그 위에 자라는 나무들을 바라본다. 하나하나 세기도 어려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면 고석정이 있는 공간까지 바위로 가득했겠다. 이토록 부드러운 공기의 흐름이 쌓이고 쌓여 단단한 암석을 부수고 또 세우기도 한다. 고석정에 머물렀다는 신라와 고려의 왕은 누각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바위를 바라봤을까, 임꺽정은 어떤 도술을 썼기에 바위 틈으로 몸을 피했을까 상상하며 고석정을 나선다.

한층 겸손해진 마음으로 순담계곡을 향한다. 조선 정조 때 김관주라는 사람이 요양할 곳을 찾다가 일대의 풍경이 아름다워 거처를 정하고 연못을 팠다. 그 근처에 순약이라는 약초를 재배해 먹었더니 지병이 나왔다 하여 순담계곡이란 이름이 붙었다. 또르르 가법던 물소리가 곧 힘차게 울린다. 천천히 녹아 흘러온 물이 쏟아진다. 잔잔하게 흘러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이다. 바위 끝에 매달린 얼음이 보석처럼 영롱하다. 바위 위 눈이 녹아 밀로 흐르다 어느 과정에서 여울과 맞닿아 보석 모양으로 맺혔다. 순약초뿐 아니라 바위 끝에 매달린 얼음 수정과 힘찬 순담계곡 풍경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이리라. 얼음이 녹으면 지금과는 다른 풍경이 감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눈이 녹아 봄이 되듯 한탄강에 열린 얼음 수정이 물로 되돌아가는 그날, 간지러운 봄기운이 몰려오겠다. 아름다운 설경에 작별 인사를 고하며 트레킹을 마쳤다.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른다. ❶



물윗길의 부교는 매년 다른 위치에 다른 모양으로 놓는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며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다.
문의 033-455-7072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아찔한 스릴과 절경을 동시에 즐긴다. 3.6킬로미터 전도는 절벽을 따라 순담계곡부터 드르니마을까지 이어진다. 한탄강이 품은 주상절리 협곡 풍경을 색다른 시선으로 보여 준다.



‘명배경’ 성지 대구

삼국시대 고분군부터 근현대사의 현장을 거쳐 대도시 면모까지 다 지닌 대구는 곳곳이 명장면 배경으로 활약했다.

영상의 배경은 중요하다. 사랑을 고백하고 이별하고, 특정 사건의 진실을 깨닫고 무언가를 다짐하는 장면을 어디서 촬영하느냐는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어느 창작자가 동선을 줄여 효율을 높이자고 대중 가까운 아무 데서나 찍으라. 영상 제작자들은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할 극적인 배경을 찾아 오늘도 전국을 헤맨다. 마찬가지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을 낳은 ‘명배경’은 창작자에게 사랑받게 마련이다.

대구가 바로 그런 도시다. 삼국시대 고분군인 불로동고분군부터 조선시대의 경상감영, 대학자 환헌당 김광필 선생을 기리는 도동서원,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은 근현대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청라언덕과 북성로, 현대의 대도시 면모까지 시간의 쉼을 울음이 간직한 대구는 수많은 영상의 명배경으로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켰다. 세상의 끝 같은 너럭바위 봉우리에 돌탑이 우뚝 선 비슬산 대견사의 웅장한 풍경은 드라마 <추노> 마지막 장면을 낳았고, 고풍스러운 건물에 담쟁이가 자라 낭만을 더하는 계명대학교는 드라마 <모래시계> <야망의 전설> <에덴의 동쪽> <이브의 모든 것> <사랑비> <꽃보다 남자>, 영화 <동감> <첫사랑 사수 궤기대회> <누구나 비밀은 있다> <그해 여름> 등 100여 편 영화·드라마 속 인물이 다니는 학교로 등장했다. 웬만한 영상에서 ‘어, 저 학교 예쁘다’ 싶으면 계명대학교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캠퍼스 내 한학촌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세기 초 고딕 양식 성당인 계산성당, 90개 좁은 계단의 3·1만세운동길, 서양식 선교사 주택이 늘 어선 청라언덕 또한 여러 작품에서 대활약해 화면을 풍성하게 하고 시청자와 관객을 설득했다.

시간과 삶이 녹아 있는 공간은 촬영을 위해 일부러 만든 세트장이 갖지 못한 정서를 지닌다. 좋은 배경이 되는 곳 자체가 사진 찍고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구가 선사한 잊지 못할 장면으로 들어간다. 이야기가 가득한 장소들이다. **k**

Filming locations help to set the mood of a film or drama, especially in scenes where love is professed, where hearts are broken, or where certain truths are revealed. Even at this moment, filmmakers are scouting locations to best convey their message.

Daegu is home to famous filming locations that have brought laughter and tears to many. Among them are the Bullo-dong ancient tombs; Gyeongsang Gamyong Park; Dodongseowon Confucian Academy, established in memory of Hanhwondang Kim Goeng-pil; Cheongna Hill, which offers a glimpse of history beginning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modern times; and the bustling street of Bukseong-ro.

Many of you will recall the grandeur of Daegyeonsa Temple in the last scene of *The Slave Hunters*, and the beautiful campus of Keimyung University has been featured in over 100 films and dramas, including *Sandglass*, *East of Eden*, *Love Rain*, *Boys Over Flowers*, *Ditto*, and *Once in a Summer*. In fact, there is a high chance that a campus that struck you as beautiful in your favorite movie or drama is that of Keimyung University. The university’s Hanhakchon Village was the backdrop of the historical drama *Mr. Sunshine*.

Filming locations where memorable scenes are conceived appeal to not only filmmakers, but also photographers and tourists. Immerse yourself in Daegu’s world of stories, and create memories to look back fondly on. **k**

大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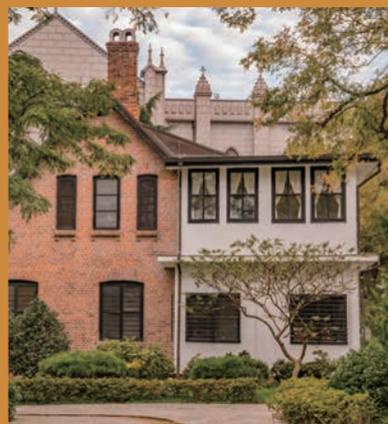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모던보이》 @ 챔니스 주택

재즈가 흐르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집 안. 주인공 해명은 구두를 고르고 페도라를 쓰더니 거울을 보고 말한다. “역시.”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에 눈 감은 채 신문물과 오늘의 낭만에 집중하던 그의 집으로 청라언덕에 있는 20세기 초반 선교사 저택이 등장한다. 의문의 여인을 사랑하면서 변화해 가는 ‘모던 보이’의 성장이 여기서 시작된다.

In an elegant house, home to the missionary Chamness in the 20th century, Hae-myeong puts on a fedora and admires his reflection. Korea is under Japanese rule, but he is indifferent to the country's pain. Everything changes when he falls in love.



영화 《수성못》 @수성못

오리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주인공 희정은 수성못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다. 대구 출신 유지영 감독이 지역 청년의 현실을 보여 주기 위해 선택한 장소가 수성못이다. 실제로 이곳을 산책하다 작품을 구상했다고. 대구 시민의 추억이 서린 대표 유원지는 오늘날에도 인기가 여전하다.

Hee-jung, who is working part-time while preparing to transfer to a university in Seoul, gets involved in a missing person case at Suseongmot Lake. Director Yoo Ji-young, born in Daegu herself, chose Suseongmot Lake to reflect the reality of struggling you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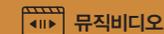


《어쩌다 발견한 하루》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성서캠퍼스

내가 엑스트라라니! 고등학생 단오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 만화 속임을 깨닫고 경악한다. 그럼 나는 작가가 의도한 ‘설정 값’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란 말인가. 자아가 생긴 엑스트라 단오의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하기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이 계명대학교. 단오가 자아와 첫 사랑을 지키려 분투하는 장면을 예쁘게 그렸다.

Dan-oh, a high school girl, is shocked when she discovers that she is merely a background character in a fantasy world of comics. She decides to take control of her life, and the events around her unfold on the beautiful campus of Keimyung University. She does her best to protect her identity and first love.



《업사이클링: 훌라》 @북성로

대구읍성 북쪽 성벽을 해체하고 조성한 길 북성로는 산업화 시기까지 대구의 중심가였다. 북성로 공구골목에는 무엇이든 만들고 고치는 장인이 모였다. 세월이 흘러 생기를 잃어 가던 동네를 눈 반짝반짝한 청년들이 찾았다. 버려진 부품을 주워 합주를 했다. 장인의 생애를 듣고 기술을 배우며 함께 놀았다. 재미있었다. 그 결과물이 업사이클링 밴드 훌라(Hoola)의 뮤직비디오다. 북성로에 폭 빠져지게 한다.

Bukseong-ro was the main street of Daegu up to its industrialization. The street's former energy has been restored thanks to a group of young musicians who enjoy playing upcycled instruments. Anyone who watches the music video titled *Upcycling: Hoola* will find the charm of Bukseong-ro hard to resist.



프로모션



봄 감성 대구 이월드

꽃이 피어오른다.
이월드 벚꽃 축제로 가자.



솜사탕처럼 풍성한 꽃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흔들린다. 벚꽃의 분홍색이 세상을 채워 달콤한 분위기가 흐른다. 따스한 공기에 간질거리는 몸, 어디로든 나가고 싶은 날 낭만 가득한 테마파크 대구 이월드로 떠나자. 계절 감성에 맞는 핫한 포토 존과 벚나무가 줄지은 길을 배경으로 한다면 인생 사진은 걱정 없다. 83타워와 테마파크 전역을 무대로 '이월드 별빛 벚꽃 축제: 블라썸 피크닉'이 열린다.

핑크빛 설렘의 벚꽃 캠핑, 이월드 블라썸 피크닉
대구의 랜드마크 83타워가 벚꽃에 빠졌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꽃에서 봄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 2300제곱미터(약 700평) 규모의 피크닉 가든은 힐링 존, 피크닉 존, 캠핑 존으로 구성되어 아이도 어른도 신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할 꽃구경, 나들이 장소를 물색



**365일 할인 혜택과 이벤트 소식은 여기에서!
대구 이월드 공식 인스타그램**



중인 이에게 후회 없을 선택이다. 상상력을 키워 주는 어트랙션과 귀여운 캐릭터 굿즈 등 아이가 신나 할 줄 길 거리도 충분히 준비했다. 스유티컵, 매직열차, 리미니가든, 뉴욕뉴욕 등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속 촬영지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낮에 구경하는 꽃도 좋지만 밤에 하는 꽃구경은 색다른 추억을 만든다. 야간에 더욱 아름다운 대구 이월드는 유럽 느낌의 영롱한 '빨간 2층 버스' 포토 존이 하이лай트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시즌별 특가 할인 혜택, SNS 이벤트, 연간 회원 할인 소식, 포토 존 등 알짜 정보를 게시한다. 특히 연간 가족 회원을 대상으로 3월 한정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니 알차게 이용할 좋은 기회다. 축제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대구 이월드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
문의 053-620-0001





지구를 위한 '친추'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친환경 추천 여행지를 선정했다. 환경을 생각하고 탐사하며 함께하는 여행을 떠난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는 새활용(up-cycling)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할 여행지로, 자체 아카데미를 운영해 새활용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새활용 도슨트와 함께 건물을 둘러보는 '새활용 탐방'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을 받는다. 새활용 DIY 키트를 주문해 집에서 우유팩으로 미니 파우치를 만드는 경험도 할 수 있다. 현재 재정비 중이어서 소재은행, 꿈꾸는 공장, 도서관은 자유 관람을 하기 어렵지만 탐방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관람 가능하다.

☎ 02-2153-0400
🌐 www.seoulup.or.kr



경기도 안산 대부해솔길

대부도 풍경에 가슴이 탁 트인다. 대부해솔길은 총 11개 길로 이루어진 생태 트레킹 코스다. 이 가운데 친환경 여행지로는 6코스가 딱이다. 대부도 펜션타운에서 시작해 창작센터, 청소년수련원, 불도 방조제를 거쳐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 탄도항까지 7킬로미터에 이른다. 탄도항에서는 계절마다 굴 따기, 파래 채취 등 다양한 갯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통 화석이 발견된 대부광산에서 자연의 신비를 느낀다. 서해안 의생태가 소중하게 다가온다.

☎ 1899-1720
🌐 tourinfo.ansan.go.kr



제주도 서귀포 상요원

꽃의 나라에 온듯 화사한 수목원이다. 제주 토종 한란·새우란과 100년 이상 자란 상록 거목이 제주 자연을 오롯이 보여준다. 엄마의 정원, 약용 식물원 등 16개 테마를 주제로 한 정원에서 꽃들이 매력을 뽐내는 곳곳을 친환경 전기기차를 타고 관람한다.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식물이 자라 언제 가도 휴식을 선사한다. 상요원식물자원연구소에서는 희귀 식물과 멸종 위기 식물을 보존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생물을 위한 노력이고맙다.

☎ 064-733-2200
🌐 www.sanghyowon.com



충북 제천 삼한의 초록길

의림지들 친환경농업단지에 있는 기존 농로를 탄소제로 길로 조성했다. 초록길 자전거 체험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자전거를 타고 너른 길을 달린다. 삼한 시대에 축조한 의림지와 가까워 연계해서 둘러봐도 좋다. 포도존과 그네정원, 전망대형 육교 에코브리지 등이 있어 2킬로미터를 구경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삼한의 초록길은 제천 자연치유특구로도 선정되어 친환경 정원, 생태공원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나날이 생기로워지겠다.

☎ 043-641-5962
🌐 tour.jecheon.go.kr



©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디자인재단), 제주상요원, 안산신호원, 안산산성, 제천시청

프로모션



파나소닉이 제안하는 휴식법, 리얼 프로 EP-MAK1

새 학기, 새 계절을 맞는 3월이다.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에 온몸을 맡긴 채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 토닥여 줄 때다.

아침저녁으로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에 외투 깃을 잔뜩 세우고 어깨를 움크린다. 꽃샘추위와 큰 일교차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이 계절,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은 확실한 휴식과 이완의 시간을 보장한다. 새 학기를 맞은 학생, 춘곤증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만성피로와 긴장으로 뭉친 어깨, 목, 건갑골 주위를 공들여 풀어 주는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활력을 얻어 보자.

나른함을 깨우는 마사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 책상 위에 팔을 걸치고 목을 앞으로 쭉 뻗, 지금 당신이 취하고 있는 바로 그 자세 말이다. 미동 없이 경직된 어깨와 팔 주위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심한 경우 통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의 업무와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리얼 프로 EP-MAK1의 온열 마사지 볼은 수평, 수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어깨선을 따라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하고, 어깨와 목 관절 주위를 시원하게 지압한다. 또 승모근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3D 주무르기 기능으로 건갑골 측면을 따라 입체적인 마사지를 제공해 어깨 결림은 물론 스트

레스까지 완화한다. 새로운 기능인 에어백 마사지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뚝 전체를 기분 좋게 자극해 뭉친 근육을 풀어 준다. 특히 놓치기 쉬운 엄지 관절 부위와 손바닥까지 에어백의 돌출부가 자극해 피로를 온전히 해소하도록 돕는다.

통증의 근원에 도달하다

지압, 두드리기, 스트레칭 등 다양한 마사지를 수행하는 리얼 프로 EP-MAK1에서 각별히 눈여겨볼 만한 기능은 회전 지압이다. 전문 마사지사 거머손가락으로 환부를 지그시 누르듯 약 10밀리미터 간격으로 마사지 볼이 회전하며 섬세한 압력을 가하는 기능으로, 파나소닉만의 독창적 기술을 적용해 구현했다.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리얼 프로 EP-MAK1을 사용하면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 마사지 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최대 3명의 사용자가 세 가지 부위를 조합해 설정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효율적이다.

문의 02-533-8452

한국의 보물

writer. 허문행(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Treasure of Korea



한글로 풀어낸 불교의 가르침
-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 한문 서적을 한글로 풀이해 보급하기 시작한다.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는 조선 왕실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편집해 간행한 책으로 15세기 우리말과 한글 활자의 조형미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다. 나중에 세조 임금이 되는 수양대군이 1447년 여러 불교 서적 가운데 석가모니의 삶을 구어체로 풀어 쓴 책이 〈석보상절〉이다. 오늘날 한글에 없는 글자와 음의 높낮이 표기법 등이 눈에 띈다. 〈월인석보〉는 1459년 〈석보상절〉과 세종이 노래 형식으로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합치고 수정한 책으로 〈월인천강지곡〉을 앞에 쓰고 〈석보상절〉로 이를 해설했으며, 작은 글씨로 보충 설명을 넣는 방식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4월 28일부터 진행하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에서 두 책을 만날 수 있다.

Buddhist Teachings in Korean
- *Seokbo Sangjeol and Worin Seokbo*

In 1446,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promulgated the Hunminjeongeum. This was followed by the translation of many book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nto the Korean language. *Seokbo Sangjeol* and *Worin Seokbo*, which are compilations of episodes from the life of Sakyamuni Buddha, highlight the aesthetics of the printed form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15th century. The two books will be showcased at the special exhibition titled "A Collector's Invitation: Commemorating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Bequest of the late Samsung Chairman Lee Kun-hee," which will run from April 28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02-2077-9000 🌐 www.museum.go.kr



CULTURE OF THE MONTH

빠키 작가가 디스플레이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승려 장인 새로운 길을 걷다'

우주,

아티스트 빠키는 색, 선, 면으로부터 폭발하는 에너지를 사랑한다.
그것이 열반의 풍경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나, 빠키





간밤에 꾸곤 총천연색 꿈이 채 날아가기 전에 캔버스에 옮기는 사람, 빠키는 수행자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호흡을 가다듬고 붓을 든다. 전화벨,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알림이 울리지 않는 적막하고 정결한 시간, 그는 잠이라는 깊은 명상을 통해 끌어 올린 에너지를 고요히 발산한다. “꿈을 자주 꾸요. 무언가 이상한 걸 만드는 꿈을 꾸는데, 그게 작업의 단초가 되곤 해요. 어릴 때부터 줄곧 형이상학적인 생각에 빠져들곤 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죽은 후 내 존재의 행방에 대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해요.” 존재의 심연에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 빠키는 실존주의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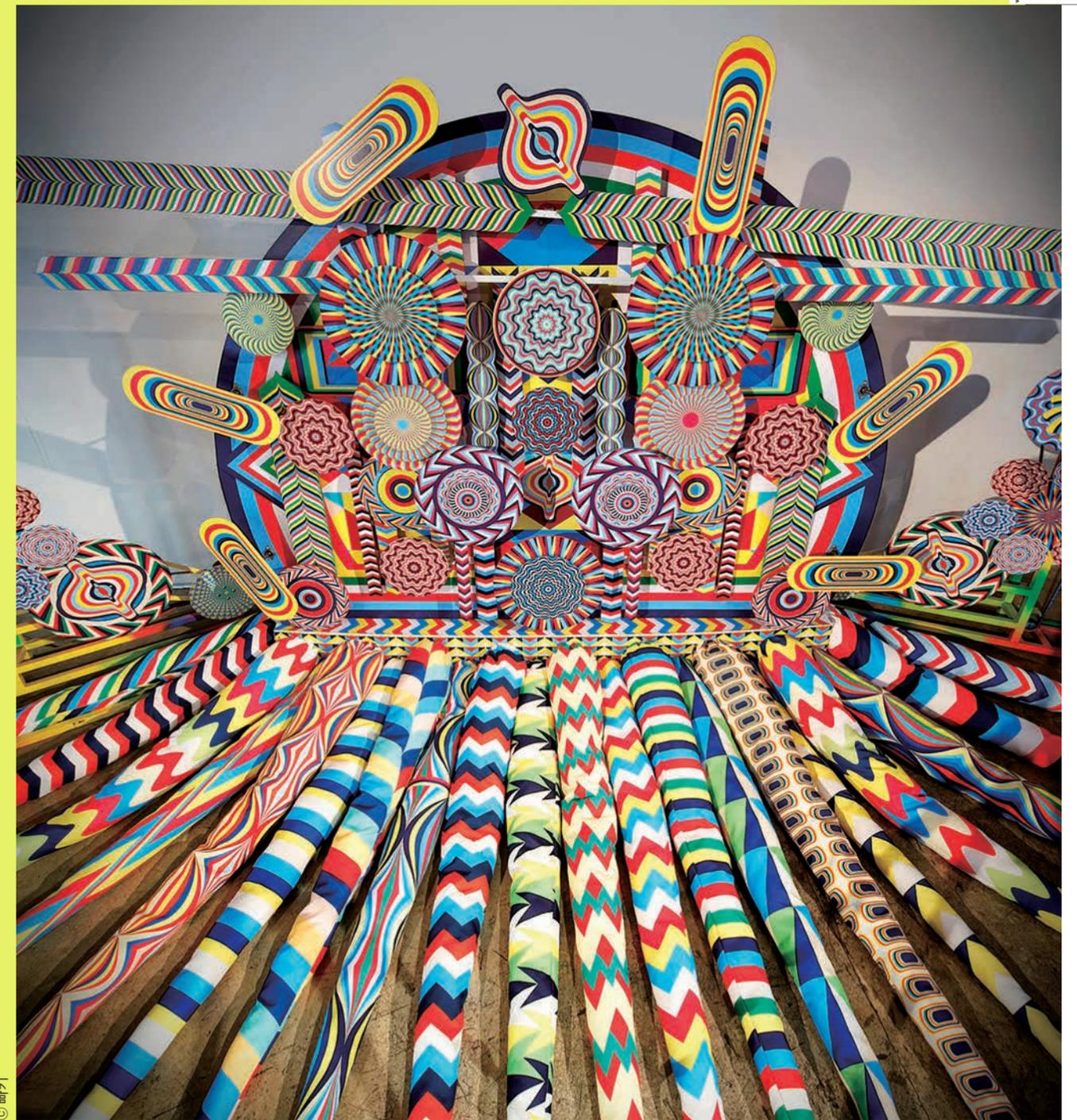
수행하는 화승처럼

3월 첫 주말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을 찾았다면 부처의 눈에 비쳤을 열락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불상과 보살상 일곱 점을 한데 모은 빠키의 디스플레이 작업 ‘승려 장인 새로운 길을 걷다’가 <조선의 승려 장인>전의 대미를 장식하기 때문이다. 은은한 오라에 휩싸인 유물은 기하학무늬가 이루는 무아지경 속에서 더욱 형형한 존재감을 떨친다. 그 모습을 가

만히 응시하는 동안, 4차원의 만다라를 부유하는 듯한 기분에 빠진다.

<조선의 승려 장인>전에서 주목하는 것은 불교 미술의 주체인 화승과 조각승이다. 그리스신화에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있다면, 불교에는 최초의 불상을 만들고 신통력으로 건물을 지어 올린 천신 비수갈마천이 있다. 비수갈마천은 승려 장인이 도달하고자 한 이상향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수갈마천의 모임’이라 부르며 예술가로서 자존을 드높였다.

승려 예술가와 에너지가 통하는 ‘현대미술계의 비수갈마천’을 물색하던 전시 주최 측은 2017년 국립한글박물관이 미국 LA 문화원에서 개최한 세종 탄생 620주년 특별 전시 <소리×글자: 한글 디자인>에 참여한 빠키의 작품을 눈여겨봤다. 우주의 섭리, 순환의 리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빠키와 불교미술은 확실히 통하는 데가 있었다. “관객들은 이 일곱 점의 불보살을 마주한 다음 단원 김홍도의 ‘서방정토로 오르는 승려 뒷모습’을 맞닥뜨려요. 이 절정의 국면에서 강한 기운을 방출할 수 있는 현대 작가를 찾았다고 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죠.” ‘순환, 궤도, 생성’은 2020년에 열린 빠키의 개인전 제목이자, 그의 범우주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열쇳말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무의식의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긴 채 색, 선, 면



© 빠키

빠키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시청각 자극으로 의식을 고양했다. 지금까지도 미술과 음악은 그의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한 후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예술학교에서 아트 사이언스를 공부했으며, 현재는 ‘빠빠빠 탐구소’라는 1인 스튜디오의 탐구 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탐구 대상은 에너지, 경계 그리고 빠키 자신이다. 영상, 키네틱 아트,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를 넘나들면서 작업해 왔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에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실험을 거듭하는 중이다.

의 조화를 꾀했다. 이 조형 요소들은 우연한 배치와 구성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빠키의 관심은 이 조형적 관계가 발산하는 힘에 있다.

불교미술과 빠키가 조우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평상시 키네틱 아트(움직임을 활용한 조형 표현)나 인터랙티브 아트(관객의 움직임에 감응하는 미술 작품)를 아울러 과감한 시도를 서슴지 않은 그는 이번엔 색, 선, 면 등 기하학 요소로 평면을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유물과의 조화로운 구성은 물론, 유물의 안전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움직임을 부여하고 싶었어요. 불화, 불상에서 느낀 힘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안정과 조화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지금의 결과물에 다다랐어요. 좌대도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었죠. 유물의 무게와 형태를 고려해 모든 요소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다듬었거든요.”

반응은 뜨거웠다. 관객은 일곱 점 조각을 아우르는 형형색색의 풍경에 열광했다. 보수적인 종교계도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라며 호평했다. “기존의 반응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불교미술과 제 작업의 접점에서 예기치 못한 불꽃이 튼 모양이에요. 제가 그간 해 온 작업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작가로서 어떤 지점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승려 예술가와의 느슨한 연결 고리를 발견한 것 또한 즐거웠어요.”

착시, 반복, 무의식

옵아트(optical art)는 점, 선, 면 등 조형 요소를 반복·확장해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추상미술 장르다. 빠키가 옵아트 형식을 취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화려한 색이나 기이한 무늬에 그치지 않는다. “시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컬러풀한 조형 작업이 주를 이루지만, 그 이면엔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색으로써 인간의 원초, 근본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요.” 빠키는 모든 인간을 우주 속 티끌 같은 존재로 본다. 우리는 그 티끌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간다. 멀리서 보면 이 티끌의 형태는 무한한 반복과 확장을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만든다. 빠키는 그 생성과 순환, 중첩의 과정을 ‘리추얼(ritual)’로서 고양하는 일을 벌인다.

2015년 대림미술관의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에서 열린 <빠키: 불완전한 장치>전은 빠키가 자신의 조형 언어를 얼마나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 준 기회였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려 해요.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그저 불안과 ‘불완’의 상태로 존재하죠.” 빠키에게 ‘리추얼’은 불완전한 장치인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 행위가 빚어 낸 우연의 산물이다. 이 전시에서 그는 행동심리학자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의 유명한 미신 실험을 경유한다. 스키너는 비둘기를 실험 상자에 넣고 15초마다 먹이를 반복적으로 주었는데, 비둘기는 다음 먹이를 주기 전 저도 모르게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 사람들이 미신을 갖고

PLAYVAK



빠키는 모든 인간을 우주 속 디폴 같은 존재로 본다. 우리는 그 디폴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간다. 멀리서 보면 이 디폴의 형태는 무한한 반복과 확장을 이루며,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만든다. 빠키는 그 생성과 순환, 중첩의 과정을 '리추얼'로서 고양하는 일을 벌인다.



© 빠키

제의를 벌이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제가 창조한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전시장 전체에 부여했어요.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각기 다른 패턴의 영상을 제시하기도 하고, 회전하는 조형물을 놓아 시각적 유희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저의 ‘의식’이자 ‘놀이’로 여겼어요.” 무의식과 꿈, 상상으로 이루어진 빠키의 세계는 원초적 즐거움을 일깨우고, 자유 의지를 각성하게 한다.



리듬 타는 구도자

“회화도 음악 같은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음악을 추상화로 표현한 칸딘스키의 말이다. 음악의 선구자 빅토르 바사렐리는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점, 선, 면이 자아내는 리듬에서 영감을 받았다. 앞선 예술가들이 그러했듯, 빠키 또한 자신만의 고유한 조형 언어를 직조하고자 음악과 리듬을 동원한다.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예술학교에서 수학했을 만큼 사운드에 대한 그의 애착은 상당하다. “다양한 매체에 관심이 많지만, 사운드와 리듬은 언제나 제작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사운드를 수집하는 채음(採音) 작업을 지속하는 이유예요.” 빠키에게 음악을 함께 듣는 일은 취향의 공동체



를 만들고, 서로의 파동을 느끼는 행위다. 그의 음악적 시도는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입주작가전의 연계 퍼포먼스 <마인드-바디 프리블럼: 무의식의 재배열>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그는 이 전시에서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하는 사운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조형요소를 나열한 평면 작업을 선보였다. 이후 2021년 인사동 KOTE에서 열린 전시 <규칙과 불규칙의 리듬>에서는 직접 DJ로 나서 음악을 틀기도 했다. 올해는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이와 그만의 파동을 나눌 예정이다. “3월에는 아마 독일 베를린에 있을 거예요. 초대전에 참여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디제잉 공연을 펼쳐 보려고요.” 빠키는 최근 제주와 강원도 양양 등지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다. 막연히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주에 머물 기회가 생겼다. “팬데믹 이후 움직임이 정체됐지만, 예전엔 새롭고 낯선 지역에서 발견하는 사물을 수집해 작업으로 연결시키기도 했어요. ‘빠빠빠 비디오 프로젝트’와 ‘서울 어반 아트 프로젝트’가 그 결과물이죠. 지역에서 느끼는 감흥을 표현했던, 이제는 아득한 과거가 된 작업이에요. 앞으로는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요. 서울을 벗어나 조금 더 많은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의 리듬, 무의식의 흐름, 우연의 바닷속에서 그가 부딪히 더 넓은 세상과 부딪히길, 더 큰 에너지를 쏟아내길 바란다. **㉠**

선거

오!
와!

VOTE

내 결정이 세상을 바꾼다!



한 표에서 시작되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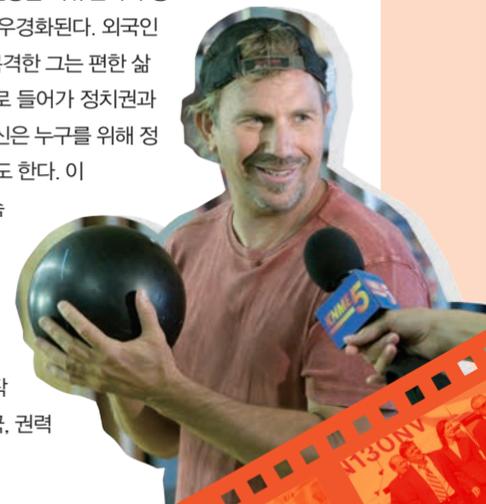
수많은 내가 모여 우리가 되고, 내 작은 한 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3월을 맞아 선거 관련 영화를 통해 우리가 가진 힘을 확인해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믿기 힘들 만큼 광활한 우주에서,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의 티끌 같은 존재라고. 수를 어렵잡기조차 힘든 생명들 사이를 별 도리 없이 부유하는 존재라 여기기도 쉽다. 세상은 넓고 생명은 무수한데 홀로인 나는 너무 작다.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미약하니 굳이 애를 써 본들 삶이, 미래가 변할까. 영화 <스윙 보트>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대통령 선거 결과 두 후보가 동률을 이루었다. 선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주인공 버드만 재투표해야 한다. 그의 한 표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한다. 그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예정이다. 영화이기에 한 표의 의미를 극적으로 그렸지만, 사실 표의 무게는 전부 똑같다. 선거 결과는 무수한 고민과 선택이 모이는 도착지이며, 버드는 조금 늦게 그곳으로 출발했을 뿐이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3월 9일, 버드의 선택과 다르지 않은 한 표가 주어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밝아지도록 힘쓸 일꾼을 이날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국회의원 선거도, 주민 대표나 학급 반장 선거도 본질은 동일하다. 나를 대신해 공동체를 돕고 이끄는 대표, 그를 뽑을 권리를 가진 나, 그리고 돌을 하나로 묶는 선거는 공동체의 초석이자 뼈대다. 선거가 사회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결정이 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버드의 사례가 알려 준다. 극적으로 그리되, 그래서 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화 속 선거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한다.

희망으로 나아가려는 용기

공자는 정치의 뜻을 묻는 제자를 향해 "먼저 앞장서고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봉사가 천명인 위정자에게 솔선수범과 성실보다 중요한 덕목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바운더 더 웨이브>는 인기 배우에서 행동하는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일본인 야마모토 타로의 일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았다. 2011년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급격하게 우경화된다. 외국인을 혐오하고 국가를 최우선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의 민낯을 목격한 그는 편한 삶을 포기하고 참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로 들어가 정치권과 매스컴이 덮으려 하는 실상을 직시한 뒤였다.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따지고, 원전 사고의 적나라한 현실을 편지로 써 왕에게 보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반대 세력에게 협박받아도 멈출 수 없다. 대립을 부추기는 선동에 속지 않는 지성과 모두가 알겠다면 눈감는대도 "아니"라고 소리치는 용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미미할지언정 사회를 차츰 변화시킬지 모르는 야마모토 타로의 참의원 당선은, 뜻 있는 시민이 행사한 한 표가 뭉친 결과라는 것. 영화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다. 하지만 주지하듯, 선거는 희망이자 좌절이기도 하다. <맹크>에서 주인공인 작가 맹키워츠가 영화 시나리오 집필을 결심한 계기가 그러했다. 1930년대 미국, 권력





에 허기진 정치인과 돈이 공한 영화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라는 접점에서 만난다. 영화사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배우를 동원해 거짓 홍보 영화를 제작하고, 후보는 결국 주지사에 당선된다. 이를 지켜본 맵시워츠가 환멸을 느껴 쓴 시나리오, 영화사 최고 걸작 중 하나인 〈시민 케인〉이다. 선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다소 어렵게 표현했으나, 이 또한 주권자가 종종 당면해 온 현실이었다. 볼리비아 대선에 뛰어난 선거 전문가가 지지율이 바닥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스토리 〈프레지던트 메이커〉, 정치는 연극이고 선거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믿는 사람들의 시장 선거 참여기 〈이리저터블〉 역시 때로 익살을 버무린 장면에 진지하게 곱씹어 볼 주제를 새겨 두었다. 〈특별시민〉은 선거 과정의 단면을 묘사한 한국 영화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닌 사람이 믿게 만드는 게 선거라 규정하는 시장 후보 변종구가 '선거꾼'에 가까운 전략가 심혁수를 파트너로 선택한다. 상대 후보도 승리하고자 저열한 행위를 벌인다. 조직과 협잡하고, 검은돈을 주고받고, 자신의 치명적 과오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후보들의 악행은 시민만 바라보겠다 약속하는 서글서글한 얼굴 뒤에 숨어 버린다. 누가 당선되든 불의한 대표자가 탄생하는 불의한 후보들의 맞대결이 세계 역사에 기록된 몇몇 부조리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주지하듯, 하나하나 희망이고 좌절이기도 한 선거는 주권자들의 한 표가 그러한 것처럼 기여한 한 곳으로 모여든다. 공동체가 다다라야 하는 곳,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그곳엔 사랑과 평등의 가치만이 진실이 되어 줄 것이다. 〈오직 사랑뿐〉이 선거를 소재 삼아 전달하는 이야기엔 이런 꿈이 담겼다. 1940년대, 아프리카 국가 베추아날란드의 왕자 세레체 카마와 영국 출신 속기사 루스 윌리엄스가 만나 사랑을 키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레체는 청혼하고 루스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작은 나라 베추아날란드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국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둘의 결혼을 반대한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면서, 루스를 여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 세레체를 굴복시키려 획책하는 영국의 탐바구니에서 세레체는 추방되고 만다. 이견 타고난 걸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한 미육한 시대의 실책 중 하나일 뿐이다. 다름과 틀림을 동일시하는 동안 인류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저질렀는지.



영화는 1966년 보츠와나공화국 건국 실화를 각색했다. 실제 인물 세레체는 왕권을 포기하고 선거를 통해 보츠와나 초대 대통령이 된다. 루스는 여성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다. 왕위에 연연하지 않고 탄압을 감내하면서도 반력자를 향한, 자국민을 위한 진심을 내보인 둘에게 결국 사람들은 표를 던졌다. 사랑과 평등의 가치만이 진실이 되어 주는 세상, 여전히 작은 나라 보츠와나가 우리에게 그곳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

내 결정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새삼스러워도 이쯤에서 상기해 본다.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짓는 선거에서 공동체의 절반을 배제한 시절이 존재했다는 사실.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늦은 축인, 한국보다도 늦은 1971년에야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다. 역사는 말한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신분제, 노예제도, 독재에 따른 억압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외쳐도 그런 처우에 맞서기 힘들다. 〈거룩한 분노〉의 주인공 노라는 그런 각성의 과정을 거친다. 가부장이 절대 권위를 가지는 스위스 시골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던 그에게 부당한 사건들이 들이닥친다. 그리고 우연히 여성 참정권에 대한 글을 읽은 뒤,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을 깨닫고 일어나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 왜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가정의 소유물이 되었는가? 용기 내 외치고, 뜻을 함께할 사람을 모으고, 변화를 주도한다. 비난이 쏟아지지만 멈출 수 없다. 아마모토 타로처럼, 어떤 시대든 지성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서프러제트〉, 2018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를 들여다보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에서도 용기를 내 일어난 이들의 외침을 듣는다. 메아리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같이 나아가는 일 또한, 주권자에게 투표가 그런 존재이듯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임을 기억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레타 툰베리〉에서 스웨덴의 열다섯 살 학생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1인 시위를 벌인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 기후 위기를 핵심 의제로 정하라 요구한다. "위기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모든 눈이 당신을 향합니다." 인류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대다수에게 그레타의 행동은 반향을 일으킨다. 그에게서 비롯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 동맹 휴학이 스웨덴을 넘어 각국으로 퍼졌고, 세계 곳곳에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정당이 괄목할 결실을 거두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미약한데 굳이 애를 써 본뜬 삶이, 미래가 변할까? 삶도 미래도 변한다. 우리가 함께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결정에서, 미래 세대가 주목하는 나의 한 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k**





400년을
간직한 맛

BUSHMILLS

© Bushmills



부시밀

영국 아일랜드의 한 증류소가 1608년 영국 왕에게 위스키 제조 허가를 받았다.

아이리시위스키, 아니 위스키의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부시밀이다.

“가장 오래되어서 최고가 아니다. 최고이기에 가장 오래되었다.” 우리는 부시밀 마스터 디스틸러인 콜럼 에건의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1608년에 세계 최초로 증류 면허를 받아 지금껏 400년 넘는 세월 위스키를 만들어 온 부시밀 아닌가. 조선 시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영국에선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을 발표한 해와 같다는 표현 정도로는 부시밀의 기념비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가장 오래된 위스키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숫자는 잊고 당장 부시밀을 열어 보자. 값비싼 세리 캐스크에서 숙성해 더 그윽한 과일 향이 감미로이 번진다. 위스키가 글라스 벽을 타고 내려오는 자국, ‘위스키의 눈물’이라 부르는 레그가 그림 같은 흔적을 남긴다. 황홀할 만큼 부드러운 목 넘김 뒤에도 계속 입안을 감도는 향기. 이미 숫자는 망각했다. 오직 부시밀 세 글자가 뚜렷하다.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위스키를 맛본 대부분이, 아주 조금 과장해 모두가 마찬가지로였다.

오늘날 세계 위스키 시장을 주름잡는 지역은 영국 스코틀랜드와 미국이다. 각각 스카치위스키, 버번위스키를 제조하는 두 지역에선 맥켈란, 발렌타인, 조니 워커, 와일드 터키, 버팔로 트레이스처럼 이름부터 심장을 강타하는 걸작이 대거 탄생했다.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흥행하는 두 지역 위스키 사이에서, 현재 영국 아일랜드의 아이리시위스키는 하루가 다르게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매출 실적 따



위와는 별개로 그런 표현은 아일랜드 사람에게 무례하게 들릴 테니 말이다. 위스키 좀 아는 마니아에게도 코웃음 나오는 표현인 건 마찬가지다. 아일랜드는 구전과 기록을 종합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위스키를 만들고 즐긴 나라로 추정된다. 11세기경 수도사들이 지중해에서 증류 기술을 들여온 이야기, 13세기 아쿠아비타(생명의 물)를 마신 병사들이 용맹하게 싸웠다는 이야기, 15세기 한 수도원의 아무개가 과음 끝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이야기 등등. 지구에서 최초인지는 역사학자가 밝힐 문제이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떤 민족보다 위스키를 사랑하고 장기적으로 즐겨 왔다는 사실은 밝힐 필요 없는 정설이다.

아이리시위스키의 역사, 부시밀

그럼에도 누군가가 아이리시위스키에 대해 반박 불가능한 사실 하나만 내놓아 봐라 하거든 부시밀로 대답하면 된다. 전술했듯 1608년, 지금의 북아일랜드 앤트림주 자그마한 마을 한 증류소가 영국 왕 제임스 1세에게 위스키 증류 허가를 얻어 낸다. 스카치위스키보다 200년 앞서 면허를 받은 증류소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밀주가 성행하던 시대에 당당하게 위스키를 빚었다.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쳐 현무암 암반 위를

흐르는 부시강의 맑은 물로 빚은 위스키는 18세기 아이리시위스키의 부흥을 이끈다. 부시밀에서 정식 출발한 아이리시위스키가 날로 명성을 쌓아 1700년대 중반 아일랜드에만 무려 1200여 곳의 증류소가 있었을 정도로 대호황을 맞이했다. 치열해진 경쟁 탓에 증류소들이 질 낮은 위스키를 양산하고, 20세기 들어서는 아일랜드 독립 전쟁, 영국과의 무역 마찰, 미국 금주법 등으로 위스키 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받는 중에도 부시밀 증류소는 끈기있게 운영을 이어갔다. 수백 년간 중첩된 변화로 인해 1960년대 아일랜드엔 오직 두 개의 위스키 회사만 살아남았으며, 1972년에는 결국 한 곳만 아이리시위스키의 명맥을 잇게 되었다. 증류소들이 분열되고 통합하는 고단한 시대가 마무리된 오늘날, 아이리시위스키는 또 한 번의 부흥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이는 아일랜드 증류소 가운데 부시밀은 단연 돋보인다. 두 번 증류하는 스카치위스키와 다르게 세 번 증류해 향이 부드럽고, 특수 효모를 입힌 세리 캐스크에서 숙성하기에 맞은 더없이 풍부한 부시밀. 맛보는 순간 망각해 버린 400여 년 역사를 굳이 떠올려 보면서 천년의 부시밀을 상상한다. 그때도 아일랜드 작은 마을 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는 말할 것이다. “가장 오래되어서 최고가 아니다. 최고이기에 가장 오래되었다.”

북아일랜드 앤트림주 부시강의 맑은 물로 만드는 부시밀은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컴퍼티션 등 세계 유수 주류 품평 대회를 석권하면서 대중과 비평가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안전하고 든든한 역무실로 오세요

기차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기차에서 내린 뒤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전충청본부 오송역 소속 김명신 역무팀장과 배소형 역무원을 만나 안전한 기차 여행을 책임지는 역무실 생활에 대해 들어 보았다.



아직은 얼떨떨한
신입 역무원 배소형입니다.

인생의 봄을
철도와 함께한 김명신입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역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김명신(이하 김)** 역무팀장 김명신입니다. 승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역내 시설물을 꾸준히 점검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를 돕고자 수시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을 처음 방문하는 승객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배소형(이하 배) 역무실에서 행정 업무 지원 및 서무를 담당하는 역무원 배소형입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려 자동 손소독 기계와 온도계를 점검하고, 발열 체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중한 승객을 역무실에서 응급처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지난해 12월 17일의 일입니다. 조용한 역무실에 급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엔 피에 흠뻑 젖은 한 남성 승객이 있었습니다. 찢긴 눈초리에서 피가 흘러 마스크까지 붉게 물든 상태였습니다. 접견실 소파에 눕힌 뒤 얼굴을 닦아 내며 보니 구강 출혈이 심하게 치아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인계된 승객은 CT 촬영을 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고 호전됐습니다.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남기셨지요.

배 저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팀장님을 도와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닦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승객을 진정시키려고 옆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가 묻은 마스크를 새것으로 갈아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간 역무실에서 대처한 응급 상황이 많았겠습니다. **배** 오송역은 이용객 수가 꽤 많은 편이라 부상을 입고 역무실을 찾아오는 승객이 적지 않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채 역무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옛된 승객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역무실 안으로 안내해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 주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승객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혹시 상처가 덧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요.

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짐을 챙기려 몸을 돌렸다가 낙상 사고로 이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역을 순회하던 제가 승객을 발견한 즉시 에스컬레이터의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구조했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덕에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비상 안전 대비 교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배** 한국철도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승객 안전 확보이니만큼 비상 대응 훈련,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크고 작은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김 소방 훈련을 상·하반기 1회씩 합니다. 응급처치, 구급상자 이용법 등 위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매 분기 오송역 자체 교육도 실시합니다.

역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김** 제 작은 노고를 헤아려 주시는 승객의 존재 자체가 보람입니다. 함박눈이 쌓인 어느 새벽, 누군가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눈을 쓸던 제게 “늘 이렇게 눈을 치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라는 인사와 함께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을 건넸 승객이 생각나네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새벽은 어느 때보다도 제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배 역무원의 가장 큰 매력은 철도 현장의 생생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해집니다. “고맙다”라는 한마디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다시금 힘내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승객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어린 시절 부모님과 여행을 떠날 때면 항상 기차를 타곤 했습니다. 제가 그랬듯, 기차를 타는 모든 분이 아름다운 추억을 쌓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제 젊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기차 여행을 통해 희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 전국의 역무원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충실히 하는 역무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도 즐겁고 안전하게, 오송역 이용 가이드

- 2층 매표창구 옆 역무실에서는 구급약을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돕습니다.
- 2층 맞이방 관광안내소에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 3층 서편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북 카페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이용 가능합니다.
- 3층 호두과자 가게 옆 유실물 안내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세요.

→ **Book** 신간 

〈자연을 사랑하는 법〉

책을 열면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자이자 작가 존 뮤어의 말이 독자를 맞는다. “사람은 자연과 함께하는 발걸음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잠시 멈추고 생각한다. 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저자는 오랜 시간 도시에 살았지만 옛 기억의 뿌리인 자연을 잊지 못해 주말마다 강원도 두메산골로 갔다. 거기서 기적을 목격한다. 싹이 움트고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다른 무엇으로 설명하겠는지. 순환하는 생명이 경이로워 펜과 색연필을 잡고 옮겼다. 생명, 사랑,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는 기적 같은 자연을 담백한 글과 세밀한 그림에 담았다. 자연과 함께하는 오늘에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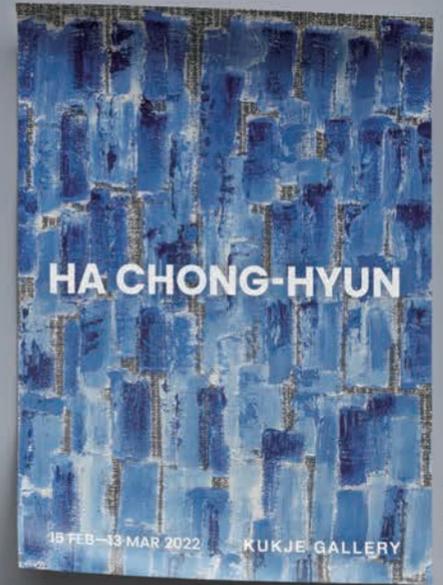
이순우 지음 목수책방 펴냄



→ **Exhibit** 전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A CHONG-HYUN〉

한국 단색화 대표 작가 하중현이 대규모 개인전을 연다. ‘회화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평생 유화 작업을 이어 온 작가의 색채 실험과 물성 탐구를 망라하는 자리다. 기존 ‘접합(Conjunction)’ 연작과 여기에서 비롯한 다채색 ‘접합’,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 공개하는 ‘이후 접합(Post-Conjunction)’ 연작 등이 섬 없이 확장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보여 준다. 이 중 청색과 흰색을 아우른 2021년 작 ‘Conjunction 21-38’에선 단색화의 틀을 넘어 시대 흐름을 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엿본다. 이번 전시 뒤 하중현은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베니스 팔라제토 티토에서 회고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 3월 13일까지 문의 02-735-8449(서울 국제갤러리)



© 국제갤러리



〈시화기행 1: 파리, 고요한 황홀〉

예술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 없다. 도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예술이 모여드는 곳이며, 예술을 살아 올리는 원동력이다. 화가 김병중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다. 피카소, 카뮈 등 예술가 30여 명의 흔적을 좇았다. 예술 도시 파리를 꽃피운 영혼들 속에서 “검붉은 석류의 알맹이”처럼 여린 존재를 만나기도 했다. 이를 시와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 셋을 묶었다. 화가의 눈으로 본 파리가 사랑스럽다. 김병중 지음 문학동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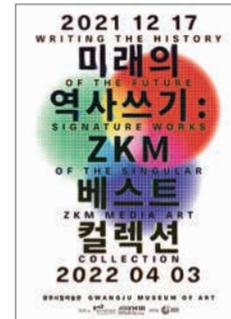
〈최선의 육아〉

열심히 준비했어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깨닫는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그렇다. 갓난아이가 깨서 새벽 내내 운다. 엄마도 못 잔다. 여러 날 같은 상황의 반복. 엄마는 그저 운다. 울다 겨우 진정한 엄마를 본 아이는 그제야 잠든다. 집지에 글을 쓰던 저자가 엄마로 산 14년을 덩덤하게 말한다. 부족해도 괜찮다고, 부족한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세상 모든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강나영 지음 폭스코너 펴냄



〈호수의 일〉

열일곱은 봄이고 겨울이다. 깔깔 웃다가도 문득 차가워져 입을 꼭 다문다. 소설 주인공 호정은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자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내 마음이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족 사이의 갈등, 첫사랑의 두근거림이 내면에 깊은 갈래를 낸다. ‘사춘기’ 꼬리표가 붙은 열일곱의 시간이 온통 흔들린다. 〈푸른 사자 와니니〉의 작가 이현이 10대의 예민한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현 지음 창비 펴냄



〈미래의 역사 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

미디어 아트 역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세계적 복합 예술 미디어 센터인 독일의 예술과 미디어센터(ZKM)가 소장품 95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게리 힐 등 64명으로 사진·비디오·인터랙티브·컴퓨터 기반 설치 작품을 여섯 섹션으로 나눠 전시한다. 각 나라 예술가들이 미디어를 매개로 행해 온 미학적·사회적 실천과 그 미래를 살핀다. 기간 4월 3일까지 문의 062-613-7100(광주시립미술관)



〈ALEX PRAGER, BIG WEST〉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고향인 포토그래퍼 알렉스 프래거는 영화 산업에서 영감받은 이미지를 사진과 영상에 담아낸다. 인물과 구도가 미스터리하게 보여도 색감을 과장하거나 내밀한 찰나를 우연인 듯 포착하는 방식으로 인간 감정을 순도 높게 묘사한다. 정교한 미장센으로 찰나와 내면을 드러내는 사진과 영상 작품 100점이 영화 같은 순간을 기억에 남긴다. 기간 6월 6일까지 문의 1544-7744(서울 롯데뮤지엄)



〈아워세트: 아워레이보 x 권오상〉

권오상과 크리에이티브 그룹 아워레이보가 만났다. 한쪽은 조각의 개념을 전복해 왔고, 한쪽은 공간 구조를 혁신하는 예술을 펼친다. 권오상의 연작 ‘데오도란트 타입’에 아워레이보가 조명을 비취 패션쇼 장면처럼 느껴진다. 권오상의 작품 35점에 아워레이보가 연출을 더한 총 9개 세트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전이를 목격한다. 기간 5월 22일까지 문의 031-228-4195(경기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리지>

보든 가문의 하녀 브리짓 설리번은 이 집안의 둘째 딸 리지 보든의 비명과 함께 그의 부친 앤드루 보든의 시체를 발견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벌어진 '리지 보든 살인 사건'을 토대로 만든 록 뮤지컬 <리지>는 1990년 단 네 곡의 넘버로 이루어진 실험극으로 시작해 2009년부터 뉴욕 오프브로드웨이에서 꾸준히 공연 중이다. 한국에선 2020년 초연한 후 2년 만에 돌아왔다. 살인 혐의로 재판 중인 리지, 리지의 언니 엠마, 단단한 내면을 지닌 이웃 앨리스, 하녀 브리짓까지 총 네 명의 여성 캐릭터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기간 3월 24일~6월 12일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02-3845-8700



<드래곤즈>

아시아 5개국 2000년생 용띠 무용수들이 온다. <드래곤즈>는 부산문화회관이 동시대 춤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프랑스 파리시립극장, 리옹 댄스 비엔날레 등 세계적 파트너와 의기투합한 결과물이다. 3D 입체 영상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동원해 용의 힘찬 기운을 표현한다. 무용가 안은미가 예술감독으로 '밀레니엄베이버'를 이끈다.

기간 3월 4일~5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문의 051-607-6000



<세 자매, 죽음의 파티>

안톤 체호프의 희곡 <세 자매>가 원작으로, 현대인이 경험하는 도시 생활의 부조리와 회의감을 파고든다. 연출가 나진환은 대사와 연기를 강렬한 안무와 노래로 확장하는 '시어터 댄스' 형식을 통해 남루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극단 피막 창립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선보이는 인문학적 성찰 시리즈의 열한 번째 작품이다.

기간 3월 3일~20일 장소 서울 씨어터 콤
문의 050-6123-4423



<요한수난곡>

중세 이래 유럽에서는 매년 사순절에 수난곡을 연주하는 전통이 있다. 상제 자 슈 합창단이 수난 주간을 맞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요한수난곡'을 선보인다. 고전음악을 사랑하는 연주자들의 모임인 알테 무지크 서울이 오케스트라를, 오라토리오 스페셜리스트인 테너 김세일이 복음사가를 맡아 공연을 풍성하게 한다.

일시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아트센터 인천
문의 070-4110-8290

프로모션



안티에이징의 새 이름, 프리주비네이션

좋은 체력과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젊음을 유지하는 의학 트렌드는 항노화에서 노화 예방으로 바뀌고 있다. 노화가 시작된 피부나 신체 등에 행하는 리주비네이션(재생술, 회춘술) 대신에 프리주비네이션(예방 목적의 재생술)이 떠오르는 것이다. 줄기세포 안티에이징·항노화 치료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에게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에 대해 들어 봤다. 조찬호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은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전에는 얼굴 주름과 피부 처짐, 떨어진 체력, 약해진 면역력 등이 드러난 뒤에야 의학적 처치에 나섰다. 최근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미리 관리를 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다.

물론 기존 안티에이징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노화 징후를 지우는 것보다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좋은 체력과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예방 목적 치료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는 노화한 얼굴이나 체력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좋은 컨디션과 젊은 외모를 오래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제적 치료로 젊음 유지

프리주비네이션 치료를 반복할 경우 노화를 지속적으로 미룰 수 있다. 이는 피부 노화는 물론 노화로 인한 컨디션 저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체력이 고갈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질 무렵에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맞게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프리주비네이션에서 주목할 개념이 줄기세포 치료다.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처방한다. 노화 요인을 분석하고 젊을 때 활력 넘치는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주력하는 방법으로는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인 '청셀(淸Cell)'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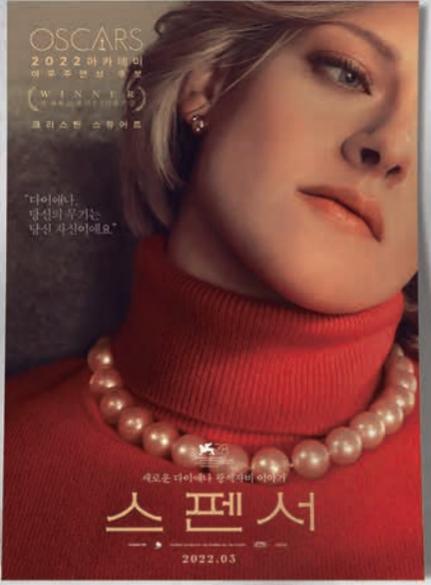
이 있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하면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백질 항상성 유지로 체력 증진, 항산화 효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복구, 텔로미어 복구 등을 통해 체력을 오래 이어가도록 도움을 준다. 타깃 부위에 줄기세포를 집중 투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 기능을 개선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 및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손상된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 등이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취약점을 미리 알고 노화에 대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명과학 의료 기기 회사 (주)베스테크와 지방 유래 줄기세포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활용해 전신 항노화, 탈모 치료, 주름·처짐 등 피부 노화 개선, 성 기능 개선, 통증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치료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포부다. 조찬호 원장은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는 노화를 영원히 막는 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주치의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시술하고, 개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최근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노화가 나타나기 전 미리 조치하는 20·30대도 많다. 이들은 대개 피부, 탈모 등 외적 노화 예방에 관심이 많다. 현재보다 탄탄한 페이스 라인을 위해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에 나서서 것. 또 '가성비 시술'보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포미(FORME)족'이 증가하는 등 고가의 효과 높은 치료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미용 치료를 고려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조찬호 원장은 "미래 의학은 병이 발병하고 난 뒤 치료하는 것보다 병을 막는 데 집중한다"라며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게 건강과 경제적 면에서 모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펜서>

영국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펜서의 이야기를 스크린에서 만난다. 1991년 12월,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왕실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왕실 소유 샌드링엄 하우스에 방문한다. 남편 찰스 왕세자의 불륜으로 괴로움에 빠져 있던 그는 이곳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배우 크리스틴 스투어트는 왕실의 과도한 압박과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간 다이애나의 내면을 표현한 열연으로 전 세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26개를 거머쥐었다. 그가 실제 입은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촬영하는 등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살렸다. 3월 16일 개봉.

감독 파블로 라라인
출연 크리스틴 스투어트, 샬리 호킨스



<고양이들의 아파트>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로,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도시 아카이빙 프로젝트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고양이 주민이 산다. 거주 공간을 쉽게 바꾸지 않는 정주성을 지닌 고양이를 위한 곳에서 이주시키려는 노력을 담았다. 사려 깊은 촬영으로 도시 속 고양이의 삶을 비추며 생태, 동물권, 환경 등 여러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3월 개봉.

감독 정재은 출연 김포도, 이인규



<아저스트 버진>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30대의 고민과 방향을 그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무더운 여름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에바는 휴가를 가는 대신 도시에 남아 8월 성모 승천대축일 축제로 들뜬 거리를 거닌다. 그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에바가 보낸 8월 한 달의 일기를 날짜별로 잔잔하게 보여 준다. 3월 개봉. 감독 호나스 트루에바 출연 잇사소 아라나, 비토 산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상위 1퍼센트 영재가 모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서 신분을 숨긴 채 경비원으로 일하는 새터민 천재 수학자 이학성과 '수포자' 학생 한지우가 인연을 맺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지우는 이학성의 정체를 알게 된 뒤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조른다. 한지우에게 수학의 아름다움과 올바른 답을 찾는 과정을 알려 주던 중 이학성은 뜻하지 않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3월 9일 개봉. 감독 박동훈 출연 최민식, 김동휘



신비한 찰나의 꽃, 상고대
아득한 구름의 바다, 운해
흰눈이 준비한 선물, 눈꽃

흔히 볼 수 없는, 보물 같은 겨울 -
발왕산이 당신을 **진짜 겨울**로 초대합니다



망상지구 조감도

경제 중심과 관광 메카로 급부상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원도 망상·옥계·북평 지구를 환동해 경제권의 주축으로 성장시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을 들어봤다.



북평지구 조감도



옥계지구 조감도

환동해 경제권이 부상하고 있다. 환동해권 경제 규모는 2007년 5조 8000억 달러에서 2020년 12조 2000억 달러로 1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양과 대륙의 연결점이자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출발선인 지정학적 이점이 글로벌 시대인 지금 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국가는 환동해를 성장 축으로 삼으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중국의 '창지투 프로젝트', 러시아의 '극동발전전략 2025', 일본의 '광역경제권 및 미래개척전략'이 대표적이다. 한국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국제 복합 관광도시 조성, 첨단 소재 산업의 신동력 창출,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 육성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망상·옥계·북평 지구로 이루어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러시아, 일본과 인접한 환동해권의 중심이다. 양양국제공항, KTX 역사, 동해항 등이 들어선 육·항로 교통 요지인 데다 인근에 북평산단, 송정산단, 동해자유무역지역 같은 기존 산업 시설과 R&D 센터가 위치해 산·학·연 연계가 용이하다. 뒤로는 설악산과 오대산이, 앞으로는 동해가 펼쳐져 복합 관광도시로 도약할 날이 기대되기도 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지구마다 여러 전략을 수립했다.

국제 수준의 복합 관광도시, 동해 망상

동해시 망상동 일대 천혜의 해양·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호텔, 리조트,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정주 가능한 국제 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관광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다. 망상지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로 고속도로와 KTX 노선이 신설되고 동해항과 양양국제공항 등 교통망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접

근성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청정 바다와 쾌적하고 온난한 기후가 어우러지는 관광 거점으로 입지가 굳건해지고 있다. 특히 힐링, 워라밸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높아지는 동해안권 위상에 힘입어 국제 복합 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첨단 소재 부품 용·복합 단지, 강릉 옥계

철도와 고속도로, 옥계항, 동해항을 비롯한 최적의 자원 운송 수단을 기반으로 첨단 소재 부품 산업과 R&D, 비철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릉 지역의 세라믹, 경량 금속 등 소재 중심 첨단산업과 연계해 온 경량 소재, 이차전지, 금속 분말, 수소 저장 합금 분야 기업을 집적화해 첨단 소재 부품 용·복합 산업 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구상이다.

수소 및 첨단 소재 부품 산업 거점, 동해 북평

남은 전력을 이용해 수소나 메탄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인 P2G R&D와 실증 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연관 기업을 유치해 최근 주목받는 수소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평산단, 송정산단, 동해자유무역지역 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명실상부 수소 및 첨단 소재 부품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는 게 골자다.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과 동해항 수소 항만 건설, 수소 기업 집중 유치를 통해 크게 변화해 나갈 북평지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별 투자가 가시화되는 현재, 더 큰 성과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Puzzle



* 다 미로에서 타는 친구도 포함할 수 있게 되어만 찾아봐주세요.

자료: 협조한빛에듀



〈찾아도 찾아도 끝판왕-1000개 숨은그림찾기: 우리 동네〉

다양한 생활 속 모습에서 숨은 그림을 찾는다. 공원, 백화점, 병원, 빵집, 기차역,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재로 삼았다. 각 장소와 직업의 특성을 담은 물건이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퍼즐을 풀고 나서 색칠 놀이도 할 수 있어 알차다. 귀여운 그림 덕에 즐거움이 배가된다.

자나 컬 지음 한빛에듀 펴냄



김정

Hotel & Resort



모나파크 용평리조트 자연과 대화하는 치유의 숲

숲길을 거닐고 동물을 만난다. 평창 모나파크 용평리조트 숲속 힐링 공간인 애니포레가 인기를 끈다. '애니포레'는 '애니멀 포레스트(Animal Forest)'에서 각각 앞 두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보송보송한 털로 뒤덮인 귀여운 알파카와 교감하는 알파카 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맞는 가문비 치유숲과 산책로, 인생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존까지 완비했다. 등산로를 이용해 도보로 가거나 애니포레 더 골드에서 편도 약 15분이 걸리는 모노레일을 타고 도착한다. 자연이 휴식을 선사한다.

☎ 033-335-5757 🌐 www.yongpyong.co.kr



해운대 영무파라드 호텔 반려견과 바다를 만끽하는 방법

반려견 양육 가구가 귀를 쫓긋 세울 소식.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가 반려견 동반 여행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식기, 배변패드, 탈취제 등 기존 제공 사항에 펫 뷰티 브랜드 플로리스클린의 워터리스 샴푸·미스트, 극세사 타월을 더했다. 또 펫 가전 브랜드 하이큐브의 펫 스타일러를 전용 층마다 비치해 백사장에서 뒹굴고 온 반려견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예약하면 가격이 더욱 저렴해진다. 반려견도 반려인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 기회다.

☎ 051-743-0003 🌐 www.ymparade.kr



휘닉스 평창 음식에서 계절을 맛보다

태기산 자락에서 미식을 즐긴다. 휘닉스 평창이 3월부터 올데이 뷔페로 강원도 음식을 선보인다. 아침과 점심에는 대관령 황태로 끓인 시원한 해장국과 강원도 감자로 빛은 웅심이, 황성 더덕구이 등을 내놓는다. 시련을 견뎌 내야 단단해지듯, 추운 겨울을 감내한 강원도 봄철 식재료의 맛이 훌륭하다. 저녁은 대관령 황태구이와 강릉 옥수수 범벅, 초당 순두부 등으로 넉넉하게 차린다. 여행도 밥심이다. 세끼 모두 든든히 챙겨 먹으며 여행한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

☎ 1577-0069 🌐 www.phoenixhr.co.kr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완연한 계절의 맛, 완주 기차 안 시간을 책임지는 〈KTX매거진〉. 영어 기사가 있어서 표현을 비교해 가며 읽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수달이 영어로 'otter'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지원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시작하는 날의 여행 20대 초,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며 무작정 떠났다가 김천 직지사 에 들른 오래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조만간 첫 마음을 찾아 직지사 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춘희 전북 전주시 당산로



한지에 핀 꽃, 낙화 나무를 지진 그림은 봤지만 한지를 인두로 지져 그린 작품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니, 놀라워요. 김영조 낙화장의 작품에서 그의 삶을 가능해 봅니다. 김미애 광주시 북구 일곡택지로

기차로 여행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목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이지만, 언젠가 이곳에서 대륙횡단열차가 출발하면 좋겠어요. 더 먼 곳까지 기차가 달리기를 고대합니다.
신연주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부산 사는 우리 가족이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이번 여행 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며 눈을 담아 가고 싶다고 하네요. 누군가에게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꿈이기도 합니다.
형중우 부산시 기장군 해빛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3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농부아빠의 사랑이 담긴 화장품 브랜드 페르미어파파의 키즈 라인 제품 울인원 젤 워시, 로션, 크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천연초와 모링가 성분을 함유해 연약한 아이 피부에 자극 없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무궁화호' (창원 경화역)



- 154 한국철도 소식
- 160 시간표
- 170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한국철도, 오미크론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굳건하게 맞선다. 한국철도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막고자 철도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 대전 사옥에서 전국 지역 본부와 영상으로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연 한국철도는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대응 현황을 검토하고 현장 상황을 재점검했다. 전국 8개 지역 본부와 부속 기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KF80 이상) 착용, 3밀(밀폐·밀접·밀집) 시설 이용 지양, 비대면 모임 활용 등을 권고하며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열차안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강력한 계도 활동도 지속한다. 한국철도는 정부의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현장 대응 시 혼선이 없도록 소통하고, 세부 비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



복지시설에 나눔 키트 지원

한국철도가 설을 맞아 전사적 나눔 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2월 한국철도 직원들은 대전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2000만 원 상당의 식품 키트를 지역 홀몸 어르신 5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식품 키트는 명절 음식 등으로 구성됐다. 대전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도 나눔의 따스함이 달았다. 본사를 포함한 8개 지역 본부가 전국 136개 복지시설과 연계해 9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전한 것이다. 한국철도 사회봉사단도 매년 명절 전국의 노인복지관·아동복지관 등과 연계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해 지역, 이웃과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임인년 첫 명절,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겨울이 춥지 않다.

4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

첫째는 안전, 둘째는 예방이다. 한국철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철도 안전 강화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안전경영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해 중대 재해 예방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본부 산하에는 중대시 민재해를 담당하는 시민안전처,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처로 전담 기능을 나눠 고객과 직원의 생명을 보호한다. 안전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편해 사고 예방에 힘쓴다.

2



인종차별 반대 '리브 투게더 챌린지' 참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평화를 불러온다. 한국철도 나희승 사장이 글로벌 캠페인 '리브 투게더 챌린지'에 동참했다. 리브 투게더 챌린지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제고를 목적으로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지난해 4월부터 공동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나희승 사장은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철도 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가 국적으로 차별받지 않길 바라고 전하며 한국철도 공식 SNS에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3



철도 유휴 부지, 상생형 생활 물류 시설로 활용

유휴 부지에 생기로운 바람이 분다. 한국철도가 전국의 철도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중소 생활 물류 시설 운영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 부지는 전국 역 주변 1000제곱미터(약 300평) 이상 유휴 부지 14개소다. 택배·특송·e커머스 등 물류 기업과 유동업체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집배송센터 등 소규모 물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접수는 3월 22일까지. 문의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5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최고 등급 달성

한국철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1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13개 평가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총점 99.5 점을 기록했다. 열차이용객 정보 등 42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다. 한국철도는 이상 행위에 대한 감시·추적, 식별 대응이 가능한 관리 체계로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6



ALL THAT KORAIL SERVICE

QR코드를 스캔하면
KTX 랜선 여행
VR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60도 시야 '한국철도 VR 랜선 여행' 공개 운전실에서 촬영한 중부내륙선 철도를 VR로 만나다

'집콕' 생활로 지친 모두를 신나게 할 랜선 여행이 시작된다. 한국철도가 실제 열차를 운전하는 듯 실감 나는 VR 영상을 한국철도TV 유튜브에서 선보인다. 한국철도 명예기자 철도 분야 크리에이터 '레일리즘(Railism)'과 협업해 제작한 영상이다. 열차가 질주하는 장면을 담은 '한국철도와 VR 랜선 여행' 콘텐츠를 기관사 시점에서 감상한다. VR 전용 안경을 착용하면 운전실 내·외부 화면을 360도 시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중부내륙선 부발~충주 구간 콘텐츠와 시속 300킬로미터 KTX 속도 체험, 기암괴석 협곡의 V트레인 등 계절별 아름다운 한국 철길 명소 10여 곳을 차례로 공개한다. 한국철도는 2008년부터 인문·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플루언서를 명예기자로 위촉해 철도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 왔다. 앞으로도 명예기자와 협업해 고품질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 전담창구

한국철도 기업성장 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

중소기업의 활력제고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규제혁신, 중소기업 민원·제안의 상시접수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신고사항

기업활동 애로사항, 한국철도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및 직원 갑질 등 기업민원 상시접수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이용

신고방법

방문 신고 한국철도공사 대전본사 사옥(1층) 고객지원실 방문 접수
한국철도공사 대전사옥 방문 > 안내데스크 접수 > 담당자 면담 (고객지원실) > 민원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042-615-3584 (여객관련 민원은 1544-7788)
인터넷신고 철도상생플랫폼(win-win.Korail.com) 홈페이지 →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철도 여행센터가 추천하는 강원도 여행



핫 플레이스를 알차게 모은 정선·강릉 1박 2일 여행

멋과 맛, 흥이 있는 정선·강릉 여행지를 모았다. 1박 2일 동안 일곱 곳을 여행하는 코스는 첫날 서울역에서 출발해 정선 곳곳을 훑는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아리랑시장 방문이 시작이다. 다음에는 시속 15~20킬로미터 속도로 운행하는 철길 자전거 정선 레일바이크에 오른다. 정선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정선의 멋을 온몸으로 느낀다. 아우라지역에서 돌아올 때는 풍경열차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 2일 차 여행은 강릉의 '정동진 심곡 해변길-현화로-하슬라아트월드-월화거리' 코스로 이어진다. 인생 사진 성지로 꼽히는 강릉 하슬라아트월드는 뮤지엄 호텔, 현대미술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예술 공간으로 사진뿐 아니라 기억에도 아름답게 남는 곳이다. 강원도의 자연과 문화를 만끽한다.



© 신구철



자연과 역사 속으로, 영월·정선 1박 2일 여행

영월과 정선에서 1박 2일간 추억을 만든다. 첫날 일정은 서울역을 출발해 정선에서 '아리랑시장-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아우라지' 코스를 방문한다. 둘째 날에는 한반도 지형을 닮은 밤섬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병방치스카이워크에 오른다. U자형으로 돌출된 길이 11미터의 스카이워크가 아찔하다. 그 후 영월로 이동해 '젊은달와이파크-청령포-서부시장' 코스를 둘러본다. 젊은달와이파크는 영월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독특한 예술 작품이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진 명소다. 청령포는 조선 단종의 유배지로, 여전히 배를 타고 서강을 건너 들어간다. 단종어소, 노산대, 금표비 주변을 걸으며 단종의 심정을 헤아린다. 수백 그루 소나무 숲이 장관이다. 1박 2일 알차게 여행한 기억이 뿌듯하다.



푸른 쉬를 선물하는 양양·속초 1박 2일 여행

파도가 푸르게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도시, 양양과 속초에서 힐링한다. 1박 2일 상품으로 김포국제공항이 출발지다. 먼저 '낙산사-주전골-오색그린야드 호텔' 순서로 양양을 여행한다. 낙산사는 바닷가에 솟은 오봉산 끝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이다. 해수관음상이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다. 절벽 위 고즈넉한 의상대에서 바라본 동해 절경이 감탄스럽다. 다음 날 속초에서 '갯배 체험과 아이바이마을·해담마을 농촌 체험' 코스로 여행한다. 산과 산 사이에 해를 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해담마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액티비티를 즐긴다. 수륙양용차타기, 정족산 스피리트 서바이벌 등도 색다른 경험이다. 바다와 산을 모두 누리는 여행이 흥겹다.

문의 02-2678-7723(수도권서부여행센터), 031-245-8597(수도권남부여행센터)

KTX/KTX-산천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爾 Seoul	광명 光明 Gwang 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울산 蔚山 Ulsan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밀양 07:35	구포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4	15:01	15:23	15:36	15:53		16:36	16:54		17:22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금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2		23:17	23:38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2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울산 蔚山 Ulsan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 myeong	서울 首爾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월화수목 KTX-산천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밀양 16:15	16:48		17:30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2	08:09	08:33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23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1:02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5:39	16:03	16:28	17:03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이음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凉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종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목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09	10:21			10:40	10:57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843	11:01	11:22	11:28	11:50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26	19:43			금토일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863		19:55		20:22	20:45				21:09				금토일
885		20:15			21:03			21:24		정동진 21:57	22:18	22:25	금토
823	20:01	20:22	20:28	20:51	21:13			21:38		21:55			
825	21:31	21:52	22:18	22:41	22:51	23:01	23:11			23:33			
827	22:11	22:32		23:18				23:43		00:00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2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0	20:24	20:42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6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Seodaej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50	15:05	15:28	15:40		16:08	16:24	16:44		17:15	
423			15:36	15:51	16:21	16:37		16:55	17:11	17:30	17:40	18:05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공주 18:41		18:59		19:28	19:38	20:03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54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1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Gongju	Seodaej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e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19 계룡 13:34	논산 13:51 14:16	14:32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31		15:49 계룡 16:05	논산 16:23 16:51	17:07	17:34		17:53	18:08	18:22	18:30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41		19:02	19:18	19:45			20:17	20:31	20:39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2:5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34		금토일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량리 淸凉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흥기 興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5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32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33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Mokpo-Gwangju to Yongsan

2022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정읍 井邑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myeong	Yongsan	Seoul	Haeng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3	06:00	06:10 장성 06:25	06:43 김제 06:58	07:12 논산 07:36	계룡 07:54 08:10	08:29	08:42	09:08	09:24	09:29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3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29	14:56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5:57	16:24	16:34	16:53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82	16:31		17:04 장성 17:18	17:36 김제 17:52	18:08 논산 18:33	계룡 18:51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19:15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Yeosu-Expo	Yeocheon	Suncheon	Guryegu	Gokseong	Namwon	Jeonju	Iksan	Seodaejeon								

KTX-이음 중부내륙선 하행 From Bubal to Chungju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발 夫鉢 Bubal	가남 加南 Ganam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nggok-Janghowon	양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oncheon	충주 忠州 Chungju	비고 備考 Remark
731	07:52	08:00	08:08	08:17	08:27	
733	12:39	12:47	12:55	13:04	13:14	
735	15:35	15:43	15:51	16:00	16:10	
737	19:30	19:38	19:46	19:55	20:05	

KTX-이음 중부내륙선 상행 From Chungju to Bubal

2022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충주 忠州 Chungju	양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oncheon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nggok-Janghowon	가남 加南 Ganam	부발 夫鉢 Bubal	비고 備考 Remark
732	06:41	06:52	07:01	07:09	07:16	
734	11:02	11:13	11:22	11:30	11:37	
736	13:52	14:03	14:12	14:20	14:27	
738	18:30	18:41	18:50	18:58	19:05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옥수 玉水 Oksu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ri	상봉 上鳳 Sang bong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사릉 思陵 Sa reung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마석 磨石 Maseok	청평 淸平 Cheong pyeong	가평 加平 Gapyeong	강촌 江村 Gangch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춘천 春川 Chuncheon	비고 備考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2007	08:51	09:02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2009	09:57			10:14					10:38		10:53		11:07	11:10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2013	12:00	12:10		12:18				12:40			12:58		13:12	13:15	
2015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2017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2019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2021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202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202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202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202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2031	20:32			20:49				21:10	21:16	21:26	21:34	21:43	21:51	21:54	
2033	21:21			21:38				21:59		22:17	22:27		22:32	22:35	
2035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춘천 春川 Chunche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강촌 江村 Gangchon	가평 加平 Gapyeong	청평 淸平 Cheong pyeong	마석 磨石 Maseok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사릉 思陵 Sareung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상봉 上鳳 Sang bong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ri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옥수 玉水 Oksu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2006	07:22	07:26	07:35	07:44	07:52	08:02	08:07				08:29			08:47	
2008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201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2012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2014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2016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2018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2020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202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202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2026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202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2030	18:53	18:57		19:12		19:26	19:32				19:54	19:59		20:13	
2032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2034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2036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옥수 玉水 Oksu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ri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청평 淸平 Cheong pyeong	가평 加平 Gapyeong	강촌 江村 Gangch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춘천 春川 Chuncheon	비고 備考 Remark
205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205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205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205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205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206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2063	09:49			10:06			10:43		10:58	11:01	
206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2067	10:59	11:09	11:13	11:17		11:50	11:58		12:12	12:15	
2069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2071	11:57	12:07	12:12	12:17		12:50	12:58		13:13	13:16	
2073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2075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2077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2079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2081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2083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2085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2087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2089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2091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2093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2095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2097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2099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2101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춘천 春川 Chuncheon	남춘천 南春川 Nam chuncheon	강촌 江村 Gangchon	가평 加平 Gapyeong	청평 淸平 Cheong pyeong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 hopyeong	청량리 淸涼里 Cheong nyangri	왕십리 往十里 Wang simni	옥수 玉水 Oksu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205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205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205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2058	08:47	08:51	09:00	09:09		09:27	09:50			10:07	
206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2062	09:52	09:56	10:05	10:14	10:14	10:32	10:55			11:11	
206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2066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2068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207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2072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2074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2076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2078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2080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2082	16:15	16:19	16:28	16:37		16:55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영동 永同 Yeongdong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5	13:06	13:19	13:44	13:56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04 물금 15:22	15:31	15:43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5:49 물금 16:07	16:17	16:29	
1023	12:53	13:02	13:23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2년 3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영동 永同 Yeongdong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7:40		18:09	18:30	18:38	토일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eup	장성 長城 Jang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태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합평 15:01	일로 15:14 15:23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태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태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합평 23:21	23:40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Mokpo-Gwangju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Mokpo	합평 咸平 Ham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장성 長城 Jangseong	정읍 井邑 Jeong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3:26		14:09	14:39	14:59	15:06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태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태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태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ocheon	여수엑스포 麗水 엑스포	비고 備考
1081	08:47	08:54	09:16	09:35	09:48 조치원 10:08	10:35	10:51	11:10		11:36	11:52	12:19	12:29	12:41	12:58	13:13	13:21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21:12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 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1084	15:52	16:00	16:15	16:31	16:43	16:53	17:21	17:39		18:05	18:23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창원 昌原 Chang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1031	08:53	09:02	09:23	평택 09:42 09:55	10:16	10:40	11:31	11:47		12:16	12:22 경산 12:31	12:56	13:14	13:24	13:33	13:39	13:51	14:09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진영 進永 Jin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1032	09:08	09:28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1034	15:47	16:07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예산 禮山 Yesan	삼교 插橋 Sapgyo	홍성 洪城 Hongseong	광천 廣川 Gwangcheon	대천 大川 Daecheon	웅천 熊川 Ungcheon	서천 舒川 Seochon	장항 長項 Janghang	군산 群山 Gun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16:54	17:12	
1057	15:30	15:38	16:01		16:37	16:44	16:53		17:10		17:26	17:39	17:56	18:07	18:19	18:25	18:32	18:50	
1059	17:55	18:03	18:26	18:46	19:06	19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 ※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3-1번 출구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배차 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타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 ※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 ※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행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AMENITIES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 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 (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OPTIONAL SERVICES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인천공항)



운행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40~100분 간격 / 왕복 30회)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0분,
(T2→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1번출구 1-1번 버스정류장
(인천공항) T1 1층 88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KTX 마일리지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 ※ **플랫폼 구매처** CU 편의점, emart24, 스토리웨이
- ※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iOS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스티커 구매 → 부착 후 사용
-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도로, 편의점 등
- ※ **충전처** 전철 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CU 레일플러스카드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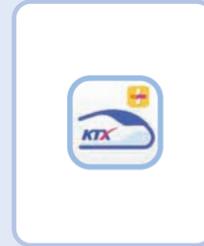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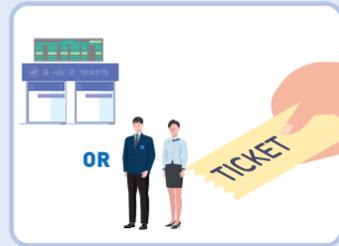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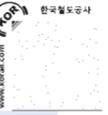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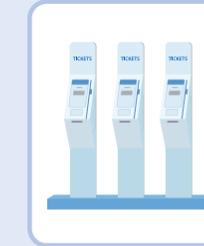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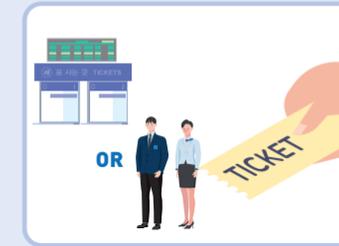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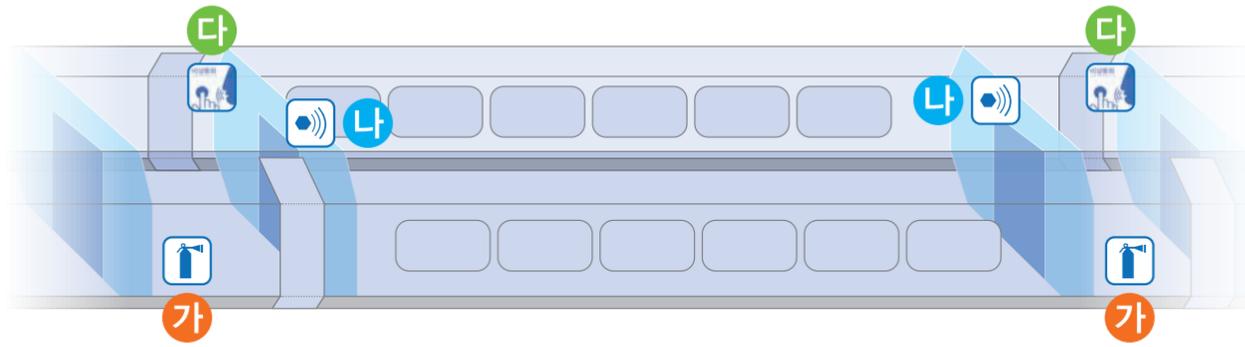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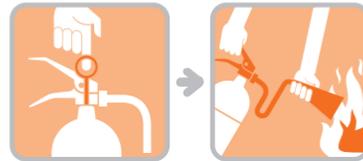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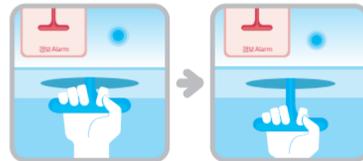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통화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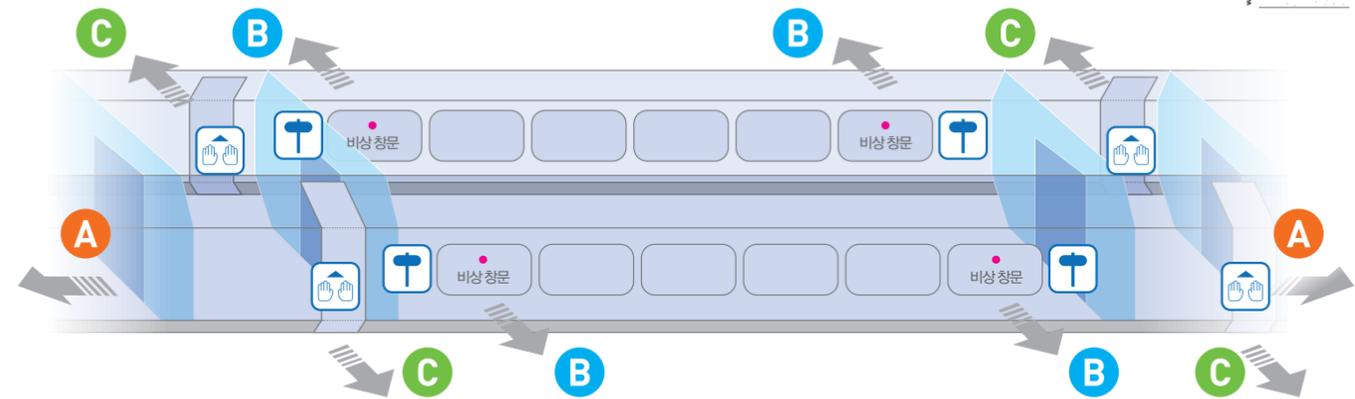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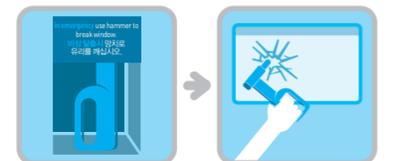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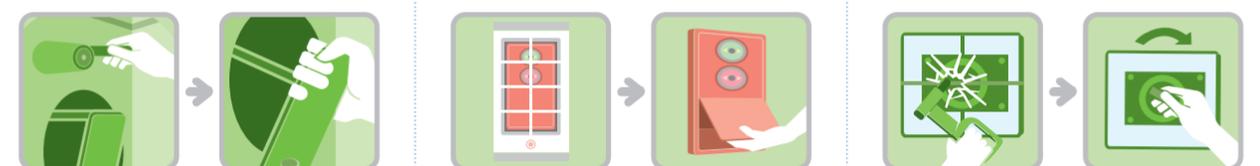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꿈은 이루어집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맛있다.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입맛이 그렇다. 내가 뭐든 맛나게 먹는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안다. 나도 이렇게 경이로운 나 자신을 믿기 힘들다. 이번 달 '에디터 체험기' 시식을 진행하면서 선배가 젤리를 체험기로 쓴 예전 이야기를 했다. 내가 모든 젤리에 별 다섯 개를 줬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함께 잡지를 만든 세월이 긴데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는 나란 사람. '에디터 체험기'를 읽는 독자님 가운데 한 분만 믿어 주신다면 그걸로 됐다. 혼자서 외롭다. 한 분이라도... 계시죠? 맛있는 건 그냥 맛있는 거다. 이래서 맛있고 저래서 맛있다는 표현이 나는 어렵다. 뭐든 그냥 맛있기만 하니까. 그래서 '에디터 체험기'를 작성할 때마다, '맛있다. ★★★★★'만 쓸까 고민하다가 만다. 나는 꿈꾼다. 뱀새만 말아도 어지러워질 만큼 싫어하는 음식이 두어 가지쯤 있게 되기를. 그러려면 그게 맛있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서 꿈을 포기한다. 김규보

나는 바퀴를 보면 '달리고' 싶어진다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실이 무척 뿌듯하다. 운동신경이 전무하다시피 한 내게 자전거 타기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이다. 운명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등을 떠민다. 3년 전 한 출장지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 중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취재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자전거 특훈에 돌입했다. 문제는 그 당시 남편도 자전거를 못 타는 것인데... 여하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페달을 구르게 된 우리는 그때 이후로 자전거를 즐겨 타게 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따릉이의 연간 이용권을 끊고 틈만 나면 한강공원을 달린 해도 있었다. 얼마 전 김포 시민이 되고부터 따릉이는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 되었으나, 좋은 길을 만나면 그때 그라이딩을 떠올리곤 했다. 이번 달 장항에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발을 하도 세게 굴려서 페달이 재차 헛돌았다. 그마저도 행복했다.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라 여행이 더 즐겁다. 강은주



좋아하다

1. 취향이 뚜렷한 편이나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하는 애매한 사람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것이라면 전부 좋아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해도 귀여운 스티커나 인형 모으는 게 취미예요. 이달에는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고심해서 고른 10개의 스티커와 토끼 인형 키링을 구매했죠. 출퇴근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대롱대롱 매달린 토끼 인형을 보면 힘들어도 웃음이 납니다. 소소한 것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2.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겨울은 추우니까 추위를 많이 타서 여름을 좋아하는 편인데, 철원에 가게 되더니... 걱정 잔뜩, 옷은 든든하게 입고 갔으나 역시 추웠어요. 흑흑. 그래도 마지못해 겨울이 좋은 이유를 꼽자면 눈이 온다는 것. 아름다운 설경에 '이래서 겨울에도 여행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겨울의 매력을 새삼 깨닫게 해 준 철원 풍경. 역시나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남혜림

손안에서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로왕의속속 라싱반®



1°C 온도 상승 시 정자 수 최대 40% 감소



프랑스 틀루즈 남성불임연구소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Lidia Minguéz-Alarcon 박사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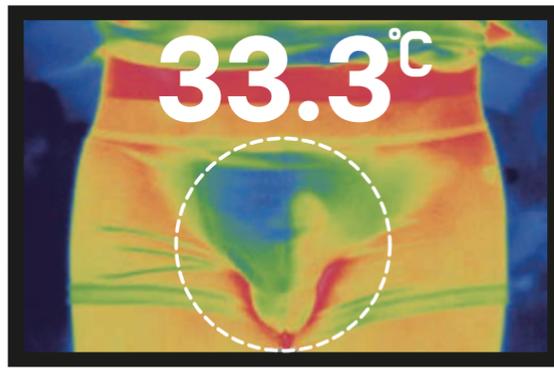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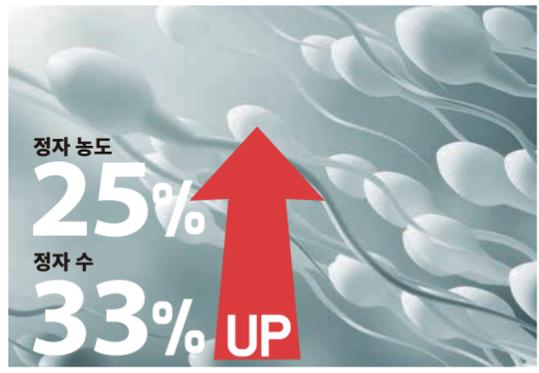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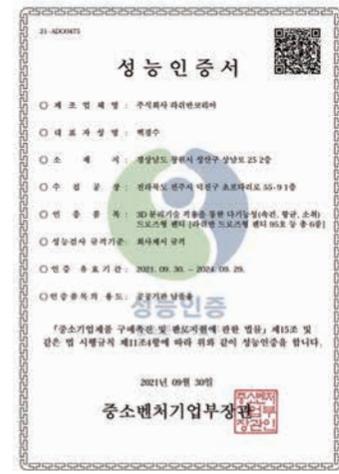
고환의 온도가 2도 오르면 기능이 마비되고, 이 상태 2시간 지속되면 정자 전멸해 씨없는 수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팬티를 입으면 정자 농도가 25%, 정자 수는 17% 높거나 많았다. 운동성 있는 정자 수는 33%가 더 많았다.



남성속옷부문 최초! 대한민국 성능인증

BR cooling 33.3
Brilliantly Refreshing
온도가 내려 갑니다.



KTX

바로 지금, 여행

춘천

다시 봄, 언제나 봄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